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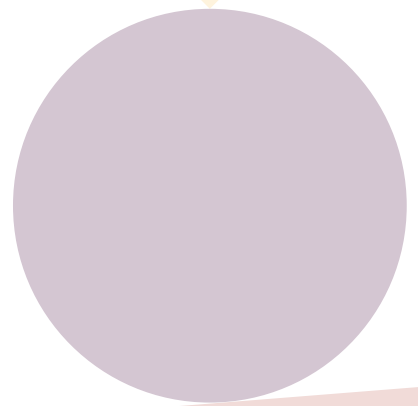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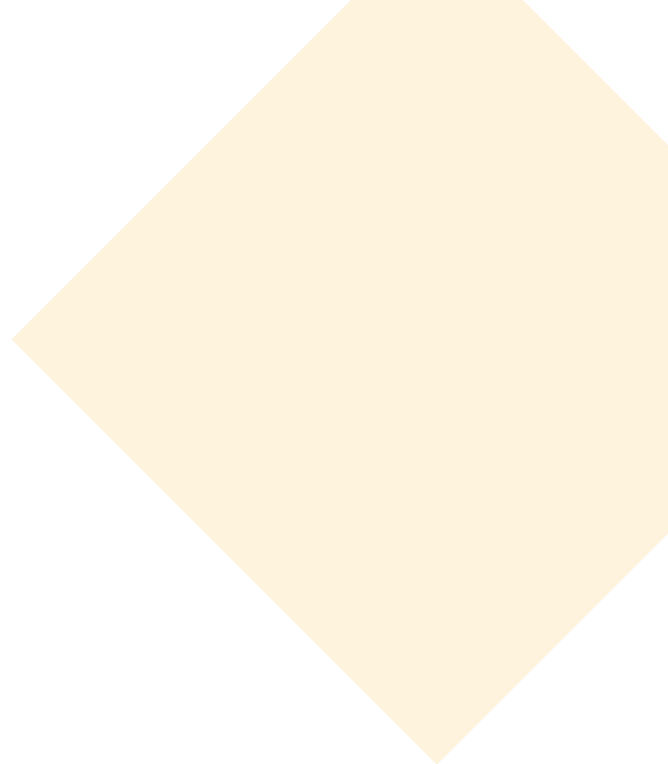
September 2023

2023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2023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개인의 행복을 위한 Care System 필요

올해 전 지구적인 화두는 경제, 사회, 정치, 환경 등의 유례없는 대위기와 초거대 AI 기술의 혁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엔데믹 선언 이후 일상 회복 과정에 돌입했지만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글로벌 은행 위기,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경제 및 사회적 회복은 더딘 상황입니다. 기후 위기 이슈도 빠질 수 없습니다. 지난 8월 7일(현지 시각) 유럽연합(EU)의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C3S)는 올해 7월이 지구상에서 가장 더운 달이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기술 측면에서는 지난 3월 Chat GPT-4가 출시되면서 초거대 AI가 새로운 혁명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게임체인저로서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윤리 문제, 에너지 문제 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대미문의 위기와 발전이 공존하는 현시점에서, <2023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를 통해 우리나라 사회문제를 진단하고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2023년 사회문제는 ‘개인 행복의 위기’로 요약됩니다. 2020년부터 개인의 행복감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20~30대의 행복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개인 행복의 위기는 ①가계 경제, 일·생활 불균형 등 개인 차원의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②정부 신뢰 하락, 낮은 사회의 질 등 사회적 자본 감소로 인해 사회문제가 각자 해결해야 하는 개별화된 문제로 변모하고, ③코로나 팬데믹부터 시작된 개인의 우울감 증가와 엔데믹 이후 가계 경제 위기로 인해 회복탄력성이 저하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개인 행복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Care System’이 필요합니다. 먼저, 국내외적으로 직면한 다중 복합 위기(Poly-crisis)라는 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이 필요합니다. 다중 이해관계자간 협력을 통해 조금은 더디더라도 확실한 회복과 복원, 보호가 가능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세대별 맞춤형 사회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20~30대는 ‘소득 및 주거 불안’ 문제에, 40대 이상은 ‘환경 및 안전’ 문제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각 세대에 적합한 사회문제 솔루션이 제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I 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노력에 힘써야 합니다. 기후변화, 빈곤, 교육, 복지, 의료 등 다양한 영역에서 AI를 활용하고 있으며 그 활용 영역과 범위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AI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최적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The future depends on what we do in the present.”

미래의 우리 사회는 현재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는 종종 잊고 지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의 사회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는 것은 물론 쉽지 않습니다. 고질적인 문제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사회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행동한다면 분명 미래의 모습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사회 변화와 과제를 이해하고 지속적인 미래를 고민하고 영감을 얻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원장 나석권

CSES | 사회적 가치 연구원
Center for Social value Enhancement Studies

사회적가치연구원(CSES : Center for Social value Enhancement Studies)은 SK그룹이 설립한 연구재단입니다.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 사회문제 해결방안을 연구하며, 이를 함께 할 사람들을 연결하고 확장합니다.

회복을 넘어 함께 행복한 미래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떤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수많은 사회문제가 떠오르던 시점, 트리플라잇은 이같은 물음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이 느끼는 사회문제의 ‘크기’와 ‘깊이’는 매년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이며,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 그리고 보다 세밀한 해법을 요구해왔습니다.

2020년 떠오른 키워드는 ‘양극화’였습니다. 국민들은 집값 불안정 속에서 느끼는 소득 양극화(부익부 빈익빈)로 힘겨웠습니다. 이듬해에는 예상보다 오랜 기간 지속되는 코로나 위기를 체감하며, 사람과 사회안전망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커졌습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감이 줄고, 대면보다 온라인 위주의 소통이 지속되면서 2022년에는 세대별, 성별, 지역간 인식 격차와 갈등이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의 간극과 갈등이 높아진 상황에서 맞이한 2023년, 우리나라는 경제·정치·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불안사회(Unstable Society)’로 진입한 모습입니다.

정부 및 제도에 대한 불신과 이념적 갈등 증가, 경제적 불확실성과 높은 실업률, 범죄율 증가와 사회안전망 위기, 재난재해 대응 부족 등 불안정성이 높아진 사회의 모습과 이로 인한 국민들의 우려가 ‘2023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연구 데이터 속에 담겨있었습니다.

실제로 2020~2022년 대비 2023년 국민들이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안전성, 신뢰, 공평, 활력(역량 발휘) 수준은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사회’라는 답변은 2020년 63.3점에서 2023년 48.1점으로 급격히 하락했고, 2020년 행복감이 가장 높았던 20~30대는 3년 만에 가장 행복하지 않은 세대가 되었습니다. 성별·연령·지역에 따른 사회문제 인식 격차는 더욱 벌어졌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참여하려는 개인의 시간과 비용도 감소했습니다. 신뢰, 연대 등 사회적 자본이 무너지며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는 적어지고, 정부·국회·시민사회단체 등 각 주체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요구는 커졌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Chat GPT 열풍과 함께 떠오른 AI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AI 기술로 인해 대체될 일자리 문제에 대한 우려가 가장 높은 반면, AI를 활용해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대전환 시대 속에서 성별, 연령별, 학력, 지역별 AI 리터러시(인공지능 문해력) 격차가 벌어지는 모습이 나타나 불균형과 갈등을 완화시킬 장치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사회문제는 모두 연결돼있습니다. 하나의 사회문제가 또 다른 사회문제를 촉발하고, 서로 다른 사회문제가 얹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속도에 비해 새로운 사회문제가 증가하는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기에, 지금 누군가가 겪는 어려움이 언젠가 나의 문제로 다가올 수 있으며, 현재 해결한 사회문제가 예기치 못한 부수적인 문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불안사회에서 벗어나기 위한 해법은 ‘공감’과 ‘협력’에 있습니다. 누군가의 어려움에 공감하는 마음의 힘이 회복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협력을 통해 모두 함께 행복한 사회로 다시 나아가길 바랍니다.



*트리플라잇(triplelight)은 임팩트 데이터 & 솔루션 플랫폼으로, 모두가 임팩트를 고려해 의사결정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세상을 꿈꿉니다. 개인·조직·사회가 임팩트를 이해하고, 관리하며, 확산할 수 있는 전략과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HAPTER 1

Overview

연구 개요

8

Purpose & Approach

배경 및 목적

9

Executive Summary

2023 대한민국 사회문제 핵심 요약

- Impact Issues: Present & Future 현재와 미래, 주목할 이슈
- Sustainability Issues 국민이 바라는 지속가능경영
- AI Impact 인공지능이 가져온 변화

18

Process

연구 방법

CHAPTER 2

Impact Issues
Analysis

2023 사회문제 분석

26

Public Impact Issues

국민이 주목하는 사회 문제

- Social Awareness 사회인식 조사
- Issues & Impact : Looking back and forward 현재와 미래, 주목할 이슈
- Impact Awareness Gap 사회문제 인식 격차

39

Level of Problem Difficulty

사회문제 해결 난이도 진단

- Korean Social Problem & Difficulty Level
문제 해결 난이도 : OECD 국가 대비 한국의 심각성
- Issue Tracking 이슈별 한국의 OECD 주요 순위

43

Collective Impact

협력을 통한 사회 변화

- Collaboration for Social Issue 함께 해결하는 사회문제
- Impact Action Analysis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의 행동
- Channel & Information 사회문제 채널 접근성과 인식도

CHAPTER 3

Sustainability Issues Analysis

국민과 함께하는 기업

- 60 **Public Awareness of Sustainability**
국민이 바라본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 62 **Sustainability Gap**
기업의 지속가능한 전략과 국민의 시선
- 65 **Sustainable Investing Strategy**
국민이 선택한 ESG 투자 전략

CHAPTER 4

AI Impact

인공지능이 가져온 변화

- 68 **AI Literacy Gap**
인공지능 문해력 격차
- 72 **AI & Social Issues**
인공지능과 사회문제에 대한 국민의 인식

CHAPTER 5

Beyond 2023

우리가 만드는 미래

- 80 **Conclusion**
사회문제 해결 방향성 및 종합 제언

CHAPTER 1

Overview

연구 개요

Purpose & Approach 배경 및 목적

트렌드

우리는 지난 3년간 코로나 팬데믹과 함께 전쟁, 경기 침체, 자연재해 등 국제적인 위기를 동시에 겪었습니다. 사회적 자본인 신뢰가 떨어지면서 갈등이 심화됐습니다. 사회문제는 각자 해결해야 하는 숙제처럼 개별화됐으며, 불안정한 사회 속에서 개인의 행복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분열과 대립을 넘어선 협력으로 서로의 위기를 극복하고 행복감을 높여가는 사회가 절실합니다.

다중위기(polycrisis) 속 안전망 구축해야

산업재해, 이상동기 범죄, 극심한 자연재해가 일상 속 재난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각종 위기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복합위기 속에서, 보다 면밀하게 위험을 감지하고 대응해야 할 시점입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을 위한 사회안전망(Care System)의 재구축이 필요합니다.

세분화된 문제의 통합적 해결

성별, 연령대, 지역, 학력에 따른 사회문제 인식 격차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특성별 체감하는 사회문제의 영향력과 세분화된 상황을 고려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동시에 개별화된 사회문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발전된 기술, 해결의 도구로

인공지능, 디지털화, 증강현실 등 IT 기술을 중심으로 산업 현상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위험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발전된 기술로 혁신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할 거란 기대감이 교차합니다. 더 나은 사회를 여는 기술로의 활용과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연구 목적

중첩되는 위기 속에서 주목해야 하는 사회문제를 정의하고, 복잡한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적 관점의 접근과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023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연구에서는 국내 사회문제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고, 우리의 선택과 행동들이 지속가능한 미래로 이어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핵심 키워드



현재와 미래의 연결

현재는 미래를 구성하며, 미래는 현재의 선택과 행동에 의해 결정됩니다. 현재와 미래의 상호구성성(Inter-construction)을 고려한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미래 위기와 기회 고려

현재와 미래의 사회문제로 야기될 리스크를 파악·대비하고, 기회요인과 대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사회변화의 주체인 기업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니즈를 반영해 비즈니스를 하려면, 사회적 이슈에 대한 기업의 영향력을 파악하고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간극을 메우는 해법

사회문제의 영향력은 사회계층과 인구적 특성별로 다르게 나타나며, 그 격차는 점차 커질 전망입니다. 다양한 관점과 요구를 통합하여 간극을 메우는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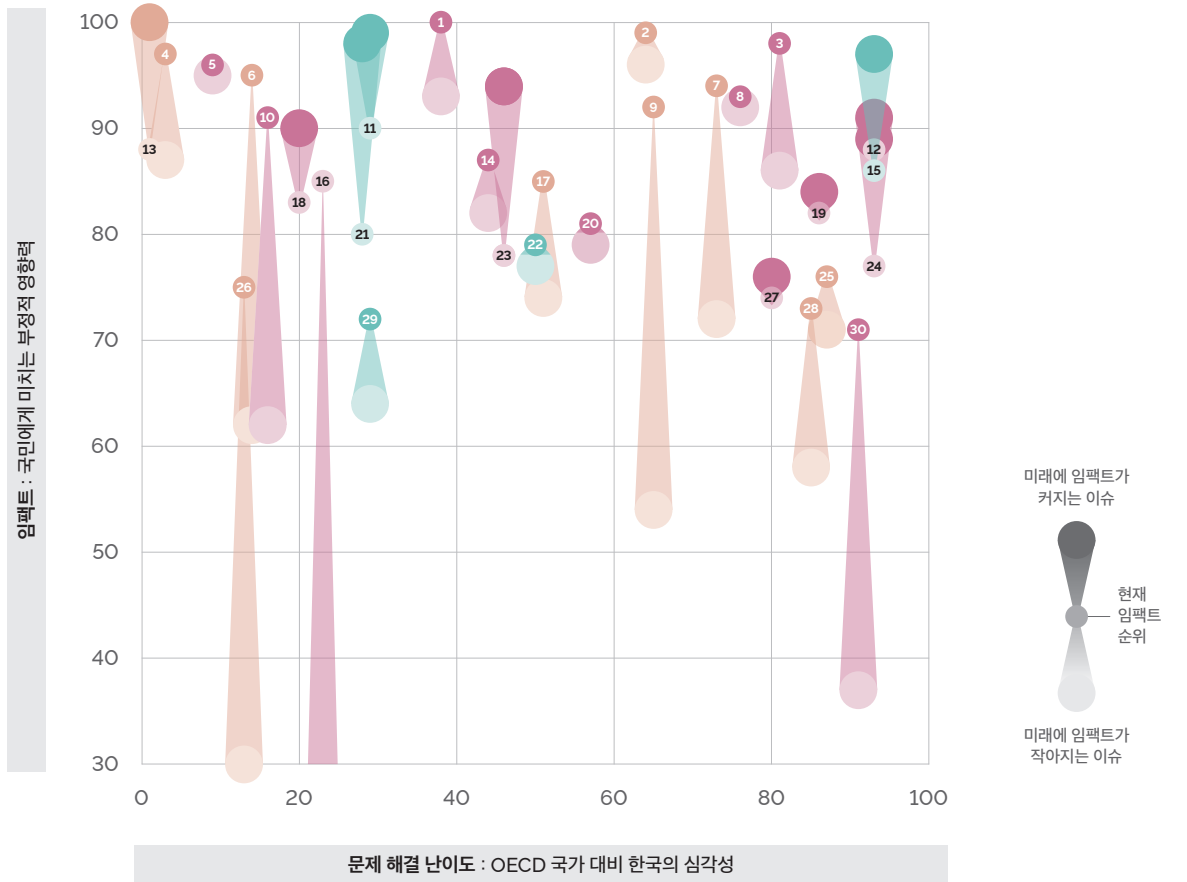
Executive Summary

2023 대한민국 사회문제 핵심 요약

Impact Issues: Present & Future 현재와 미래, 주목할 이슈

2023년 대한민국이 가장 주목해야 하는 사회문제는 무엇일까요. '2023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는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은 Top 30 사회문제를 선정하고, 해당 문제들의 현재와 미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2023 대한민국 사회문제: 현재와 미래



*Note: '임팩트(부정적 영향력)'는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이슈 데이터 및 미디어 분석을 통해 도출한 '한국이 주목하는 100대 사회 이슈' 중에서 '현재 당신의 삶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사회문제'와 '10년 후(미래) 당신의 삶을 가장 어렵게 만들 거라 예상되는 사회문제'를 꼽아달라는 설문조사 답변을 통해 도출된 값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이다. Y축은 '현재' 임팩트 점수를, X축 '문제 해결 난이도'는 100개 이슈별로 OECD, WEF, World Bank 등 국제기구의 통계 데이터를 분석하여 OECD 국가 중 한국의 순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도출한 점수이다. OECD 대비 한국의 수준이 낮을수록 문제 해결 난이도가 높아진다.

No	이슈	현재 임팩트 (전년 대비 변화)	미래 임팩트 (전년 대비 변화)	문제 해결 난이도
1	투명하지 못한 정부 운영(정부 신뢰 하락)	100 ▲5	93 ▲7	38
2	소득 양극화 심화(부익부 빈익빈)	99 -	96 ▼3	64
3	일·생활 불균형(일·가정 양립 불가능, 긴 근로시간)	98 신규	86 신규	81
4	집값 불안정(전셋값 폭등 등) 및 주거부담 증가	97 ▼3	87 ▼13	3
5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증가(사이버범죄 및 온라인 성범죄 증가 등)	96 ▼2	95 ▲1	9
6	대기업/중소기업 임금격차 및 중소기업 인력난	95 ▲4	62 ▼14	14
7	가계부채 증가	94 ▲22	72 ▼6	73
8	복지 수요에 비해 부족한 복지(복지 정책 및 제도 부족)	93 ▼4	92 ▲1	76
9	청년 일자리 부족	92 ▲6	54 ▼14	65
10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 부족	91 ▲14	62 ▼5	16
11	폭염·한파 증가	90 ▼4	99 ▲2	29
12	저출생 문제	88 ▲17	89 ▲7	93
13	노인 일자리 및 노후 대비 문제	88 신규	100 신규	1
14	이념·지역·정치적 갈등 심화	87 ▼9	82 ▼3	44
15	대체 에너지 개발 기술 부족(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 부족)	86 ▲2	97 ▲7	93
16	학벌지상주의 및 학력/학벌 차별 관행	85 ▼8	85 ▲1	23
17	경기침체 지속 및 금융산업 경쟁력 부족	84 ▲20	75 ▲6	51
18	고령화 심화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	83 ▲1	90 ▼8	20
19	공교육 붕괴 및 사교육 심화	82 ▼3	84 ▲10	86
20	교육비 부담(비싼 등록금 문제 등)	81 ▲6	79 ▼4	57
21	지구 온난화	80 -	98 ▲3	28
22	플라스틱 등 일회용품 사용 및 생활 폐기물 배출	79 ▼8	77 ▼3	50
23	세대/연령간 갈등 및 격차 심화	78 ▲4	94 ▲7	46
24	노인 빈곤 심화 및 불안정한 노후생활	77 ▼11	91 ▼5	93
25	어려운 재취업	76 ▼13	71 ▼22	87
26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부담	75 ▲14	30 ▼27	13
27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부족(사업장 안전 관리, 근로자 부상 문제 등)	74 ▲6	76 ▲29	80
28	구인 및 인력난	73 ▲20	58 ▼6	85
29	환경 및 기후변화 인식 부족	72 ▲12	64 ▲20	29
30	비정규직 증가(비정규직 차별)	71 ▼2	37 ▼28	91

경기 침체와 불균형 해소, 시급한 과제로

2023년 현재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문제는 ‘투명하지 못한 정부 운영(100점)’과 ‘소득 양극화 심화(99점)’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소득 양극화(부익부 빈익빈) 문제는 현재와 미래에 국민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의 총합(195점)이 가장 크게 나타나, 지금 국민들이 겪는 힘겨운 삶이 미래에도 나아지지 않을 것이란 염려가 큰 상황입니다.

또한 사회 불균형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감이 작년에 비해 매우 높아진 양상을 보였습니다. 올해 100대 사회 이슈에 신규 진입한 ‘일·생활 불균형(일·가정 양립 불가능 및 긴 근로시간)’은 부정적 영향력(임팩트) 점수가 98점에 달했고, ‘도시 인구 집중 및 지방소멸(65점)’은 지난해 보다 임팩트가 31점 상승했습니다.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영역에 속하는 이슈들이 작년에 비해 임팩트가 20점 이상 상승한 것도 주목할 점입니다. ‘가계부채 증가(94점)’ 문제는 지난해 대비 현재 임팩트가 22점 뛰어올랐습니다. 저출생, 지방소멸 등 인구 구조의 불균형이 고용·인력난으로 이어지며, ‘구인 및 인력난(73점, ▲20점)’ 문제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장기화된 전쟁과 불경기로 인해 심각해진 ‘경기침체 지속 및 금융산업 경쟁력 부족(84점, ▲20점)’ 문제 해결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현재 임팩트가 더 큰 이슈들은 문제의 심각성이 높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여 자원을 투입하고 국민들의 어려움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10년 후 미래를 대비해야 하는 이슈

현재보다 10년 후 미래에 떠오를 가장 큰 이슈는 올해 높은 점수로 100대 사회 이슈에 재진입한 ‘노인 일자리 및 노후 대비’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국민이 느끼는 부정적 영향력은 88점이지만, 미래 임팩트가 100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고령화 심화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도 현재(83점)보다 미래(90점)에 미칠 부정적 영향력이 더 큰 모습입니다. 고령화로 인한 사회 구조 변화와 ‘일하는 노후’를 고민하는 국민이 많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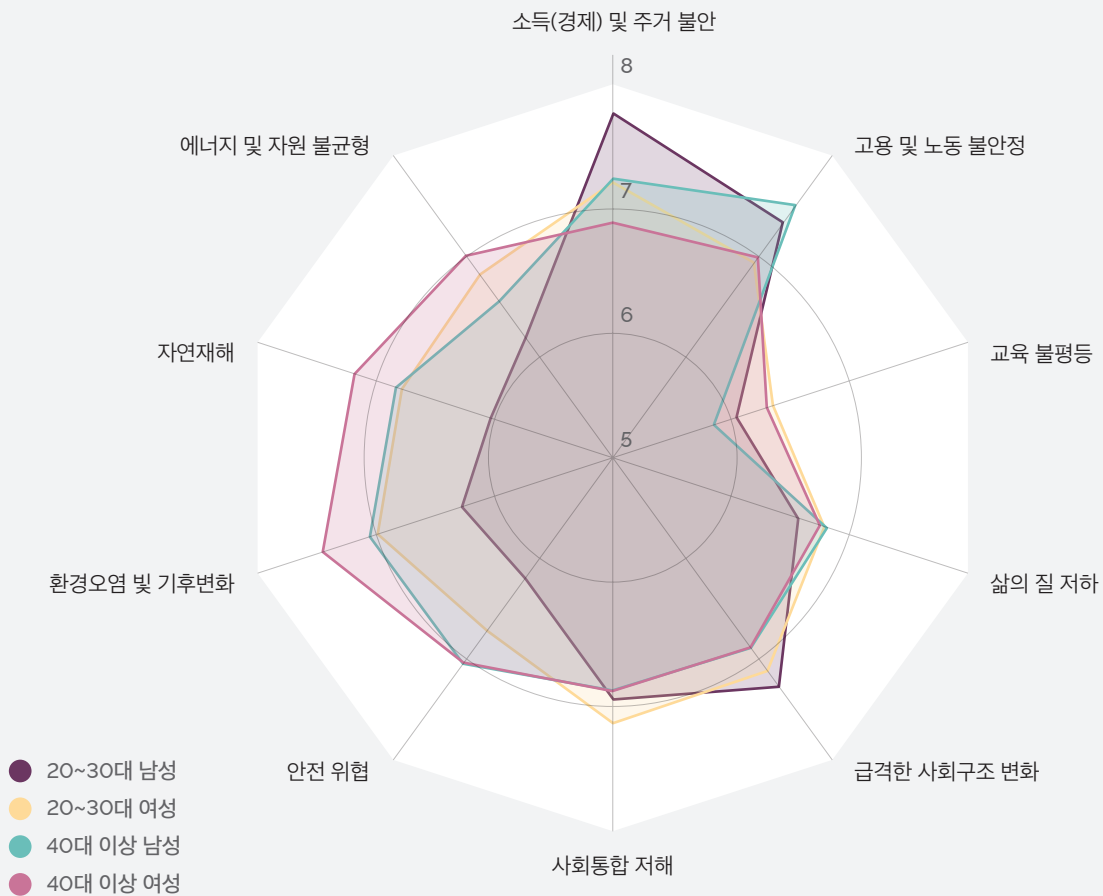
자연재해와 기후위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큰 모습입니다. ‘폭염·한파 증가(현재 90점, 미래 99점)’, ‘대체 에너지 개발 기술 부족(현재 86점, 미래 97점)’, ‘지구 온난화(현재 80점, 미래 98점)’ 등 기후변화 관련 이슈들의 미래 임팩트가 더 커지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태풍을 동반한 폭우가 잦아지고, 인명 사고로까지 이어지며 국민의 불안감이 더욱 커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처럼 미래에 부정적 영향력이 커지는 이슈들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모니터링과 대비가 중요합니다. 특히 현재보다 미래 임팩트가 더 큰 동시에 OECD 대비 심각성도 높게 나타난 ‘저출생 문제’, ‘대체 에너지 개발 기술 부족’, ‘노인 빈곤 심화 및 불안정한 노후생활’ 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전략 및 체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Impact Awareness Gap 사회문제 인식 격차

10대 사회문제 테마별 인식 격차

단위: 10대 사회문제별 부정적 영향력(점, 10점 만점)



‘2023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에서는 국민들의 연령대 및 성별에 따라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인식이 크게 달라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인식 격차가 두드러진 4개 그룹(20~30대 남성, 20~30대 여성, 40대 이상 남성, 40대 이상 여성)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인식 차이가 가장 큰 반면, ‘교육 불평등’ 문제를 바라보는 인식이 가장 비슷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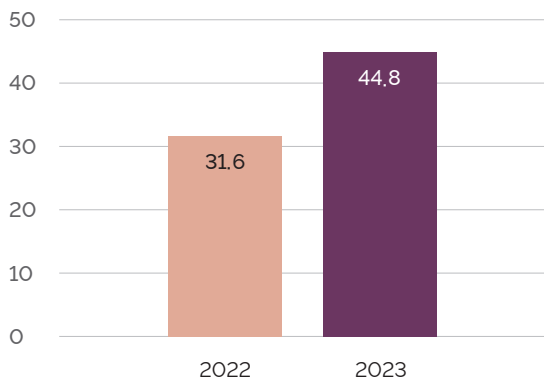
특히 20~30대 남성은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그룹과 크게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은 ‘소득(경제) 및 주거 불안(7.78점)’ 테마의 문제들로 인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자연재해’, ‘안전위협’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정적 영향력이 낮았습니다.

20~30대 남성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인 그룹은 40대 이상 여성으로, 이들은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7.46점)’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은 반면, ‘소득(경제) 및 주거 불안(6.89점)’에 대한 부정적 영향력을 가장 낮게 평가했습니다. 한편, 40대 이상 남성은 ‘고용 및 노동 불안정(6.95점)’을, 20~30대 여성은 ‘사회통합 저해(6.88점)’로 인한 어려움을 가장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격차에 주목하고, 연령·성별 등에 따른 보다 세밀한 정책 마련과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Sustainability Issues 국민이 바라는 지속가능경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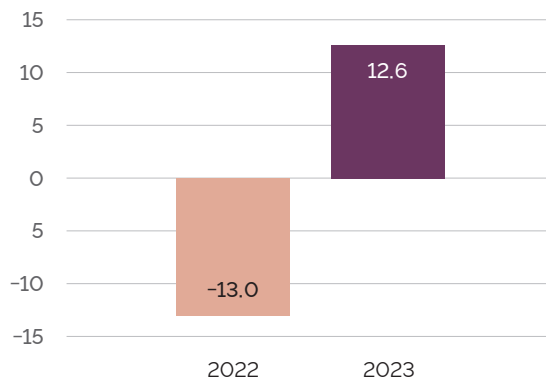
2022-2023 국민들의 ESG 이해도

단위: 'ESG를 알고 있는 정도'를 묻은 질문에
10점 만점 중 6점 이상 응답자 비율(%)



2022-2023 기업 ESG 평가

단위: '대기업 ESG 수준' 긍정적 평가 비율에서
부정적 평가 비율을 뺀 값(%)



ESG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국민들

지속가능경영의 주요 키워드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이해하는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ESG의 인식 수준을 '0~10점(전혀 모른다~매우 잘 안다)'으로 평가하게 한 질문에, 44.8%의 국민들이 '알고 있다(6점 이상)'고 응답했습니다.

대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도 긍정적으로 변화됐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13.0%p 더 높았는데, 올해에는 긍정적 평가가 12.6%p 더 많았습니다.¹ 국민들은 '임직원 훈련 및 교육(42.9%)'과 '공급망 관리 및 평가(42.1%)' 항목에 대해 비교적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반면, 지난해 부정적 평가 비율이 높았던 '온실가스 배출(-13.7%)'과 '개인 정보보호(-1.4%)'는 올해도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2023년 국민과 기업 모두 가장 주목하고 있는 문제는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부족' 이슈입니다. 지난해부터 건설 현장 사고 및 붕괴 등 심각한 산업재해가 연이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 주요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부정부패 및 뇌물수수'가 국민의 주목도(96.7점)와 기업의 집중도(76.7점)에서 모두 2위에 올라, 거버넌스 투명성에 대한 관심이 높은 모습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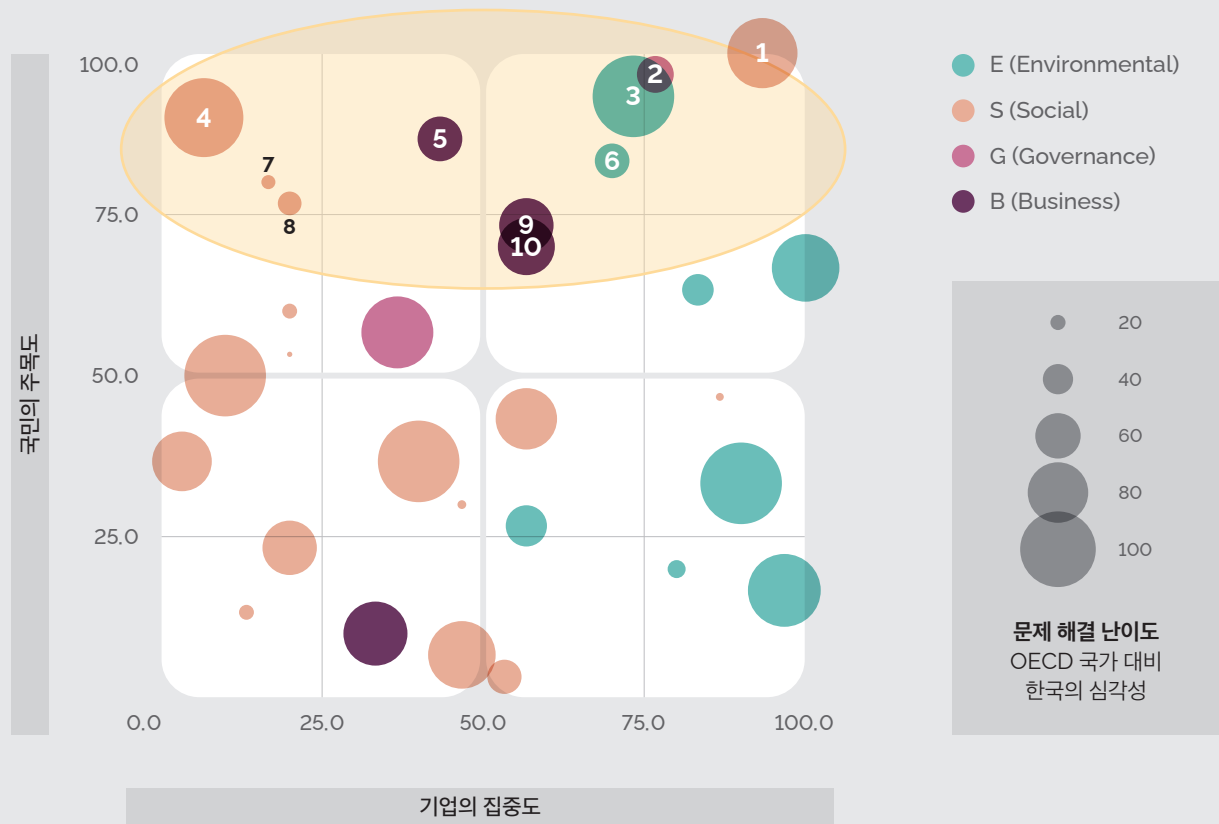
한편, 환경 관련 영역에서는 '대체 에너지 개발 기술 부족', '자연재해 증가' 문제가 국민과 기업 모두 주목하는 상위권 이슈에 올랐습니다. 특히 태풍, 폭우 등 자연재해가 국민의 삶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며 경각심이 커진 모습입니다. 대규모 재해는 기업의 자산과 비즈니스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업의 집중도 역시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국민이 주목하지만 기업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영역에는 주로 사회 영역의 이슈들이 포함됐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기업의 역할에 대해 국민의 기대감은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기업의 집중도는 최하위권으로 떨어졌습니다. 또한, 국민이 우려하는 혼인율·출생율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양육이 어려운 근로환경이 거론되고 있지만, 기업 차원의 관심과 개선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¹ 설문을 위한 평가 항목은 GRI·SASB·MSCI·DJSI 등 주요 글로벌 지표를 기반으로 취합하여 '지속가능경영 10대 카테고리'로 구성하였습니다.

Sustainability Issue Gap Matrix

단위: 점



No	이슈	국민 주목도	기업 집중도	난이도	국민-기업 Gap
1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부족(사업장 안전 관리, 근로자 부상 문제 등)	100.0	93.3	80	6.7
2	부정부패 및 뇌물수수	96.7	76.7	42	20.0
3	대체 에너지 개발 기술 부족(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 부족)	93.3	73.3	93	20.0
4	취약계층 사회 안전망 부족(취약계층 복지 부족)	90.0	6.7	90	83.3
5	경기침체 지속 및 금융산업 경쟁력 부족	86.7	43.3	51	43.3
6	(태풍, 지진, 쓰나미, 산사태 등)자연재해 증가	83.3	70.0	39.5	13.3
7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 부족	80.0	16.7	16	63.3
8	4차 산업혁명 인재 육성 교육 부족	76.7	20.0	27	56.7
9	고용률 하락	73.3	56.7	62	16.7
10	청년 일자리 부족	70.0	56.7	65	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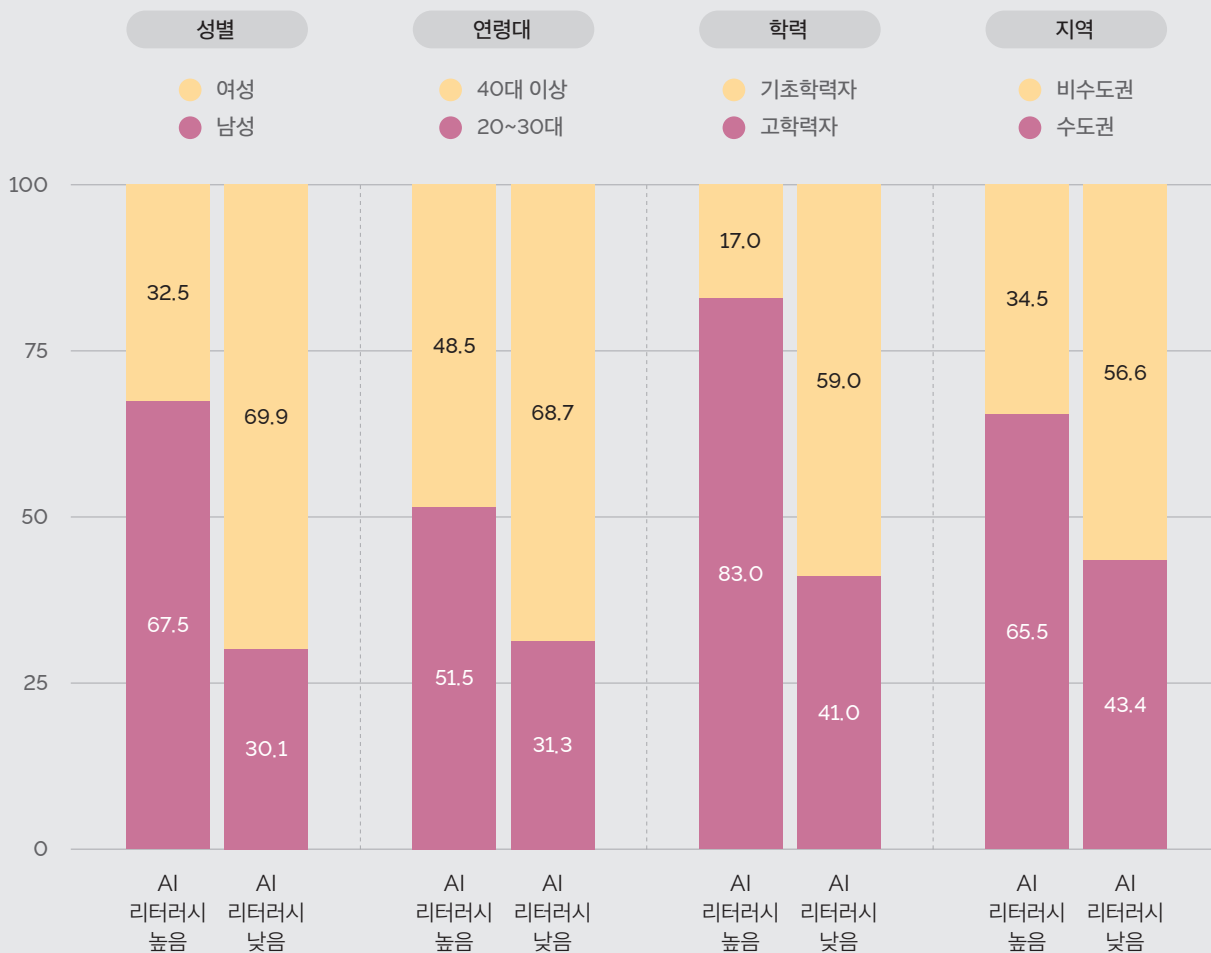
AI Impact 인공지능이 가져온 변화

‘2023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에서는 인공지능(AI)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함께, 이러한 기술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 가져올 변화를 분석했습니다.

국민들의 AI 리터러시 수준은 어떠할까요. AI 기술에 대한 ‘이해도’와 ‘활용 경험’을 평가 척도로 삼아 국민들의 AI 리터러시 수준을 살펴본 결과, 성별·연령·학력·지역에 따라 극명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AI 리터러시를 가진 응답자 중에는 남성(67.5%), 20~30대(51.5%), 고학력자(83.0%), 수도권 거주자(65.5%)가 많았으며, AI 리터러시가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자 중에는 여성(69.9%), 40대 이상(68.7%), 기초학력자(59.0%), 비수도권 거주자(56.6%)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성별, 연령대, 학력, 지역에 따른 AI 리터러시 수준 격차

단위: 특성별 비중(%)



*AI 리터러시 높음: AI 기술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잘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로 답하였으며,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AI 리터러시 낮음: AI 기술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잘 모른다', '전혀 모른다'로 답하였으며,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경험이 없는 응답자.

그렇다면 국민들은 AI가 어떤 사회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기대할까요. 설문 결과,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49.5%)’, ‘삶의 질 저하(48.8%)’, ‘교육 불평등(44.6%)’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답변이 2명 중 1명꼴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데 AI가 크게 활용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교육 불평등’을 1순위로 꼽은 비율이 19.2%로, 다른 이슈들과 비교해 평균 10%p 높게 나타나 눈길을 끌었습니다.

반면, 국민들은 AI 기술로 인한 일자리 위협을 가장 걱정하고 있습니다. AI 기술로 인해 ‘고용 및 노동 불안정’ 문제가 가장 악화될 것이라는 답변이 무려 75.3%로 나타났으며 국민 3명 중 1명 이상이 1순위(35.5%) 문제로 꼽았습니다.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54.7%)’와 ‘사회통합 저해(54.5%)’문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 문제는 AI로 인해 악화될 문제이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꼽혀(각 2위),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 및 활용에 따라 우리의 삶에 미칠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AI 기술로 악화될 / 개선될 사회 문제 Top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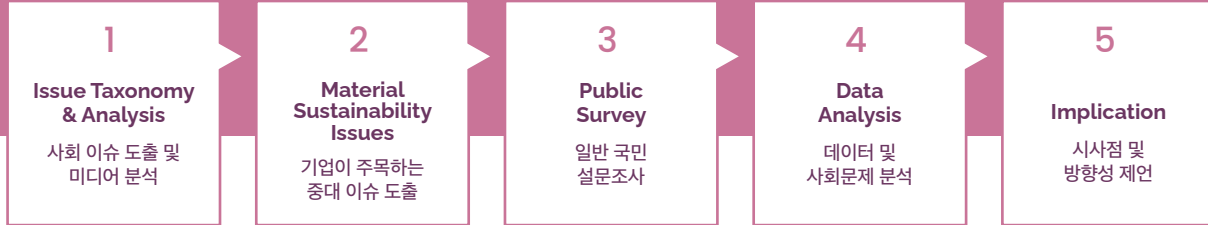
단위: 선택 비율(%)

● 1~5순위 ● 1순위



Process 연구 방법

‘2023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는 ①사회 이슈 도출 및 미디어 분석 ②기업이 주목하는 중대 이슈 도출 ③일반 국민 설문조사 ④데이터 및 사회문제 우선순위 분석 ⑤시사점 및 방향성 제언 등 단계별 분석을 통해 진행했습니다.



① Issue Taxonomy & Analysis 사회 이슈 도출 및 미디어 분석

본 연구는 ‘2023 한국이 주목하는 사회 이슈 100’을 선정하여 사회문제를 재정의하고, 국내의 현실과 인식 수준을 종합 분석하였습니다.

3대 목표	사회문제 10대 테마	2023 한국이 주목하는 사회 이슈 100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Economy)	소득(경제) 및 주거 불안	경기침체 지속 및 금융산업 경쟁력 부족, 소상공인/자영업자 소득 불안정 및 생존 문제, 집값 불안정(전셋값 폭등 등) 및 주거부담 증가, 대기업 불공정 거래(갑질 기업), 소득 양극화 심화(부익부 빈익빈), 가계부채 증가,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부담, 정부 재정 적자 확대(정부 재정 부실, 정부 부채), 취약계층 소득 불안(서민 금융 지원 부족), 취약계층 주거 부담(지원 부족)
	고용 및 노동 불안정	구인 및 인력난, 청년 일자리 부족, 정리해고·부당해고·임금체불 증가, 어려운 재취업, 고용률 하락, 어려운 창업(창업 혁신 부족), 대기업/중소기업 임금격차 및 중소기업 인력난, 직장 내 괴롭힘 및 감정노동 문제, *노인 일자리 및 노후 대비 문제, 비정규직 증가(비정규직 차별)
안전하고 행복한 삶 (Society)	교육 불평등	교육비 부담(비싼 등록금 문제 등), 4차 산업혁명 인재 육성 교육 부족, 진로 및 직업교육 부족, 공교육 붕괴 및 사교육 심화, 취약계층 및 지역 교육 격차 심화, 교육 수혜 격차 심화(조기유학 증가 등), 양질의 교육 부족, *고등교육의 질 저하, 학벌지상주의 및 학력/학벌 차별 관행, 국가 연구 인력 및 자본 부족
	삶의 질 저하	취약계층 사회 안전망 부족(취약계층 복지 부족), 노인 우울증 및 소외 증가, 정서불안 및 자살 증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교통 접근성 부족 및 교통 취약계층 문제, **희귀난치성 질환 지원 부족, 복지 수요에 비해 부족한 복지(복지 정책 및 제도 부족), 의료비 부담 증가(저소득층 의료 지원 부족), *일·생활 불균형(일·가정 양립 불가능, 긴 근로시간), 한부모·다문화 가족 지원 부족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	저출생 문제, 도시 인구 집중 및 지방소멸, 고령화 심화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 지역발전 불균형, 노인 빈곤 심화 및 불안정한 노후생활, 이혼율 증가 등 가족해체 증가, 양질의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서비스 부족, 학교 밖 청소년(가출청소년) 및 자립준비청년 보호 부족, 독신자 및 1인가구 증가,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 부족
	사회통합 저해	세대/연령간 갈등 및 격차 심화, 부정부패 및 뇌물수수,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 차별, 이념·지역·정치적 갈등 심화, 성별격차 및 성차별, 디지털 및 정보 격차 심화, 투명하지 못한 정부 운영(정부 신뢰 하락), 다문화 가정 등 외국인 편견 및 차별, 노사갈등 심화, 안전한 특권과 편법
	안전 위협	북한 미사일/북핵 문제 및 남북관계 갈등, 감염병 확산 및 대응 체계 부족, 아동학대,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증가(사이버범죄 및 온라인 성범죄 증가 등),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부족(사업장 안전 관리, 근로자 부상 문제 등), 학교폭력, 가정폭력 증가, 재난 사고 및 대응 부족, 먹거리 불안 및 식량 생산체계 부족, 성범죄(성폭력 사건 등) 증가
미래와 공존하는 환경 (Environment)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증가, 기후변화 정책 및 대응 부족, 지구 온난화, 플라스틱 등 일회용품 사용 및 생활 폐기물 배출, 생물다양성 감소 및 생태계 파괴, 해수면 상승, 화학물질·유해폐기물 배출 및 환경 호르몬 노출, *유실·유기동물 안전 부족, 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위험관리 체계 부족, 환경 및 기후변화 인식 부족
	자연재해	폭염·한파 증가, 가뭄·홍수 증가, 태풍 증가, 폭설과 폭우 증가, 지진과 쓰나미 증가, 화산폭발 위험 증가, (가뭄·홍수 등으로 인한)토지 황폐화, 대형산불 증가, 산사태 증가, (농어업)재해 지원 및 대응 부족
	에너지 및 자원 불균형	지속가능한 자원 관리 부족, 에너지 접근성 및 서비스 제공 불균형, 대체 에너지 개발 기술 부족(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 부족), 지나친 원자력 발전 의존 및 방사능 오염 위험, 석유 및 가스 등 지하자원 감소, 불법어업 및 남획으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 에너지 비효율 및 절약 부족, 물 부족(식수공급 불균형 등), *전력수급 불안정, 물순환 개선 및 재이용 부족

*미디어 데이터 분석을 통해 ‘2023년 한국이 주목하는 사회 이슈 100’에 신규 편입 혹은 재편입된 이슈

**사회문제 관련 문헌조사 및 미디어 데이터 분석을 통해 139개의 관찰 이슈 Pool에 신규 등록된 이슈

‘2023 한국이 주목하는 사회 이슈 100’은 UN SDGs, K-SDGs & 국가지속가능발전계획, WEF Global Risk, GRI, 정부 국정과제, 한국 사회지표 등 국내외 사회문제 관련 기준과 자료들을 통합 분석하여 확정된 139개 이슈 Pool 중, 각 이슈별 검색식을 기준으로 분석한 미디어 노출 빈도 순위를 통해 최종 100개 이슈로 도출됩니다.

‘2023 대한민국 사회문제’는 CSES와 연세대 공공문제연구소 정부와기업연구센터(센터장 장용석 교수)가 2017년 국내외 사회문제 지표 및 기준을 분석하여 개발한 ‘新 사회문제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이뤄졌으며, 트리플라잇의 미디어 분석 및 사회문제 우선순위 평가 방법론을 바탕으로 100개 이슈와 분류체계의 매칭을 통해 최종 도출하였습니다.

‘2023 대한민국 사회문제’는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경제(Economy),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Society), 미래와 공존하는 환경(Environment) 등 3대 목표를 중심으로 사회문제 10대 테마, 100개 이슈로 구성됩니다.

변경 전(2022년 이전)		변경 후(2023년 이후)	변경 사유
약물 오남용	➡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이슈 심각성 증대로 인한 범위 확장 및 키워드 변경
도시 인구 증가 및 농·어촌 이탈 현상 확대 (도농 불균형)	➡	도시 인구 집중 및 지방소멸	대중 인식 및 미디어 활용도가 높은 키워드로 용어 변경
저출산 문제	➡	저출생 문제	법령, 조례 및 정책 자료 내 용어 변화를 참고하여 변경
학교 밖 청소년(가출 청소년) 및 시설퇴소 아동 보호 부족	➡	학교 밖 청소년(가출 청소년) 및 자립준비청년 보호 부족	법령, 조례 및 정책 자료 내 용어 변화를 참고하여 변경

② Material Sustainability Issues 기업이 주목하는 중대 이슈 도출

기업이 주목하는 중대 이슈는 무엇일까요. 국내 산업군별 주요 30대 기업의 최근 2개년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바탕으로 지속가능성 중대 이슈 Pool을 취합하고, 이를 ‘2023 대한민국 사회 이슈 100’와 연계하여 기업이 주목하는 사회 이슈 집중도를 도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일반 국민 1,000명에게 ‘국내 대기업이 주목해야 하는 이슈’와 중대 이슈별 기업 평가를 묻는 설문을 진행하였고, 기업이 주목하는 사회문제와 국민이 바라는 사회문제간 미스매치를 분석하였습니다.

③ Public Survey 일반 국민 설문조사

현재와 10년 후 미래의 삶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사회문제는 무엇이며, 사회문제 해결 주체별 역할과 책임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어떠할까요. 국민 1,000명에게 질문하고 이를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인공지능(AI) 기술이 사회 문제에 미칠 영향력을 파악하고 대비하고자,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함께 물었습니다.

조사 대상 전국 17개 시도 지역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1000명

조사 방식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모바일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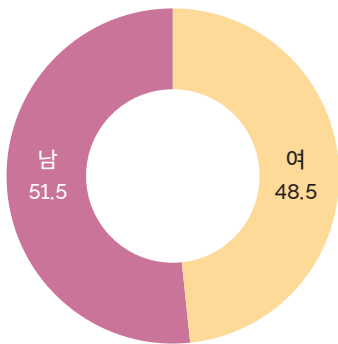
*설문지 및 응답결과 데이터는 SV hub 웹사이트(svhub.co.kr)에서 확인 가능

표본 오차 $\pm 3.10\%p$ (95% 신뢰수준, 표집 상의 비율 할당 여부에 따라
단순임의추출 또는 층화임의추출 방식을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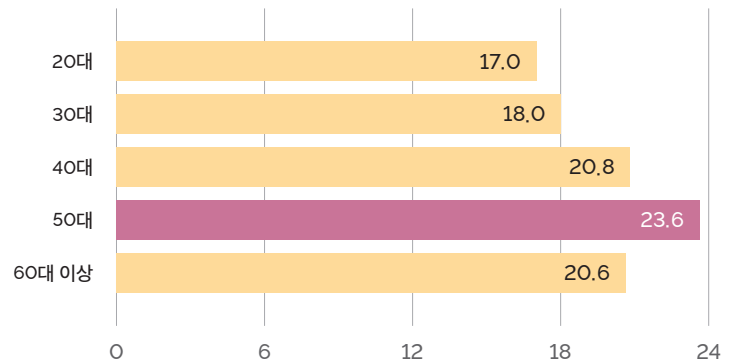
조사 기간 2023년 5월 4일 ~ 5월 11일

‘2023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응답자 인구통계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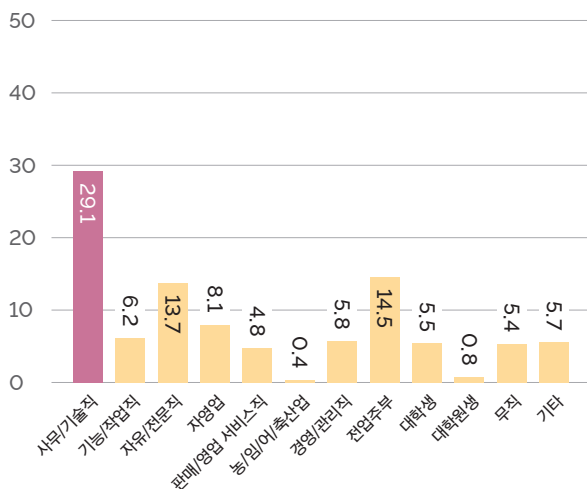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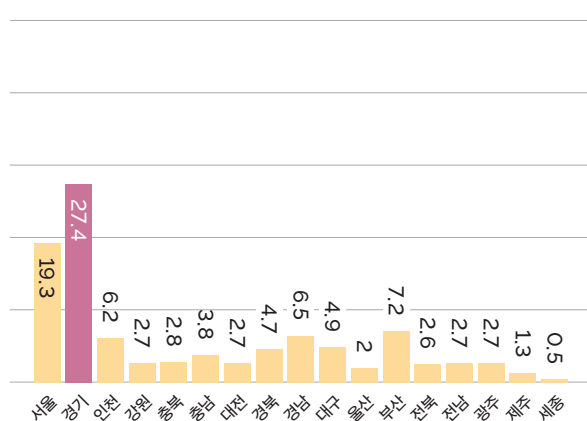
직업

단위: 특성별 비중(%)



지역

단위: 특성별 비중(%)



4 Data Analysis 데이터 및 사회문제 분석

‘2023 대한민국 사회문제’로 선정된 100개 이슈별로 OECD 38개국 대비 한국의 순위를 살펴봤습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WEF(세계경제포럼), World Bank(세계은행), TI(국제투명성기구) 등 OECD 국가별 순위를 제공하는 국제기구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각 이슈별 한국의 수준을 분석했습니다.

일반 국민 설문조사 결과와 OECD 38개국 대비 한국의 수준을 매칭하여 비교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보다 통합적인 데이터 분석을 위해 도출한 ‘사회문제 우선순위 프레임워크(Impact Issues Priority Matrix)’를 기반으로, 현재와 미래의 위험과 기회요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주체별 액션 방향 등을 연계하여 짚어봤습니다.

인공지능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미국 국립표준연구소(NIST) AI 위험 프레임워크, OECD AI 시스템 프레임워크,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기술영향평가 등을 활용하여 인공지능의 영향 요인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2023 대한민국 사회문제’와 매칭하였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머신러닝 알고리즘과 자연어처리 기법을 활용해 분석했습니다.

5 Implication 시사점 및 방향성 제언

미디어 분석, 기업의 지속가능성 중대 이슈 도출, 일반 국민 설문조사, OECD 38개국 대비 한국 순위 등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 나아갈 방향과 종합 시사점을 도출했습니다.

Methodology 연구 프레임워크

‘2023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연구는 국민이 인식하는 사회문제와 우리나라의 문제 해결 수준을 분석하는 **사회문제 우선순위 프레임워크(Impact Issues Priority Matrix)**를 기반으로, 현재와 미래 주목해야 할 사회문제를 분석했습니다. 모두가 바라는 현재와 미래를 대비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주체별 액션과 방향성을 도출하기 위함입니다.

국민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문제 해결 난이도가 높을수록 모든 주체의 협력과 자원 및 역량이 집중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국민의 삶을 힘겹게 만드는 수준이 낮고, 문제 해결 난이도가 낮을수록 다양한 실험과 장기적인 모니터링 및 연구가 필요합니다.

사회문제 우선순위 프레임워크: Impact Issues Priority Matrix



Y축

임팩트 (국민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

임팩트는 국민의 삶을 힘겹게 만드는 현재와 미래 사회문제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100점 만점으로 도출한 값이다.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현재 당신의 삶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사회문제’와 ‘10년 후 당신의 삶을 가장 어렵게 만들 거라 예상되는 사회문제’를 선택하도록 했다. 설문조사 응답자가 선택하는 사회문제는 ‘2023 대한민국 사회문제’의 3대 목표, 10대 사회문제 테마, 100대 이슈를 기반으로 제시됐다. 국민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클수록, Y축의 값이 커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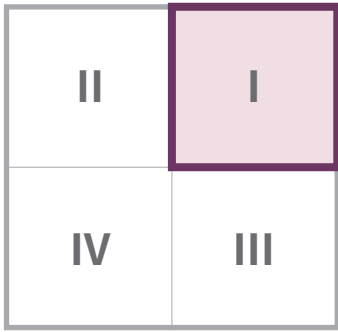
■ p.31 : Public Impact Issues 국민이 주목하는 현재와 미래 이슈

X축

문제 해결 난이도 (OECD 국가 대비 한국의 심각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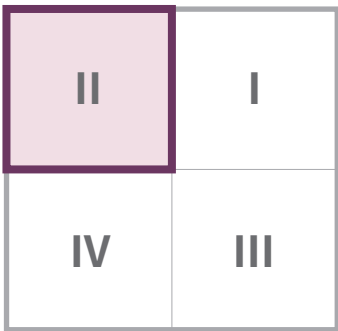
문제 해결 난이도는 OECD 주요국 대비 한국의 수준을 도출한 값이다. ‘2023 대한민국 사회문제’에 선정된 100개 이슈별로 OECD, WEF, World Bank 등 국제기구의 통계 데이터를 분석하여 OECD 38개국 중 한국의 순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도출한 점수이다. OECD 주요국 대비 한국의 수준이 낮을수록 문제 해결 역량이 부족하므로, 문제 해결 난이도는 높아지며 X축 값이 커진다.

■ p.39 : Level of Problem difficulty 사회문제 해결 난이도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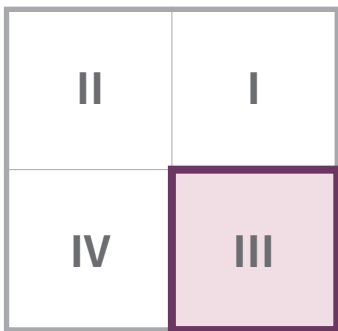
1 Do First

- 문제 해결 난이도와 영향력이 높은 영역으로, 해당 영역에 속한 사회문제들은 해결이 시급하고 중요한 것으로 인식됩니다.
-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의 협력과 자원·역량 집중, 대비가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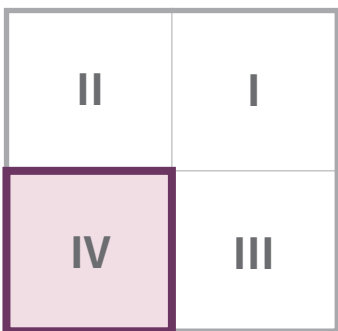
2 Do Plan

- 문제 영향력이 높고 난이도는 낮은 영역으로, 해당 영역에 속한 사회문제들은 비교적 해결이 쉬우면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자원의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역량·자원 계획을 통해 자원 낭비를 경계하고, 효율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3 Do Monitor

- 문제 해결 난이도가 높고 영향력이 낮은 영역으로, 해결이 어렵고 관심도 적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와 노력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 지속적인 관심 및 모니터링과 혁신을 통한 문제 해결, 전문가를 통한 장기적인 연구 및 대비가 필요합니다.



4 Do Care

- 문제 해결 난이도와 영향력이 낮은 영역으로, 관심이 적고 해결이 비교적 쉽기 때문에 자원의 적절하고 장기적인 배분이 중요합니다.
- 시민사회 및 개개인의 다양한 실험과 정부 및 기업의 지원, 장기적인 모니터링과 대비가 필요합니다.

CHAPTER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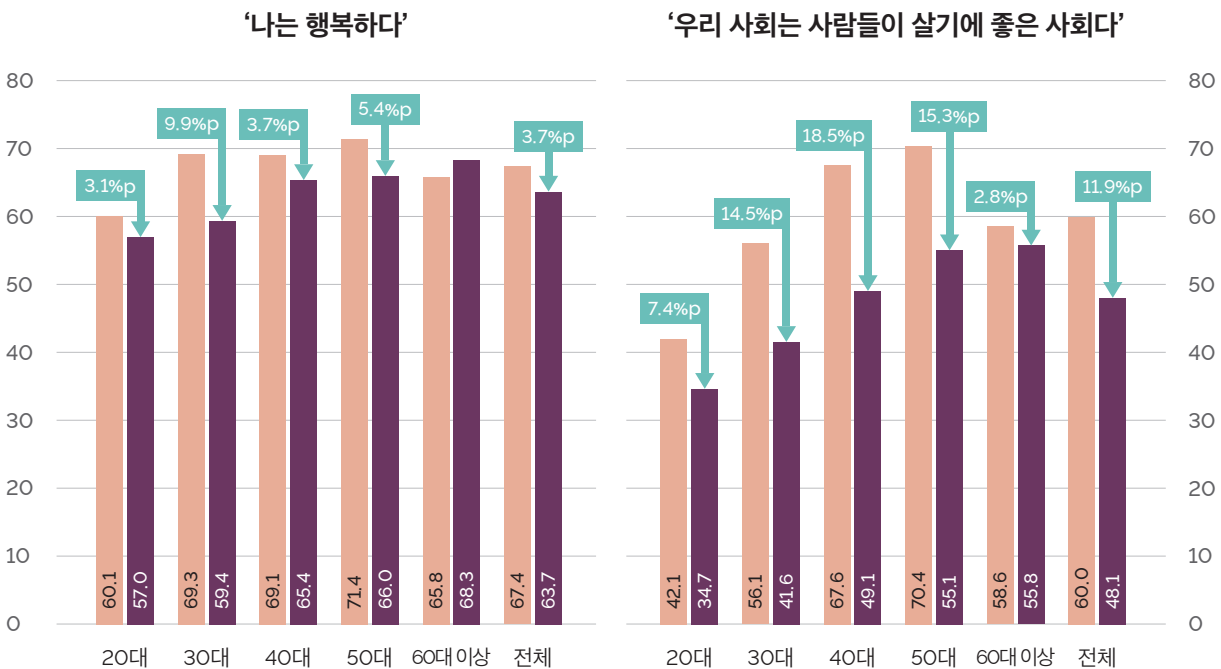
Impact Issues Analysis

2023 사회문제 분석

Social Awareness 사회인식 조사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연구 조사는 매년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삶에서 느끼는 행복감을 묻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꾸준히 행복감이 증가한 60대 이상을 제외하고 모든 연령대에서 지난해보다 행복감이 낮아졌습니다. 20대가 행복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020년(70.1%)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올해 57%로 전 연령 대비 가장 낮았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행복감이 가장 많이 떨어진 연령대는 30대였습니다(▼9.9%p).

우리 사회를 ‘살기 좋다’고 평가한 비율은 48.1%로, 지난해(평균 60.0%)보다 11.9%p 더 떨어진 모습입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가 나타났으며, 특히 20대는 34.7%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감소폭이 가장 큰 연령대는 40대(▼18.5%p)이며, 50대(▼15.3%p), 30대(▼14.5%p) 순입니다.



단위: 긍정 응답 비율

*11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0점 ~ 매우 그렇다 10점) 중 6점 이상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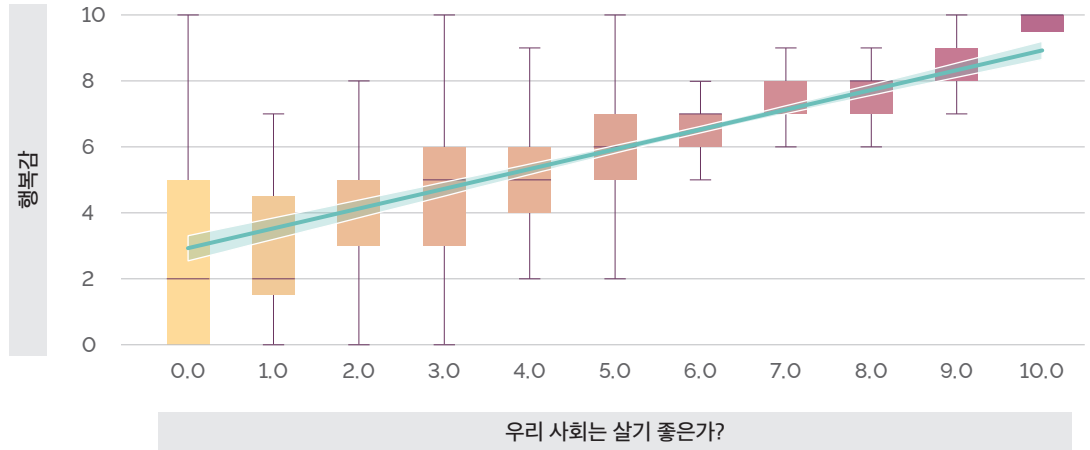
● 2022 ● 2023

‘살기 좋은 사회’ 속에서 느끼는 ‘행복감’

한편, ‘살기 좋은 사회’에 대한 평가는 행복감과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사회를 살기 좋다고 평가한 사람일수록 행복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다른 연도에 비해 올해 연관성이 더 커졌습니다.¹ 우리 사회 전반의 모습이 개개인의 삶의 질과 행복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¹ 회귀분석 결과, ‘나는 행복하다’의 응답값에 대한 ‘우리 사회는 살기 좋은 사회인가?’의 응답값이 갖는 회귀계수는 0.33($R^2=0.37$, 99.5% 유의수준)으로 나타났다.

단위: 11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0점 ~ 매우 그렇다 10점)로 평가한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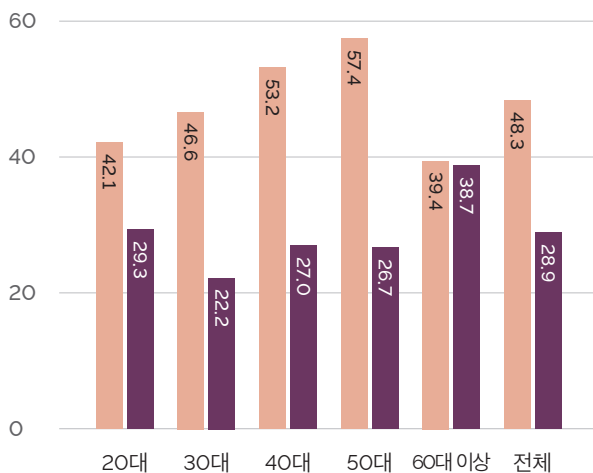


국가 및 가정 경제 상황은 더 좋아졌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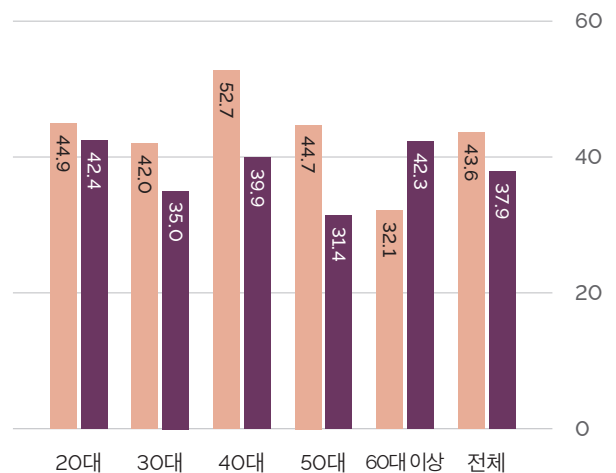
국가의 경제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 인식 비율은 크게 감소했습니다. '5년 전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은 좋아졌다'에 동의한 비율이 올해 28.9%로 지난해(48.3%)보다 19.4%p 낮습니다. 50대에서 가장 큰 폭으로 감소(30.7%p)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연령대에 비해 30대(22.2%)가 가장 부정적, 60대 이상(38.7%)이 가장 긍정적이었습니다.

가정 경제 상황 또한 전반적으로 어려워졌다고 응답했습니다. '5년 전에 비해 나의 가정 경제 상황은 좋아졌다'에 동의한 비율이 올해 37.9%로 작년(43.6%)보다 5.7%p 감소했고, 특히 50대(31.4%)가 지난해보다 13.3%p 낮아져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긍정적 인식이 증가한 연령대는 60대 이상(▲10.2%p)으로 42.3%가 가정 경제가 좋아졌다고 응답했습니다.

5년 전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은 좋아졌다



5년 전에 비해 나의 가정 경제 상황은 좋아졌다



단위 : 긍정 응답 비율

*11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0점 ~ 매우 그렇다 10점) 중 6점 이상 응답

● 2022 ●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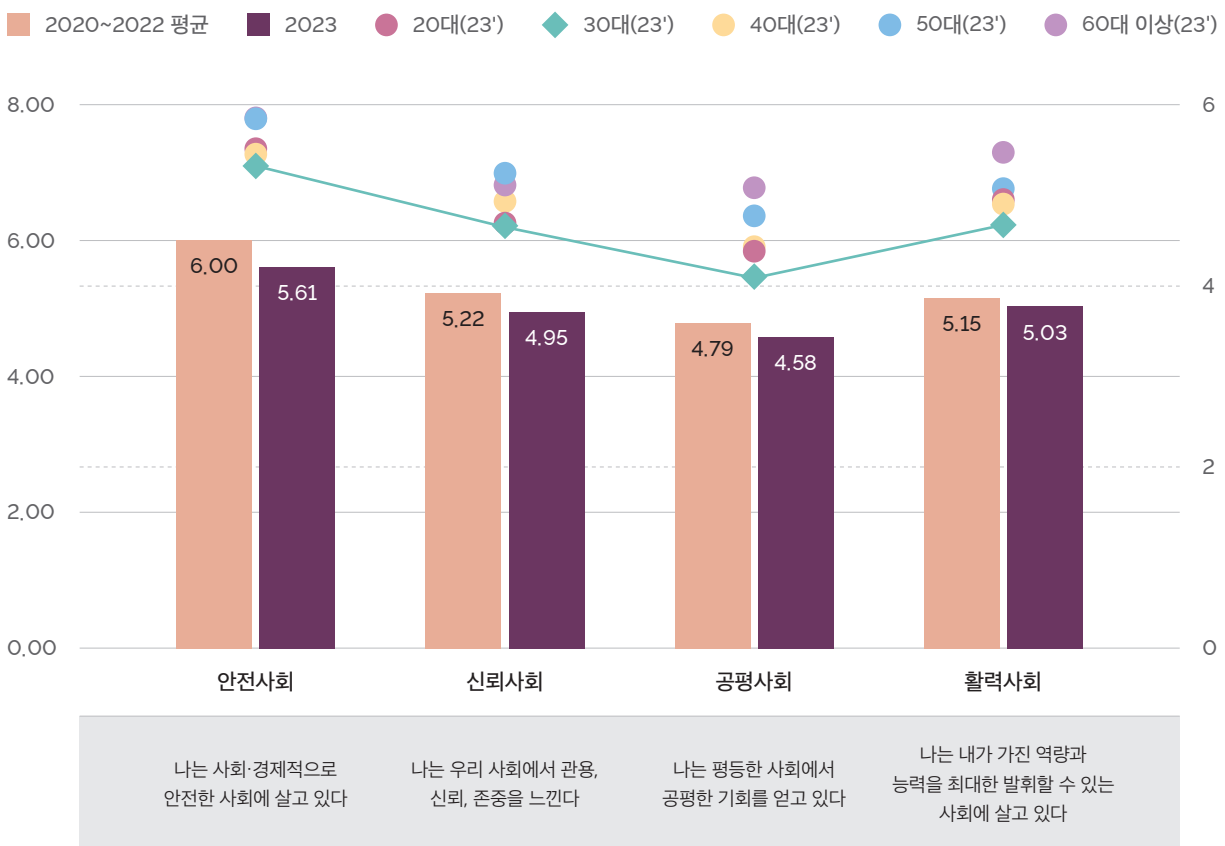
한국인 1,000명이 바라본 우리 사회의 모습은?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는 ‘삶의 질’과 관련된 연구를 종합해 안전성(Security)과 응집성(Cohesion), 포용성(Inclusion), 역능성(Empowerment) 등 4개의 지표를 ‘살기 좋은 사회’의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² 분석 결과, 4가지 지표 모두에 대한 인식이 코로나로 혼란스러웠던 지난 3년(2020~2022)에 비해 올해 더 부정적으로 변화였습니다. 또한, 모든 연령대를 통틀어 각 지표에 대한 평가가 보통 수준(6점/10점 만점)을 넘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공평사회(4.58점)’에 대한 평가는 지난 4년간 모든 지표를 통틀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습다.

지난해에는 20대가 ‘활력사회’를 제외한 모든 지표에 대해 가장 낮은 점수를 부여했는데, 올해는 전 지표에 대해 30대가 부여한 점수가 가장 낮았습니다. 작년에 비해 모든 연령대의 점수가 감소한 반면, 60대 이상 국민들의 ‘공평사회(▲0.14점)’, ‘활력사회(▲0.14점)’에 대한 평가만 유일하게 증가하였습니다. 세대별로 우리 사회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다른 만큼,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우리 사회의 ‘안전’, ‘신뢰’, ‘공평’, ‘활력’에 대한 평가

단위: 각 사회 지표에 대한 11점 척도(0~10점) 평가 평균값(점), 연도별(왼쪽 축), 연령대별(오른쪽 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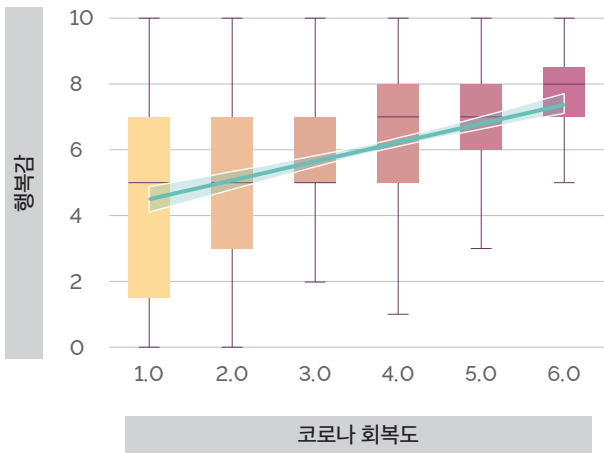
² Laurent J. G. van der Maesen and Alan C. Wilker(2005), Yang&Holzer(2006), Peters(2002), 사회의 질 측정을 위한 사회통합지표 개발 연구 보건사회연구원, <한국 사회의 질>,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이재열 외(2015)

코로나 엔데믹, 회복을 위한 과제

지난 5월,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인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를 선언했습니다. 국내에서도 3년 4개월 만의 엔데믹(endemic·일상적 유행)을 맞아 일상 회복이 빨라지는 모습입니다. 지난 2020년부터 코로나19와 사회문제를 진단해온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는 올해 코로나 엔데믹 이후 회복을 위한 우리의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국민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일상으로 회복되는 것이 빠른 편인가'를 묻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62%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일상 회복도가 높게 나타난 국민일수록 행복감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 대응 수준이 국민의 행복감에 영향을 준 반면, 올해를 기점으로 일상으로의 회복 수준이 행복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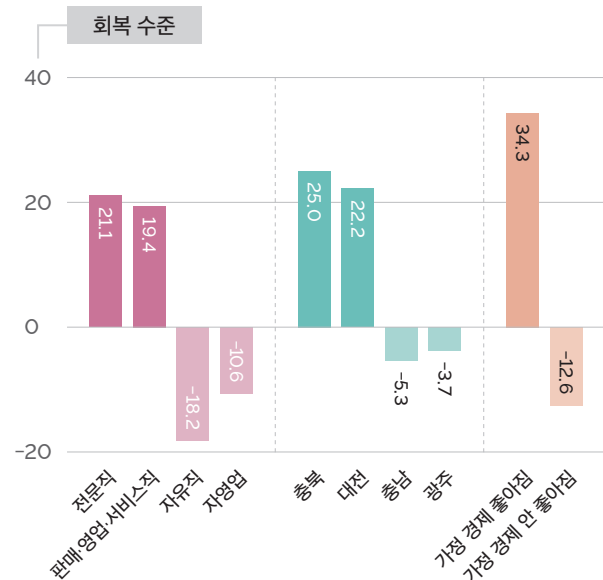
코로나 회복도와 행복감



X축(코로나 회복도)은 '나는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회복하는 것이 빠른 편이다'에 대한 응답을 1점('전혀 그렇지 않다')~6점('매우 그렇다')로 받은 결과이며, Y축(행복감)은 '나는 행복하다'에 대한 응답을 0점('전혀 그렇지 않다')~10점('매우 그렇다')로 받은 결과이다. 회복도는 행복감에 대해 0.19의 회귀계수 ($R^2=0.37$)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 지역, 경제 상황별 일상 회복 격차

단위: 개인의 일상 회복 속도에 대한 6점 척도(1~6점) 응답 중, '5점 이상'과 '2점 이하'의 비율 차이(%)



일상으로 회복하는 속도에도 격차가 나타났습니다. 전문직(21.1%), 판매/영업/서비스직(19.4%)의 회복 수준은 자유직(-18.2%), 자영업(-10.6%)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충북(25.0%)과 대전(22.2%)이 높은 회복 수준을 나타낸 반면, 충남(-5.3%), 광주(-3.7%)의 경우 회복 수준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회복 수준은 특히 가정 경제의 상황과 깊은 연관이 있었습니다. 가정 경제의 상황에 따라 회복 수준은 4배 가까이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종식이 국민의 행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모두가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사회가 함께해야 합니다. 회복으로부터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살피며,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맞춤형 전략이 필요합니다.

Issues & Impact: Looking back and forward 현재와 미래, 주목할 이슈

국민들은 지난해 보다 어떤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고 느낄까요. 2022년과 비교했을 때 국민이 체감하는 부정적 영향력이 커진 Top30 이슈를 살펴봤습니다.

경기 침체, 신뢰를 잃은 정부

지난해 6위를 기록한 '투명하지 못한 정부 운영(정부 신뢰 하락)' 이슈가 올해 5계단 상승하여 1순위(100점)로 꼽혔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난해보다 부정적 영향력이 20점 이상 높아진 '가계부채 증가(7위, ▲22점)', '경기 침체 지속 및 금융산업 경쟁력 부족(17위, ▲20점)', '구인 및 인력난(28위, ▲20점)' 이슈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근로환경의 불균형 심화

일과 생활의 불균형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로감이 커진 모습입니다. 올해 100대 사회 이슈에 재진입한 '일·생활 불균형(일·가정 양립 불가능, 긴 근로시간)'은 98점으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대기업/중소기업 임금격차 및 중소기업 인력난(6위, ▲4점)' 역시 높은 순위를 유지하며, 노동 시장의 불균형 문제 해소가 중요해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초저출생 인구 문제 심화

인구 감소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저출생(低出生) 문제(12위, ▲17점)'와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 시스템 부족(10위, ▲14점)'이 큰 폭으로 상승하며 10위권 내로 진입했습니다. 작년 13위였던 '노인 빈곤 심화 및 불안정한 노후생활(24위, ▼11점)' 이슈는 부정적 영향이 감소했으나, '노인 일자리 및 노후대비(13위)' 이슈가 올해 높은 점수(88점)으로 100대 사회 이슈에 재진입하였습니다. 저출생 및 고령화와 관련된 사회 시스템의 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될 전망입니다.

기후위기 해결을 바라는 국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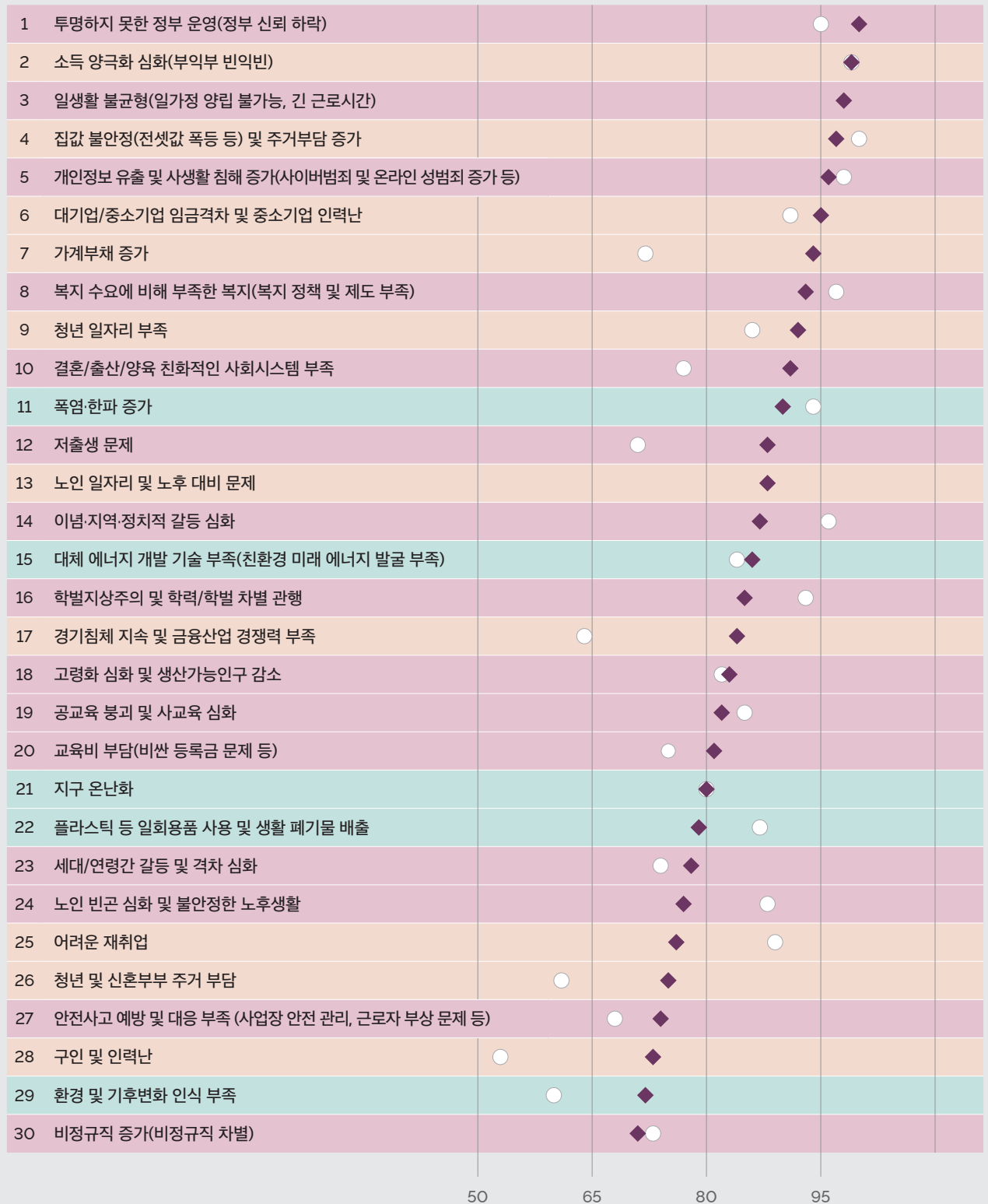
작년 7위를 기록하며 높은 영향력을 나타낸 '폭염·한파 증가'는 4계단 하락한 1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작년 20위권에 진입했던 '대형산불 증가', '미세먼지 증가' 이슈가 30위권 밖으로 벗어났습니다. 국민들은 기후 변화와 관련된 현상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 및 기후변화 인식 부족(29위, ▲12점)', '대체 에너지 개발 기술 부족(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 부족, 15위, ▲2점)'에 더 주목하는 변화를 보였습니다.

2022-2023 국민에게 미친 부정적 영향력*

단위: 임팩트, 현재 국민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점)

○ 2022 ◆ 2023

*일·생활 불균형(일·가정 양립 불가능, 긴 근로시간, 3위), 노인 일자리 및 노후 대비 문제(13위)는 미디어 데이터 분석을 통해 '2023년 대한민국 사회 이슈 100'에 신규 편입 혹은 재편입된 이슈로 전년도 비교값이 없음.



●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경제(Economy) ●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Society) ● 미래와 공존하는 환경(Environ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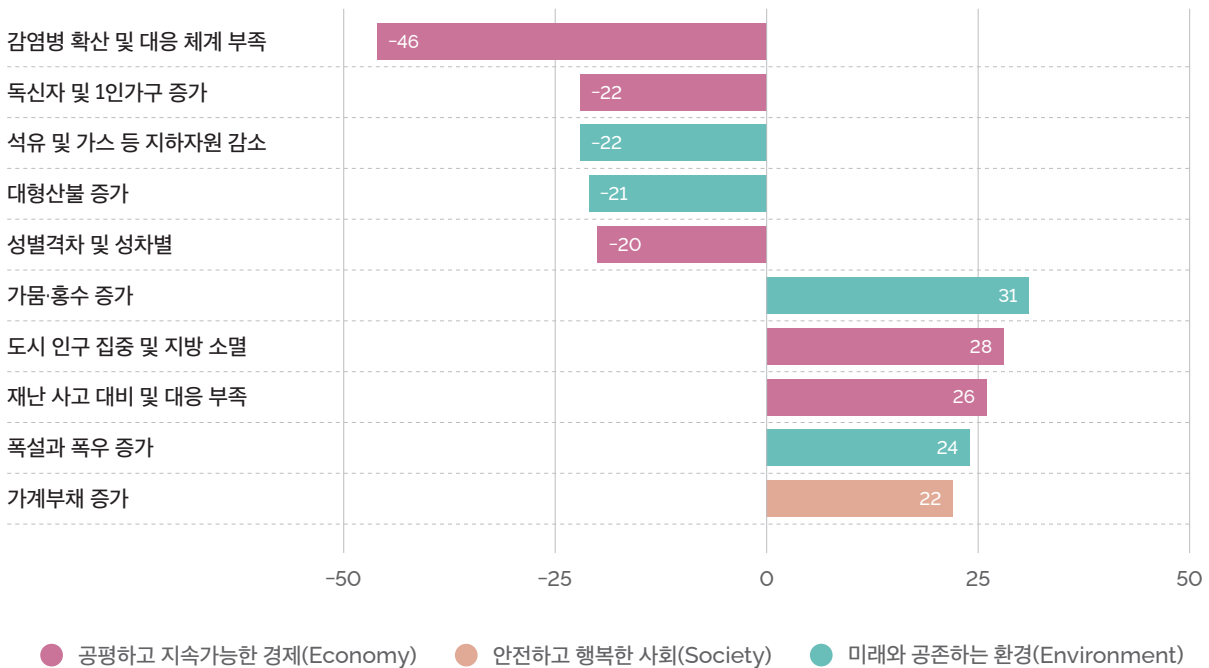
2022-2023 사회문제 심각도 변화

작년과 대비하여 부정적 영향력이 가장 많이 감소한 이슈는 ‘감염병 확산 및 대응체계 부족(▼46점)’입니다. 2020년부터 시작한 코로나 사태가 점점 완화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감소한 모습입니다. ‘독신자 및 1인가구 증가(▼22점)’, ‘석유 및 가스 등 지하자원 감소(▼22점)’가 뒤를 이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재난재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형산불 증가(▼21점)’의 임팩트가 큰 폭으로 낮아진 반면, ‘가뭄·홍수 증가(▲31점)’에 대한 우려가 대폭 커진 모습입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부족(사업장 안전 관리, 근로자 부상 문제 등, ▲26점)’에 대한 부정적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각종 재해와 재난 사고가 이어지면서 국민들은 ‘재난 사고 및 대응 부족(▲22점)’의 중요성도 높게 평가했습니다.

2022-2023 임팩트* 변화 Top 5

단위: 임팩트 변화, 2022년 임팩트에서 2023년 임팩트를 뺀 값.



현재 더 주목해야 할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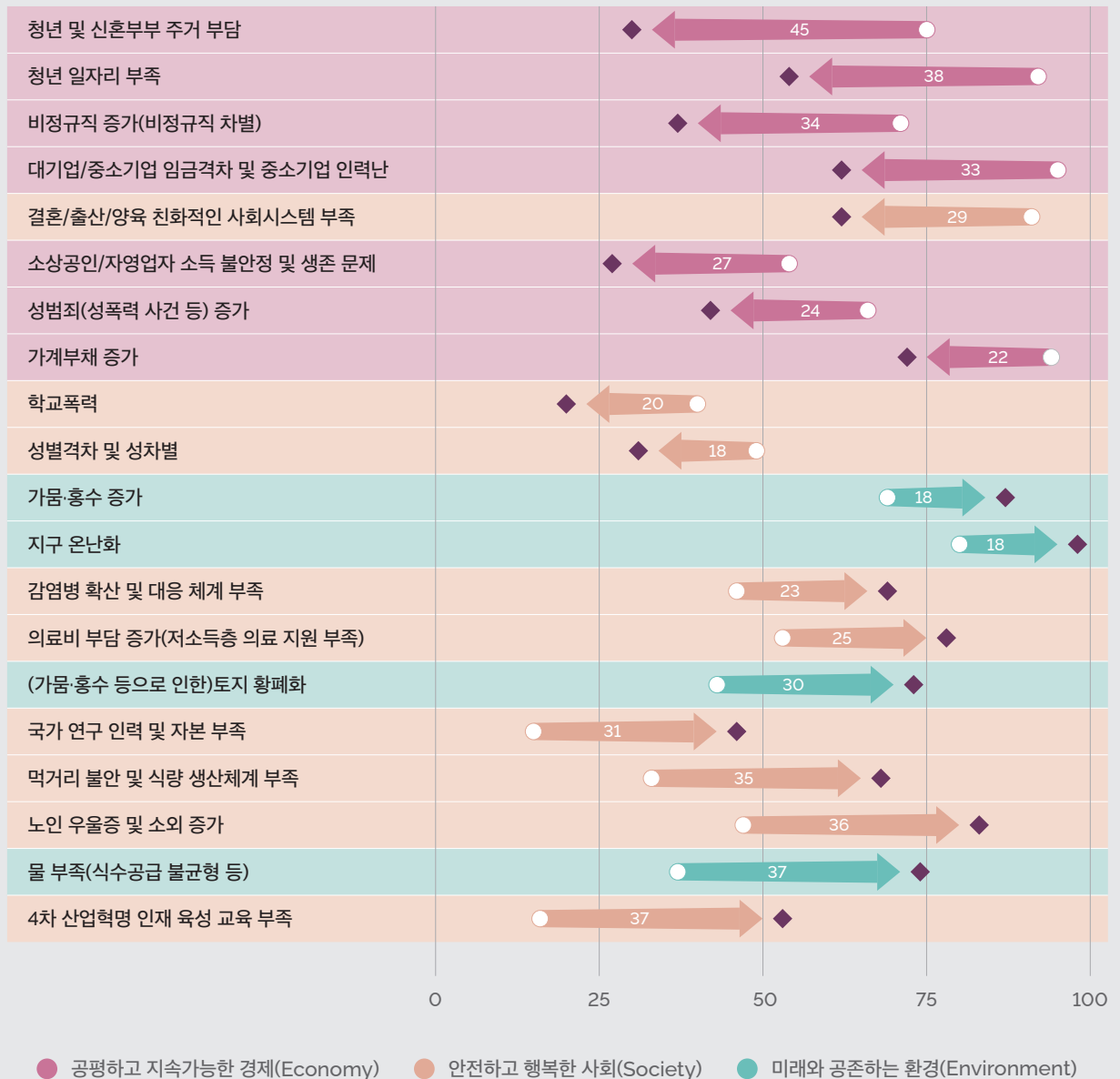
국민들은 현재 드러나는 청년 문제의 심각성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부담(↔45점)’, ‘청년 일자리 부족(↔38점)’,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 부족(↔29점)’ 문제는 미래보다 현재 영향력이 높은 이슈 Top 5내에 포함됐습니다. 특히 20~30대 청년 여성들이 높은 비율로 꼽았던 ‘성범죄(성폭력 사건 등) 증가(↔24점)’, ‘성별격차 및 성차별(↔18점)’ 이슈 역시 현재 더 주목해야 하는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고용과 소득 문제도 미래보다 현재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비정규직 증가(비정규직 차별, ↔34점)’, ‘대기업/중소기업 임금격차 및 중소기업 인력난(↔33점)’, ‘소상공인/자영업자 소득 불안정 및 생존 문제(↔27점)’, ‘가계부채 증가(↔22점)’이슈들은 불경기로 인한 소득 격차 심화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은 상황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vs 미래 더 중요한 이슈

단위: 임팩트, 현재 국민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점)

○ 임팩트(현재) ◆ 임팩트(미래)



미래를 대비해야 할 이슈

미래의 자연자원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 부족(식수공급 불균형 등, ↔37점)’, ‘먹거리 불안 및 식량 생산체계 부족(↔35점)’은 현재보다 미래에 미칠 부정적 영향력이 가장 커지는 이슈로 꼽혔습니다. 인적 자원에 대한 국민의 걱정도 커졌습니다. ‘4차 산업혁명 인재 육성 교육 부족(↔37점)’, ‘국가 연구 인력 및 자본 부족(↔31점)’은 향후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비가 필요한 이슈로 인식되는 모습입니다.

국민들은 ‘감염병 확산 및 대응 체계 부족(↔23점)’, ‘가뭄·홍수 증가(↔18점)’와 같이 최근 안전을 위협했던 이슈들의 미래 영향력을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노인 우울증 및 소외 증가(↔36점)’와 ‘의료비 부담 증가(저소득층 의료 지원 부족, ↔25점)’ 이슈는 작년에 이어 미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나, 건강한 삶에 대한 니즈가 더욱 커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회문제 10대 테마로 들여다본 국민의 삶

현재와 10년 후 미래의 삶에 가장 큰 어려움을 미치는 사회문제가 무엇인지 10대 테마별로 물었습니다. 국민들은 모든 테마의 부정적 영향력이 현재(평균 6.87점)보다 미래(평균 7.18점)에 커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현재 나의 삶을 힘들게 하는 주요 이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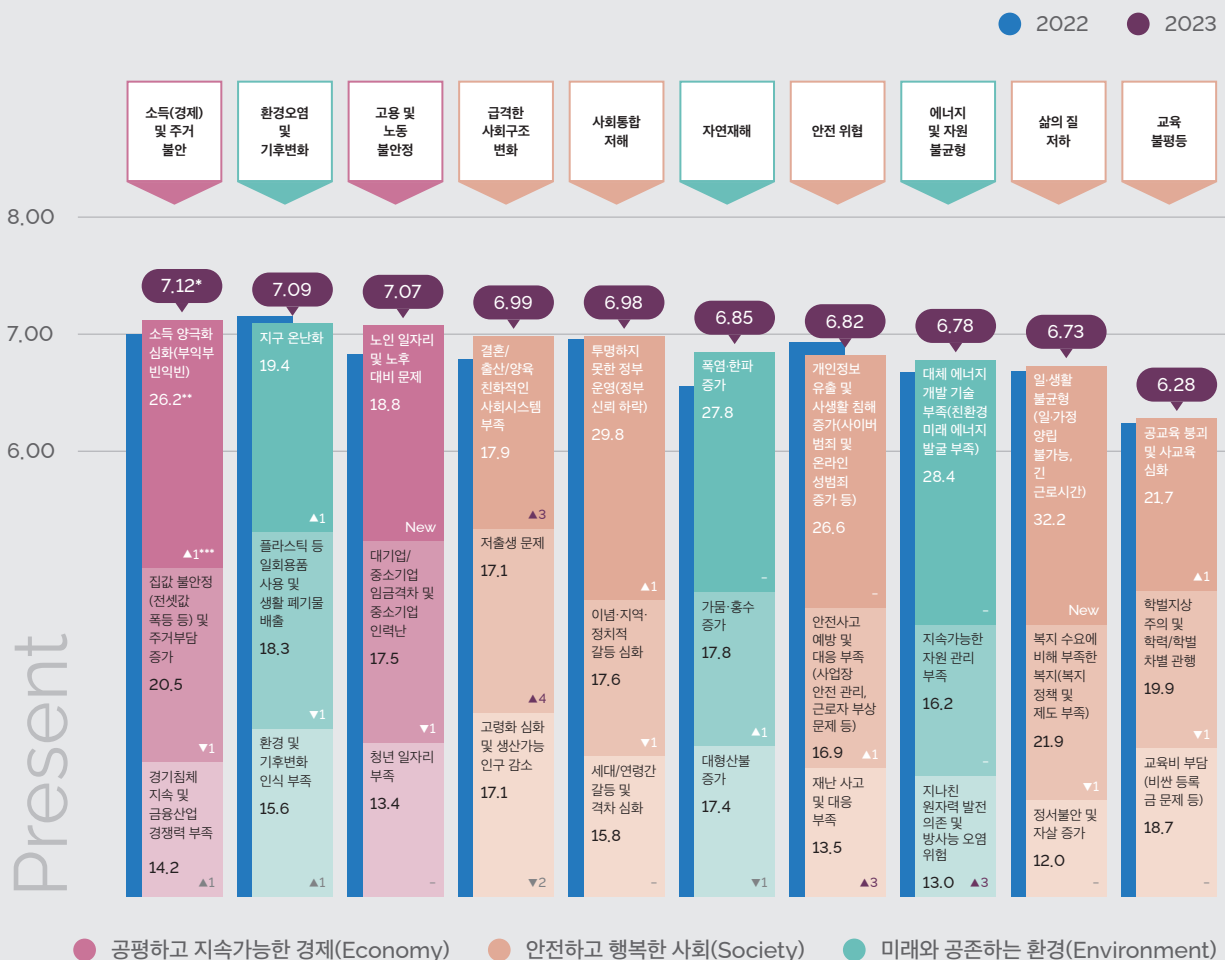
현재 나의 삶에 어려움을 주는 사회문제 10대 테마 Top3는 '소득(경제) 및 주거 불안',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고용 및 노동 불안정'입니다. **소득(경제) 및 주거 불안** 테마의 지난해 1위였던 '집값 불안정(전셋값 폭등 등) 및 주거부담 증가' 이슈가 8.2%p 감소해 2위로, '소득 양극화 심화(26.2%)' 이슈가 1위로 변화하였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순위 변동이 가장 큰 테마는 **자연재해**(9위 → 6위)입니다. 작년 극심했던 '폭염·한파 증가(27.8%)'에 이어, '가뭄·홍수 증가(17.8%)' 이슈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크게 증가한 모습입니다.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 테마에서는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 시스템 부족(17.9%)', '저출생 문제(17.1%)'의 순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일·생활 불균형(32.2%, **삶의 질** 테마)', '투명하지 못한 정부 운영(정부 신뢰 하락, 29.8%, **사회통합 저해** 테마)'를 1순위로 꼽

현재 나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이슈(사회문제별 Top 3)

*테마 영향력(점) **1순위로 꼽힌 비율(%)
***이슈 순위 변동(위)



은 국민의 비율이 1, 2위로 나타났지만, 각 테마의 순위는 2계단씩 하락(각각 7위→9위, 3위→5위)하였습니다. **에너지 및 자원 불균형, 교육 불평등** 테마의 순위는 변동이 없었지만 부정적 영향력은 모두 높아진 모습입니다.

10년 후 나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주요 이슈는?

미래에 나의 삶에 어려움을 주는 사회문제 10대 테마 Top3는 '소득(경제) 및 주거 불안',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자연재해'입니다. 지난해에 비해 가장 순위가 많이 오른 테마는 '**고용 및 노동 불안정**(9위 → 5위)'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노후 대비 문제(32.3%)'가 모든 이슈를 통틀어 가장 많이 선택됐으며, 그 중 60대 이상의 비율이 52.9%로 가장 높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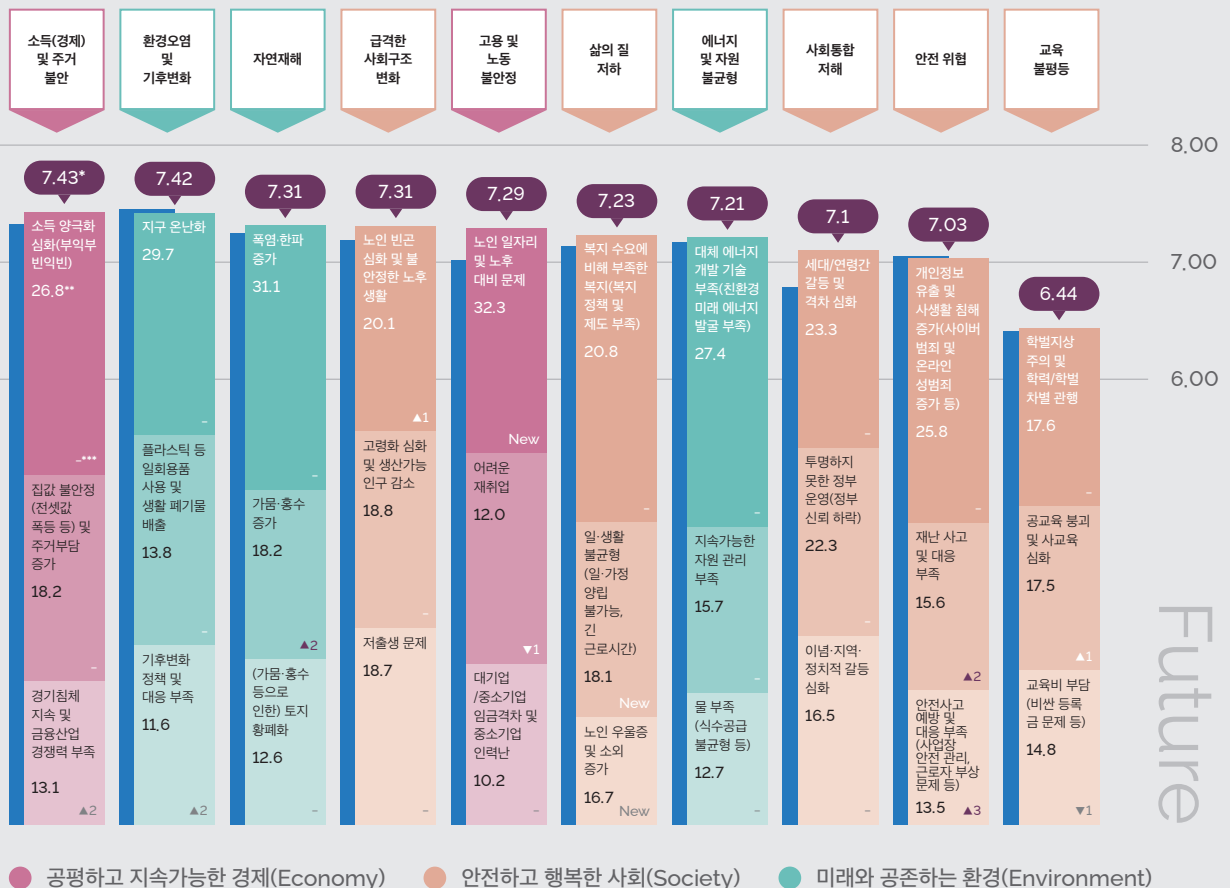
소득(경제) 및 주거 불안 테마에서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소득 양극화 심화(26.8%)'가 1순위 이슈로 꼽혔으며, '경기침체 지속 및 금융산업 경쟁력 부족(13.1%)'이 지난해보다 두 계단 상승해 Top3에 오른 모습입니다. 안전 위협 테마에서는 '재난 사고 및 대응 부족(15.6%)',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부족(13.5%)'이 각 5.7%p, 4.2%p 증가해 2,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응답자들은 지구 온난화(현재 19.4% → 미래 29.7%,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테마), 노인 일자리 및 노후 대비 문제(현재 18.8% → 미래 32.3%, **고용 및 노동 불안정** 테마), 세대/연령간 갈등 및 격차 심화(현재 15.8% → 미래 23.3%, **사회통합 저해** 테마) 문제가 미래에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래 나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이슈(사회문제별 Top 3)

*테마 영향력(점) **1순위로 꼽힌 비율(%)
***이슈 순위 변동(위)

● 2022 ●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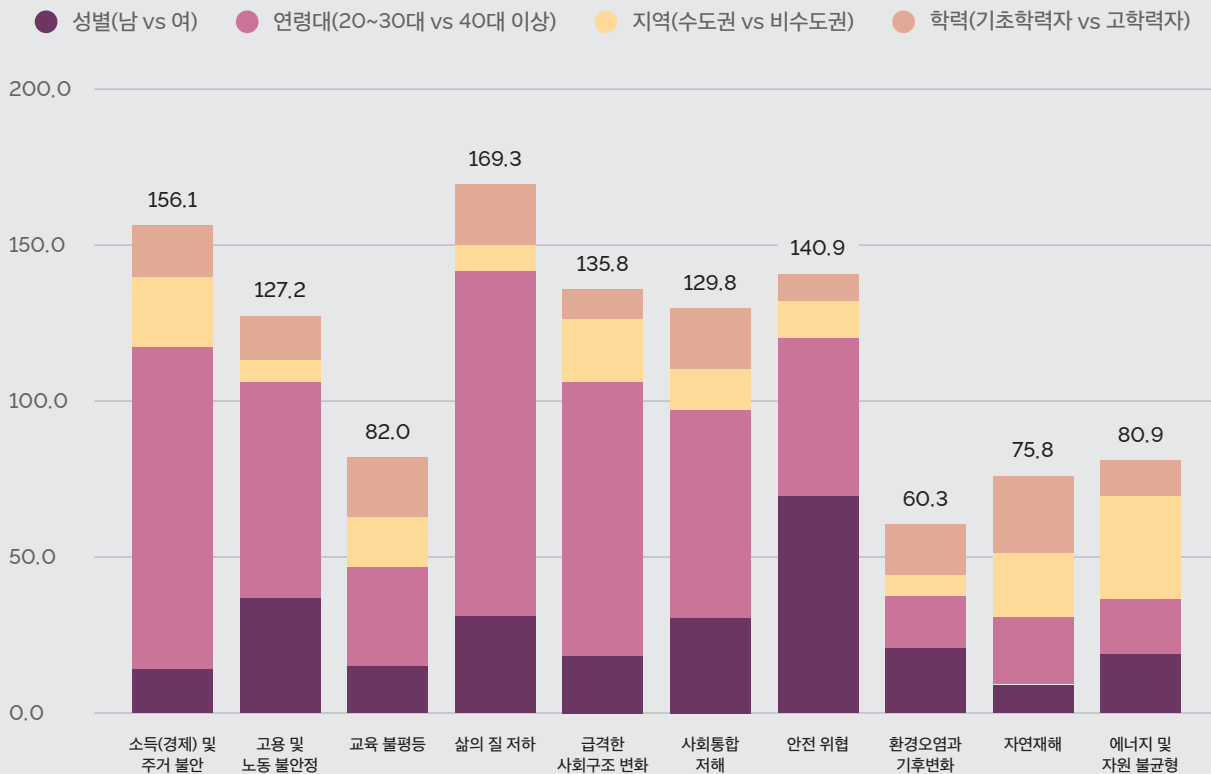


Impact Awareness Gap 사회문제 인식 격차

‘2023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에서는 국민들의 연령, 성별, 지역, 학력 등 인구 특성에 따라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인식 격차가 달라지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연령, 성별, 학력, 지역에 따른 사회문제 인식 격차

단위: 불일치도(Gap)*



*불일치도(Gap): ‘연령’, ‘성별’, ‘학력’, ‘지역’에 따라 계산된 카이자승(χ^2) 값의 합계. 각 테마에 속한 10개 사회 이슈의 부정적 순위를 나열하는 질문에, ‘연령’, ‘성별’, ‘학력’, ‘지역’에 따라 응답이 서로 달라지는 정도를 나타낸다.

10대 사회문제 테마 중에서 ‘삶의 질 저하’,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 ‘소득(경제) 및 주거 불안’ 문제의 경우 연령대에 따라 인식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인식 격차가 크게 나타난 테마는 ‘안전 위협’과 ‘고용 및 노동 불안정’으로, 사회 안정성과 근로 환경의 불균형에 대한 남녀간 체감도가 다른 모습입니다. 세대와 성별에 따라 느끼는 삶의 어려움이 다른 만큼, 보다 세밀한 정책 설계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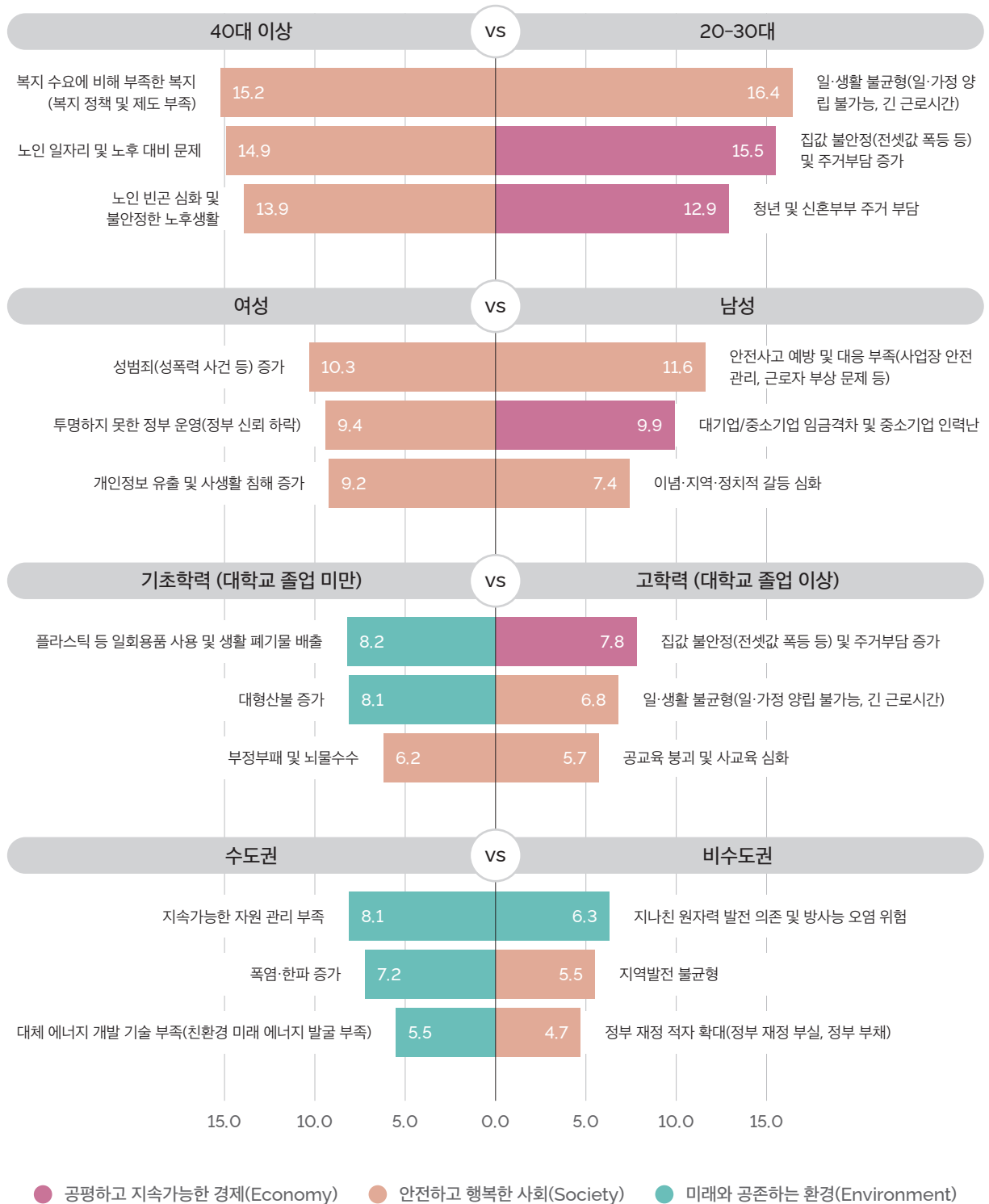
반면, 환경 영역(‘환경오염과 기후변화’, ‘자연재해 증가’, ‘에너지 및 자원 불균형’)과 교육 불평등 테마에 대해서는 학력, 지역, 연령, 성별 등 인구 특성에 따른 인식 격차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테마에 비해 모든 국민이 환경과 교육 관련 이슈의 우선순위를 비슷하게 인식하는 모습입니다.

이슈별 인식 격차와 영향력

연령, 성별, 학력, 지역 등 인구 특성별로 인식 격차가 크게 나타난 사회문제를 분석한 결과, 성별(10개 테마 중 7개)과 연령(10개 테마 중 9개)에 따른 편차가 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사회문제별 1순위 선택 비율이 가장 크게 차이 나는 이슈 Top10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연령, 성별, 학력, 지역별 사회문제 인식 격차*

*인식 격차: (테마별 1순위 선택 비율의 특성별 차이, %p)



연령대(20~30대 vs 40대 이상)에 따른 인식 격차

20~30대보다 40대 이상이 더 부정적으로 느끼는 이슈는 ‘복지 수요에 비해 부족한 복지(▲15.2%)’로, 은퇴 이후 삶에 대한 고민도 더 큰 모습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노후 대비(▲14.9%)’와 ‘노인 빈곤 심화 및 불안정한 노후 생활(▲13.9%)’가 그 다음을 이어 편차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20~30대는 새로운 가정을 안정적으로 꾸려가는 것에 어려움을 더 느끼고 있었습니다. 40대 이상에 비해 20~30대가 더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슈 1순위는 ‘일·생활 불균형(일·가정 양립 불가능, ▲16.4%)’이며, ‘집값 불안정(전셋값 폭등 등) 및 주거부담(▲15.5%)’,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부담(▲12.9%)’,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 부족(▲12.9%)’ 이슈가 뒤를 이었습니다.

성별(남성 vs 여성)에 따른 인식 격차

남성과 여성간의 인식 격차가 가장 큰 사회문제 영역은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Society)’였습니다. 여성에게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슈는 ‘성범죄(성폭력 사건 등) 증가(▲10.3%)’이며, ‘투명하지 못한 정부 운영(정부 신뢰 하락, ▲9.4%)’,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증가(사이버범죄 및 온라인 성범죄 증가 등, ▲9.2%)’가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부족(사업장 안전 관리, 근로자 부상 문제 등, ▲11.6%)’, ‘대기업/중소기업 임금격차 및 중소기업 인력난(▲9.9%)’, ‘이념·지역·정치적 갈등 심화(▲7.4%)’ 이슈에 대해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부정적 영향력을 더 크게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수도권 vs 비수도권), 학력(기초학력 vs 고학력)에 따른 인식 격차

지역에 따라 인식 격차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사회문제 테마는 ‘에너지 및 자원 불균형’입니다. 비수도권에서는 ‘지나친 원자력 발전과 의존 및 방사능 오염 위험(▲6.3%)’을, 수도권에서는 ‘지속가능한 자원 관리 부족(▲8.1%)’ 이슈를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학력에 따른 인식 격차는 사회문제 영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기초학력자(대학교 졸업 미만)는 ‘플라스틱 등 일회용품 사용 및 생활 폐기물 배출(▲8.2%)’, ‘대형산불 증가(▲8.1%)’ 등 환경 영역의 이슈를, 고학력자(대학교 졸업 이상)는 ‘집값 불안정(전셋값 폭등 등) 및 주거부담 증가(▲7.8%)’, ‘일·생활 불균형(일·가정 양립 불가능, ▲6.8%)’와 같은 사회·경제 영역의 이슈를 더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Level of Problem Difficulty 사회문제 해결 난이도 진단

Korean Social Problem & Difficulty Level

문제 해결 난이도 : OECD 국가 대비 한국의 심각성

OECD 국가 대비 한국의 해결 수준이 가장 낮은 문제는 ‘노인 우울증 및 소외 증가’, ‘정서불안 및 자살 증가’, ‘저출생’, ‘기후변화 정책 및 대응 부족’, ‘대체에너지 개발 기술 부족’입니다. 지난해에 비해 ‘경기침체 지속 및 금융산업 경쟁력 부족’, ‘먹거리 불안 및 식량 생산체계 부족’, ‘지속가능한 자원 관리 부족’ 문제의 국내 심각성이 OECD 국가 대비 높아졌습니다.

한국의 사회문제 해결 수준: 문제 해결 난이도

노인 우울증 및 소외 증가 93	정서불안 및 자 살 증가 93	저출생 문제 93	노인 빈곤 심화 및 불안정한 노 후생활 93	기후변화 정책 및 대응 부족 93	대체 에너지 개 발 기술 부족(친 환경 미래 에너 지 발굴 부족) 93	북한 미사일/북 핵 문제 및 남북 관계 갈등 92	비정규직 증가 (비정규직 차별) 91	취약계층 사회 안전망 부족(취 약계층 복지 부 족) 90			
해수면 상승 88	유실·유기동물 안전 부족 88	어려운 재취업 87	공교육 붕괴 및 사교육 심화 86	구인 및 인력난 85	가정폭력 83	에너지 비효율 및 절약 부족 83	대기업 불공정 거래(갑질 기업) 82	일·생활 불균형 (일·가정 양립 불 가능, 긴 근로시 간) 81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부족(사업장 안전 관리, 근로자 부상 문제 등) 80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차별 77	먹거리 불안 및 식 량 생산체계 부족 77	대기업 및 중소기업 임금 격차 증가 77	복지 수요에 비해 부족한 복지(복지 정책 및 제도 부족) 76	아동학대 75	소상공인/자영업 자 소득 불안정 및 생존 문제 74	가계부채 증가 73	양질의 영유아 보 육 및 교육 서비스 부족 72			
고등교육의 질 저하 71	성별격차 및 성차별 70	태풍 증가 69	지역발전 불균형 68	청년 일자리 부족 65	폭설과 폭우 증가 65	에너지 접근성 및 서비스 제공 불균형 65	소득 양극화 심화 (부익부 빈익빈) 64	고용률 하락 62	진로 교육 및 직업 교육 부족 62		
물순환 개선 및 재이용 부족 61	노사갈등 심화 60	이혼율 증가 등 가 족해체 증가 59	지나친 원자력 발 전 의존 및 방사능 오염 위험 58	교육비 부담(비싼 등록금 문제 등) 57	불법어업 및 남획으 로 인한 수산자원 감 소 56	마약류 및 약물 오 남용 55	재난 사고 및 대응 부족 54	정리해고·부당해 고·임금체불 증가 53	회귀·난치성 질환 지원 부족 52		
경기침체 지속 및 금 융산업 경쟁력 부족 51	플라스틱 등 일회용품 사용 및 생활 폐기물 배출 50	화산폭발 위험 증가 49	생물다양성 감 소 및 생태계 파 괴 47	지속가능한 자 원 관리 부족 47	세대·연령간 갈 등 및 격차 심화 46	전력수급 불안 정 45	이념·지역·정 치적 갈등 심화 44	만연한 특권과 편법 43	부정부패 및 뇌 물수수 42	한부모·다문화 가족 지원 부족 41	도시 인구 집 중 및 지방소멸 40
성범죄(성폭력 사건 등) 증가 39	투명하지 못한 정부 운 영(정부 신뢰 하락) 38	화학물질 유해폐기물 배출 및 환경 호르몬 노출 36	석유 및 가스 등 지하 자원 감소 36	가뭄·홍수 증가 35	대형산불 증가 34	학교 밖 청소년(가출청 소년) 보호 및 자립준 비청년 지원 부족 33	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위험관리 체계 부족 32	감염병 확산 및 대응 체계 부족 31	환경 및 기후변화 인식 부 족 29		
폭염·한파 증가 29	지구 온난화 28	4차 산업혁명 인재 육성 교육 부족 27	어려운 창업(창업 혁신 부 족) 26	물 부족(식수공급 불균형 등) 25	취약계층 소득 불안정(국민 연금 지원 부족) 24	학벌·지상주의 및 학력/학벌 차별 관행 23	취약계층 주거 부담(지원 부족) 22	독신자 및 1인가구 증가 21	고령화 심화 및 생산 가능인구 감소 20		
양질의 교육 부족 19	취약계층 및 지역 교 육 격차 심화 17	의료비 부담 증가(저 소득층 의료 지원 부 족) 17	결혼/출산·양육 친화 적인 사회시스템 부 족 16	정부 재정 적자 확 대(정부 재정 부실, 정부 부채) 15	대기업/중소기업 임금격차 및 중소 기업 인력난 14	청년 및 신혼부 부 주거 부담 13	교통 접근성 부 족 및 교통 취약 계층 문제 12	다문화 가정 등 외국인 편견 및 차별 11			
<div>신세대 증가 10</div> <div>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증가 (사이버범죄 및 온라인 성범죄 증가 등) 9</div> <div>국가 연구 인력 및 자본 부족 7</div> <div>(가뭄·홍수 등으로 인한)토지 황폐화 7</div> <div>(농어업)재해 지원 및 대응 부족 6</div> <div>교육 수혜 격차 심화(초·중·고교 등) 5</div> <div>디지털 및 정보 격차 심화 4</div> <div>집값 불안정(전셋값 폭등 등) 및 주거부담 증가 3</div> <div>학교폭력 2</div> <div>노인 일자리 및 노후 대비 문제 1</div>											

-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경제(Economy)
-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Society)
- 미래와 공존하는 환경(Environment)

Note: ‘2023 대한민국 사회문제’로 선정된 100대 이슈 중 한국의 데이터를 찾을 수 없는 이슈를 제외한 98개 이슈를 바탕으로, OECD 주요국 대비 순위를 ‘문제 해결 난이도(100점 만점)’로 환산해 도출한 값이다. 문제 해결 난이도는 이슈별로 OECD, WEF, World Bank 등 국제기구의 최신 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OECD 국가별 순위를 분석했다. 이슈에 따라 데이터를 공개한 OECD 국가 수는 차이가 있으며, OECD 주요국 대비 한국의 수준이 낮을수록 문제 해결 난이도가 높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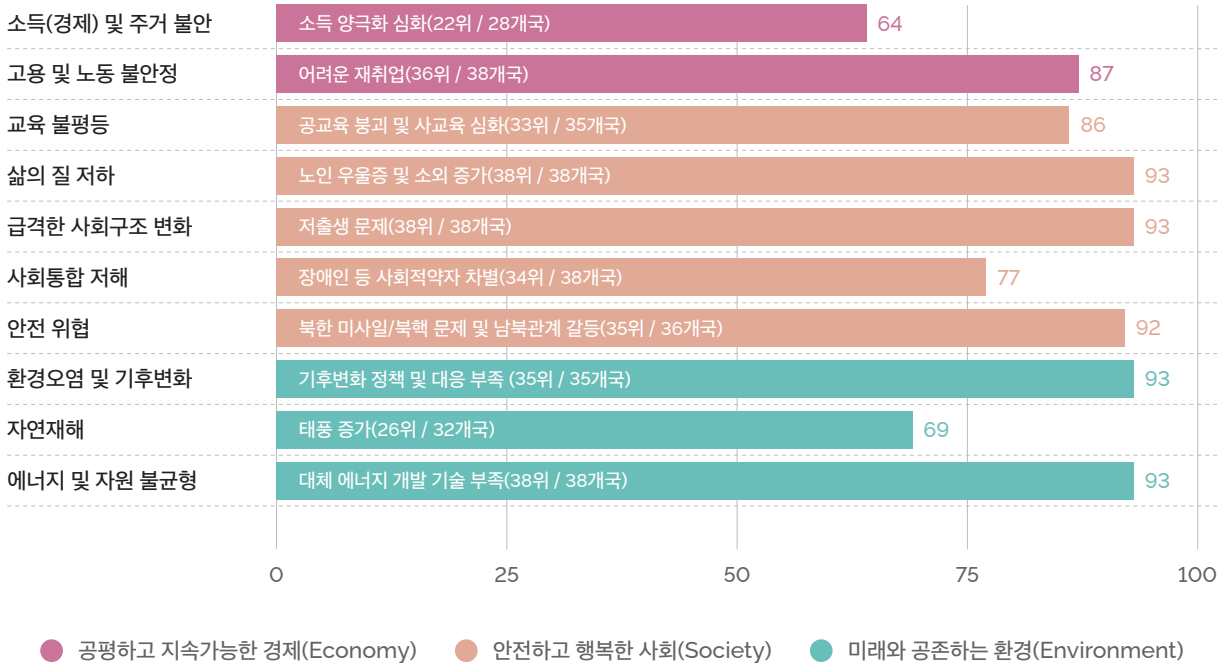
Issue Tracking

이슈별 한국의 OECD 주요 순위

OECD 주요국 대비 한국의 수준은 어떠할까요. '2023 한국이 주목하는 사회 이슈 100' 중에서 문제 해결 난이도가 높은 한국의 데이터를 10대 사회문제 테마별로 살펴봤습니다.

2023 OECD 주요국 대비 한국의 심각성

단위: 난이도(점)



*Note : 10대 사회문제 테마별로 OECD 주요국 대비 한국 순위를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하여, 국제 대비 심각성 수준을 나타낸 값이다. OECD 주요국 대비 순위가 낮을수록 심각성 점수가 높게 계산된다.

소득(경제) 및 주거 불안 — 소득 양극화 심화(부익부 빈익빈)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소득 불평등 지수(Palma Ratio)는 OECD 28개국 중 22위(2020년 기준)이며, 23위 국가인 라트비아와 0.18%p 차이입니다. 가계부채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가계의 부채 상환 능력을 보여주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6.5%(2021년 기준, 27위/32개국)로, 지난해와 비교해 5.8%p 높아졌습니다.

고용 및 노동 불안정 — 어려운 재취업

일자리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32~39세 경제활동참여율(78.2%)은 OECD 38개국 중 36위입니다(2022년 기준). 37위 국가인 멕시코(77%)와 불과 1.2%p 차이이며, 최하위 국가인 튀르키예(72.1%)와의 격차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비율(27.3%)도 34개국 중 33위로 최하위 수준(2022년 기준)으로, OECD 평균(12.4%)의 2배가 넘습니다.

교육 불평등 — 공교육 붕괴 및 사교육 심화

한국의 교육 경쟁은 여전히 심각합니다. 한국의 초등학교부터 고등학생 자녀 대상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은 OECD 35개국 중 33위(2019년 기준)로, 영국과 미국에 이어 3번째로 사교육 부담이 높은 상황입니다. 고등교육의 질도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OECD 37개국의 GDP 대비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지출을 비교해보면, 한국은 0.6%로 31위입니다(2019년 기준). 이는 1위 국가인 노르웨이(1.8%)와 3배 차이입니다.

삶의 질 저하 — 노인 우울증 및 소외 증가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50세 이상 사회적 지지도(Social support)는 63.8%로 OECD 38개국 중 최하위입니다(2022년 기준). 사회적 지지도는 어려운 시기에 의지할 수 있는 친구 또는 친척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로, OECD 평균(87.4%)보다 한국이 무려 23.6%p 낮습니다. 또한 정서불안 및 자살 증가(17위/17개국, 2020년 기준)가 지속되고 있어, 심리·정서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 — 저출생 문제

한국의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은 2013년부터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유지하며, 매년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에서 다른 이슈들에 비해 눈에 띄게 심각성 점수가 높습니다. 2021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81명(38위/38개국)으로 2019년부터 1명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OECD에 따르면 안정적인 인구가 보장되는 합계출산율은 2.1명인데, 한국은 1979년도부터 그 수를 넘은 적이 없습니다.

사회통합 저해 —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 차별

장애인 차별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GDP 대비 장애 및 질병 관련 사회복지지출은 0.4%로 OECD 평균(1.6%)의 1/4배 수준이며, OECD 38개국 중 34위(2019년 기준)로 최하위권입니다. 또한 성별 격차 및 성차별 문제를 측정하는 양성평등 지수(Social Institutions and Gender Index, SIGI)에 따르면 한국은 OECD 36개국 중 30위(2023년 기준)로 하위권을 차지해, 차별과 갈등에 대한 해결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 위협 — 북한 미사일·북핵 문제 및 남북관계 갈등

남북관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OECD 36개국의 일반 정부 지출에서 군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비교한 결과, 한국(10.5%)이 이스라엘(12.1%)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습니다(2021년 기준). 이는 OECD 평균(4.1%)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 기후변화 정책 및 대응 부족

기후변화 대응 수준이 악화됐습니다. 2023년 한국의 기후변화대응지수(CCPI)는 24.9로 OECD 35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기후변화대응지수는 국가의 기후 정책과 이행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매년 새로 발표됩니다. 2021년 한국은 OECD 34개국 중 31위, 2022년은 OECD 35개국 중 34위로, 기후위기 대응 노력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자연재해 — 태풍 증가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계 재해 정보(EM-DAT)에 따르면, 한국의 대규모 태풍 발생 횟수는 2010~2022년까지 15회로 OECD 32개국 중 26위입니다. 25위 국가인 캐나다는 14회, 27위 국가인 호주는 17회로 비등한 수준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지난 2022년,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를 동반한 태풍 힌남노로 인해 5,752억 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에너지 및 자원 불균형 — 대체 에너지 개발 기술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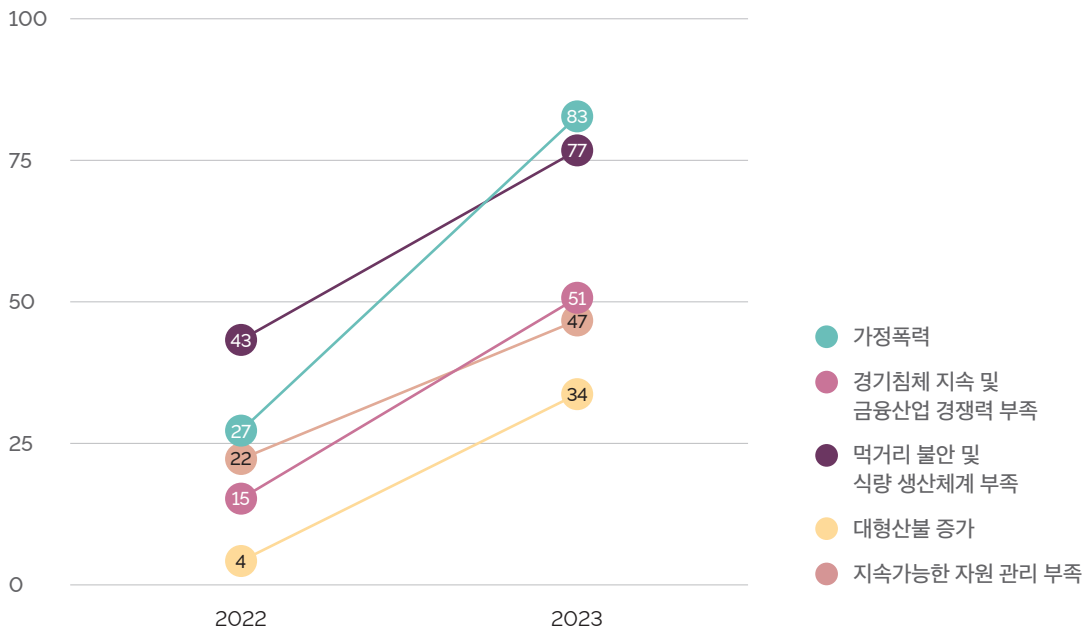
한국의 전체 에너지 공급 대비 재생에너지 생산 비중은 1992년부터 OECD 최하위였습니다. 2021년 기준 2.1%로, OECD 38개국 평균(22.64%)과 10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위권 국가인 아이슬란드(88.9%), 코스타리카(51.5%), 노르웨이(50.9%)와의 격차도 상당합니다. 한국의 에너지 생산성 역시 OECD 38개국 중 35위로, 에너지 효율과 절약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의 심각성 급등 이슈 Top 5

지난해와 비교해 우리나라에서 해결하기 어려워진 사회문제는 무엇일까요. OECD 주요국 대비 문제 해결 난이도가 높아진 5개 이슈를 도출했습니다.

2022-2023 OECD 국가 대비 한국의 난이도 증가 Top 5

단위: 난이도(점)



한국의 안전한 삶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OECD 주요국 대비 난이도 급등 이슈 Top 5 중 2개 이슈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슈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가정폭력'은 지난해와 비교해 난이도 상승 폭이 가장 큼니다. 2019년 기준 OECD 37개국 중 11위였지만, 2023년 기준 38개국 중 35위로 심각성이 커졌습니다. '먹거리 불안 및 식량 생산체계 부족' 문제 또한 해결이 어려워진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농업생산지수는 OECD 38개국 중 34위로 2019년(101.2, 18위/37개국)에 비해 큰 폭으로 악화되어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을 위한 노력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두번째로 급등한 문제는 '경기침체 지속 및 금융 산업 경쟁력 부족'입니다. 한국의 GDP 연간성장률은 2021년 기준 4.1%로 OECD 38개국 중 8위였지만, 2022년 기준 2.6%를 기록하며 38개국 중 25위로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급등 이슈였던 '가계부채' 문제도 2021년 기준으로 OECD 32개국 중 27위를 기록해 경기 회복을 위한 해결책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환경 관련 이슈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세계 재해 정보(EM-DAT)에서 보고된 한국의 대규모 산불이 지난해보다 1회 증가하면서, OECD 16개국 중 7위로 심각성이 커졌습니다. 또한 1인당 국내 자재 사용량이 2017년 기준 OECD 37개국 중 9위였다가, 2019년 기준 38개국 중 24위로 떨어져 지속가능한 자원 관리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Collaboration for Social Issue 함께 해결하는 사회문제

국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은 무엇일까요. 국민들이 인식하는 효과적인 문제 해결 유형을 들여다 봤습니다.

한정된 자원을 넘어서 주체별 역할과 책임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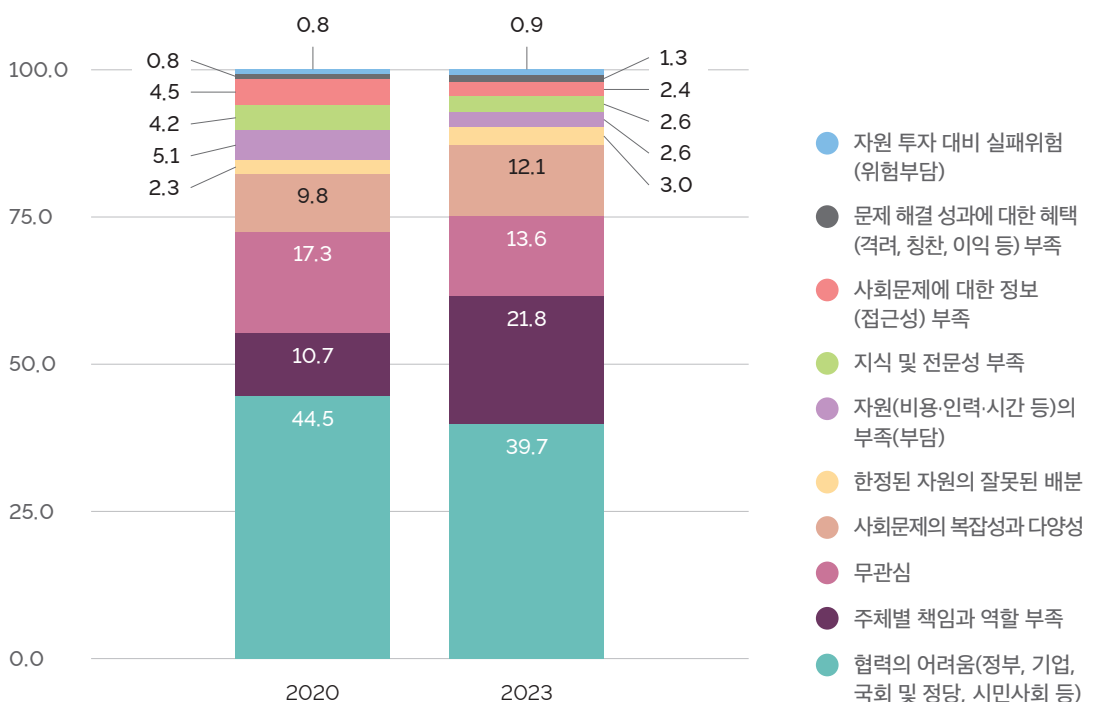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민들은 '정부, 기업, 국회 및 정당,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간 협력의 어려움(39.7%)'을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으며, 이는 4년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주체별 책임 및 역할 부족(21.8%)'과 '무관심(13.6%)'이 뒤를 이었고 지난해와 순위는 동일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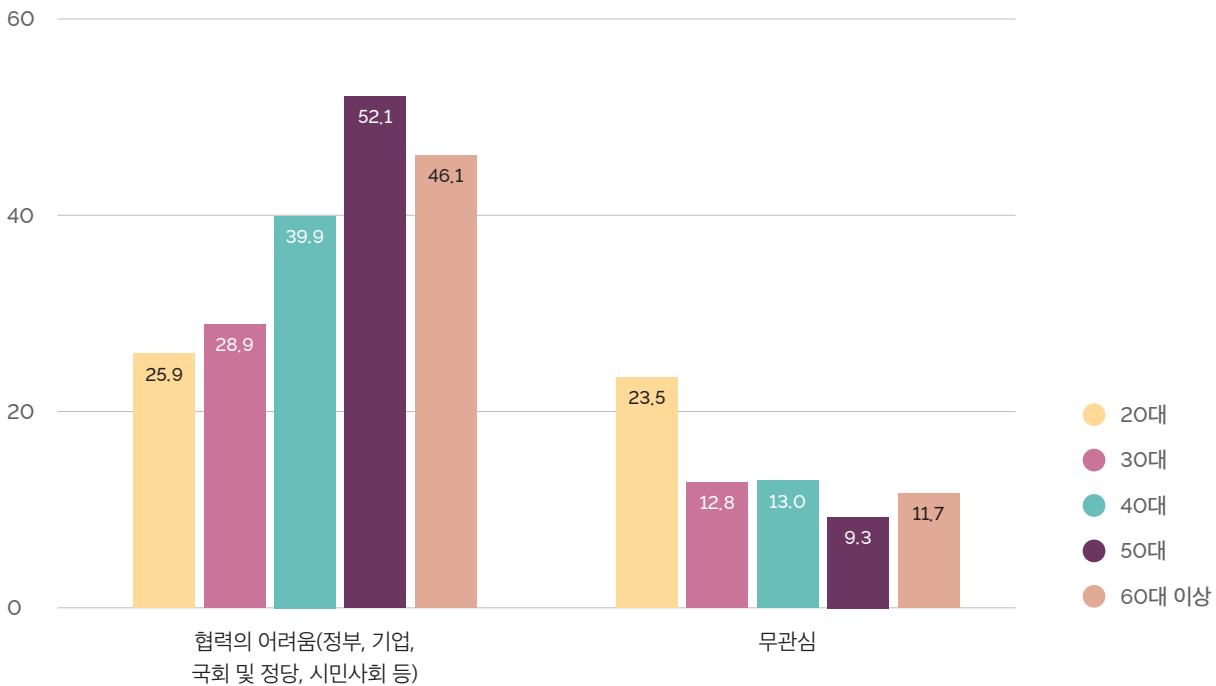
특히 국민들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주체별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을 갈수록 느끼고 있었습니다. '주체별 책임 및 역할 부족' 때문에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국민들의 비중이 2020년 10.7%에서 2023년 21.8%로 가장 많이 증가(11.1%p)했습니다. 정부, 기업, 국회 및 정당, 시민사회 등 각 주체별로 문제 해결을 위한 역할을 재 정의하고 복잡하고 심화되는 이슈 해소를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해질 전망입니다.

한편, 자원 부족 때문에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느끼는 국민들은 지난 4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원(비용·인력·시간 등)의 부족'은 2020년 5.1%에서 2023년 2.6%로 감소했고, '지식 및 전문성 부족 (4.2%→2.6%)', '사회문제에 대한 정보(접근성) 부족(4.5%→2.4%)' 역시 4년간 꾸준히 줄어들었습니다.

■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 - 2020 vs 2023

단위: 선택 비율(%)





세대별로 사회문제 해결이 어려운 이유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기업, 국회 및 정당,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간 협력의 어려움’을 가장 크게 느끼는 연령대는 50대(52.1%)로 나타났고, 60대(46.1%), 40대(39.9%)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무관심’이 가장 큰 문제라고 응답한 비율은 20대(23.5%)가 가장 높았고, 50대(9.3%)가 가장 낮았습니다.

사회문제, 누구 책임일까

국민들은 사회문제의 원인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인식하고 있을까요. 사회문제 10개 테마에서 모두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인식이 작년에 비해 증가했습니다. 정부 다음으로는 전반적으로 국회 및 정당에 책임이 있다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반면,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자연재해’ 테마에 관해서는 개개인이, ‘에너지 및 자원 불균형’ 테마에서는 국제기구가 책임이 큰 주체 2순위로 꼽혔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고용 및 노동 불안정’ 문제에서 기업의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국민의 숫자(▼99명)가 크게 감소해 국회 및 정당이 책임 주체 2순위로 올랐습니다. 일·생활 불균형 문제와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법률 및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국민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12명)’, ‘에너지 및 자원 불균형(▲13명)’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기구의 책임이 많다는 응답이 증가했습니다. 국제기구를 통한 기후변화 관련 인식 개선과 사회적 변화의 중요성을 더욱 느끼는 모습입니다.

분류	정부	국회 및 정당	기업	시민사회 단체	미디어	사회적기업 및 소셜벤처	국제기구	외국 (타 국가)	개개인
소득(경제) 및 주거 불안	646	229	15	16	15	3	7	7	62
고용 및 노동 불안정	532	202	156	20	11	26	6	5	42
교육 불평등	626	194	15	10	20	14	6	1	114
삶의 질 저하	633	205	18	17	25	15	6	3	78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	588	186	21	21	35	18	10	1	120
사회통합 저해	418	320	21	35	81	15	3	1	106
안전 위협	617	145	27	19	30	6	25	18	113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317	64	147	26	15	22	112	42	255
자연재해	360	47	80	22	13	14	137	71	256
에너지 및 자원 불균형	564	74	91	15	12	28	102	49	65

사회문제, 누가 해결해야 할까

그렇다면 국민들은 어떤 주체가 사회문제를 잘 개선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10개 테마 모두 정부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인식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지난해에 비해 정부와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고, 국회 및 정당, 기업, 개개인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사회통합 저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을 기대하는 국민이 증가(▲39명)하면서 정부와 국회 및 정당에 이어 해결 주체 3순위(지난해 5순위)로 선정됐습니다. 사회의 갈등 및 격차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시민사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인식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안전 위협' 문제 해결 주체로 국제기구를 선택한 국민이 40명 늘어 지난해 2순위였던 개개인을 제치고 3위로 꺾혔습니다. 코로나19,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해온 국제기구의 역할을 중요하게 인식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분류	정부	국회 및 정당	기업	시민사회 단체	미디어	사회적기업 및 소셜벤처	국제기구	외국 (타 국가)	개개인
소득(경제) 및 주거 불안	695	147	51	22	7	19	7	9	43
고용 및 노동 불안정	484	131	251	30	12	48	8	4	32
교육 불평등	635	152	19	45	30	38	8	7	66
삶의 질 저하	581	147	29	71	32	36	13	9	82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	593	144	27	58	30	35	8	6	99
사회통합 저해	412	221	24	115	82	31	10	9	96
안전 위협	631	117	20	38	37	29	60	19	49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297	58	99	80	32	43	205	34	152
자연재해	399	49	44	57	30	31	224	36	130
에너지 및 자원 불균형	528	62	86	36	15	48	129	33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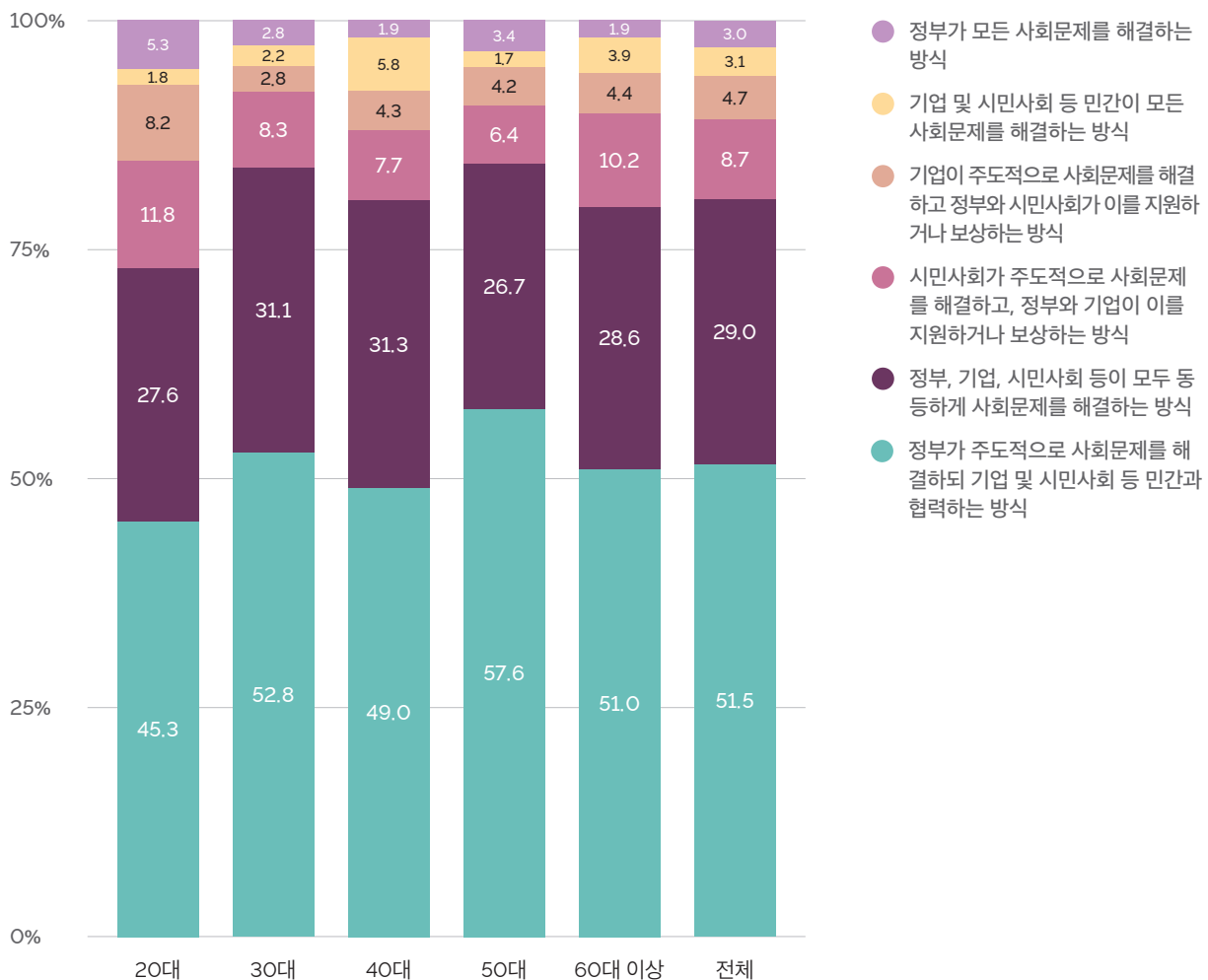
사회문제 해결은 정부가 주도하되, 기업과 시민사회 또한 많은 역할 필요

그렇다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주체가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까요. 국민 2명 중 1명(51.5%)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되, 기업 및 시민사회 등 민간과 협력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답했습니다.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이 모두 동등하게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식(29%)'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2020년과 비교할 때, '정부가 주도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가장 많이 하락(▼4.2%)한 반면, '모든 주체가 동등하게 사회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증가(▲2%)한 모습입니다.

세대로 문제 해결 주체에 대한 인식 격차도 나타났습니다. '기업'과 '시민사회'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항목을 선택한 비중이 20대에서 각각 8.2%, 11.8%로 가장 높았습니다.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동등하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은 40대(31.3%)에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전년 대비 10.5% 하락한 수치인데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한편 60대의 경우 지난해와 비교해 정부 주도의 문제 해결을 선택한 비중이 6.1% 하락(57.1%→51.0%)한 반면, 모든 주체가 동등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6.2%로 가장 많이 증가(22.4%→28.6%)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회문제 해결 방식 - 세대별 비교

단위: 선택 비율(%)



Impact Action Analysis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의 행동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이 중요해지면서, 개인의 역할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어떤 액션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인식할까요.

국민의 문제 해결 의지 낮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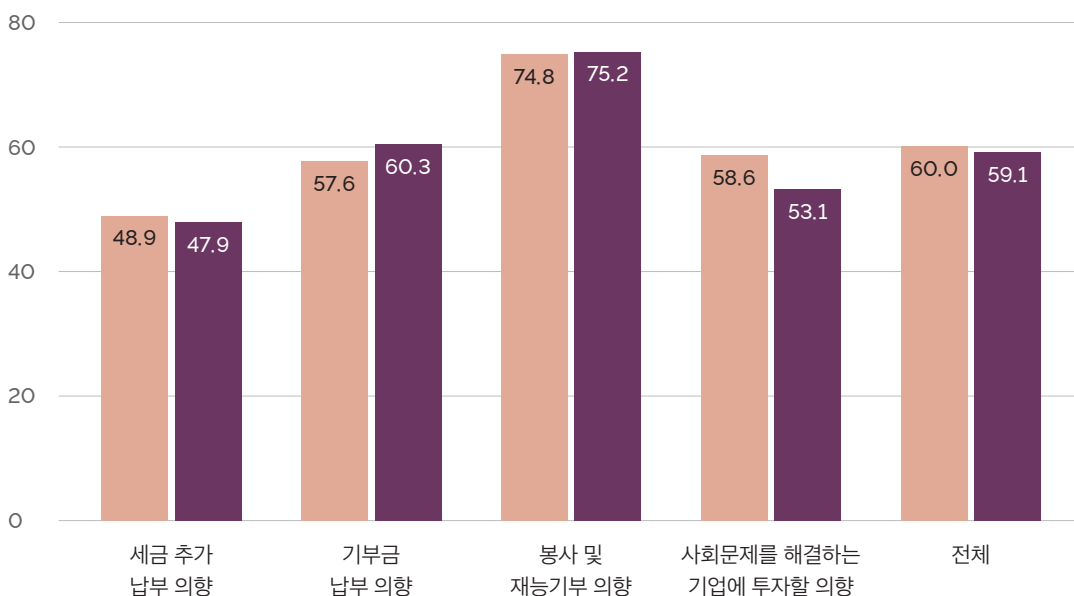
국민의 59.1%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돈과 시간을 들여 행동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3년(2020~2022년)과 비교해 가장 낮은 모습이며, 매년 감소(2020년 대비 ▼3.6%p)하고 있습니다. 연령별로는 50대(평균 66.5%)가 가장 높은 반면, 20대의 참여 의향(평균 51.3%)이 가장 낮았습니다.

기부(▲2.7%p)와 봉사 및 재능기부(▲0.4%p) 의향은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추가로 낼 수 있는 금액은 월 18만 7,700원에서 8만 9,100원으로 줄었습니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추가로 할애할 수 있는 시간 역시 8시간 42분에서 7시간 52분으로 감소했습니다.

	2022년		2023년
세금 추가 납부	11.7%	➡	10.5%
기부	18만 7,700원	➡	8만 9,100원
봉사 및 재능기부	8시간 42분	➡	7시간 52분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액션별 국민 참여 의향

● 2022 ● 2023



국민이 바라는 문제 해결 우선순위

국민 1,000명에게 자신이 투자 및 납부한 금액이 어떤 문제 해결에 우선적으로 사용되길 바라는지, 1순위 사회 문제를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설문 결과, 소득(경제) 및 주거 불안(24.5%),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21.5%), 고용 및 노동 불안정(16.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보다 고용 및 노동 불안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3.8%p 증가했고, 1순위 해결 이슈인 소득(경제) 및 주거 불안은 9.9%p의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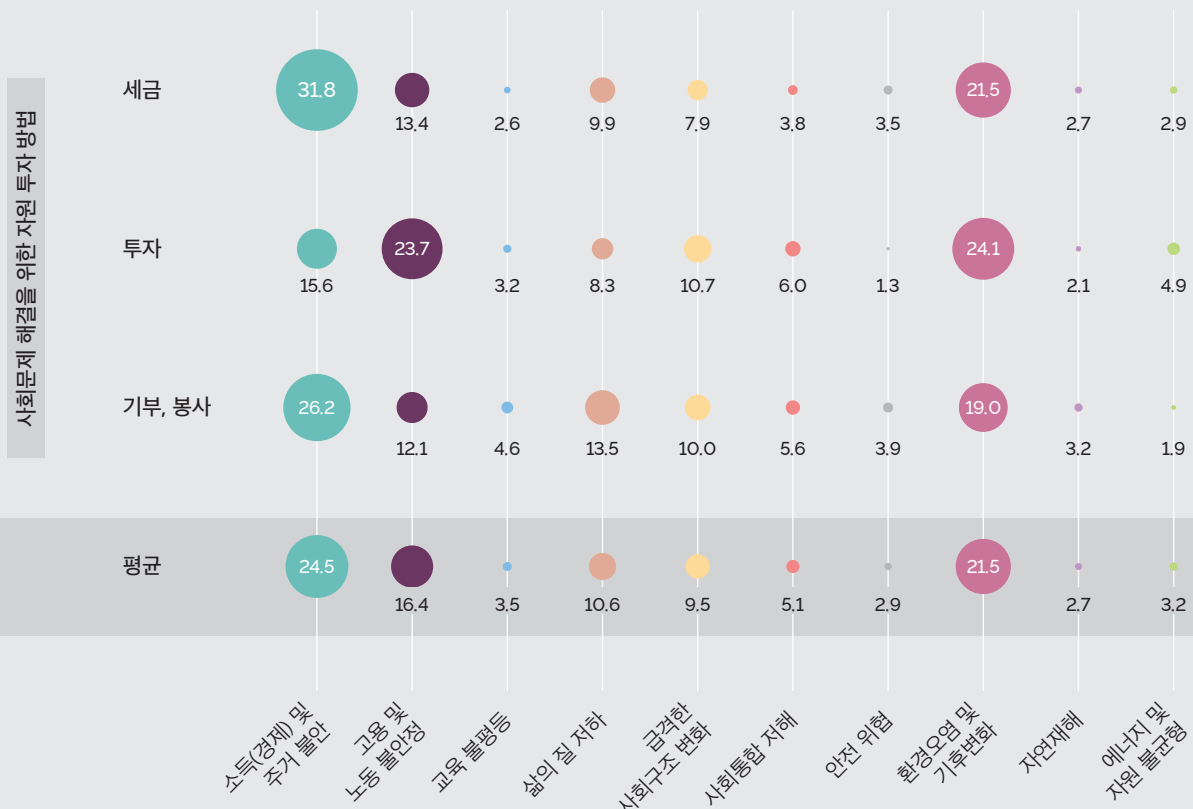
국민들이 추가로 납부하는 **세금**이 투입되길 바라는 사회문제는 ‘소득(경제) 및 주거 불안(31.8%)’이며,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21.5%)’, ‘고용 및 노동 불안정(13.4%)’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작년에 비해 2.1%p 늘었습니다.

국민들은 자신이 **투자**한 기업이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24.1%)’, ‘고용 및 노동 불안정(23.7%)’, ‘소득(경제) 및 주거 불안(15.6%)’에 집중하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고용 및 노동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국민이 무려 10.2%p 증가했으며, 소득 및 주거 불안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는 18.2%p 감소했습니다.

기부금 및 봉사활동으로 마련된 자원을 우선 투입해야 할 문제로는 ‘삶의 질 저하(13.4%)’가 지난해와 비교해 4.5%p 늘어 3위를 차지했습니다.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도 2.6%p 증가했습니다.

■ 국민이 세금·투자·기부·봉사를 통해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사회문제

단위: 비중(%)



국민에게 100조원이 있다면

그렇다면 실제 국민은 어떤 사회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싶어할까요. 국민 1,000명에게 100조원의 자원을 배분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각자 어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을 얼마나 편성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2023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에서는 국민 1,000명에게 주어진 예산 중에서 가장 많은 금액이 소득(경제) 및 주거불안(18.8%)에 배분됐습니다. 고용 및 노동 불안정(14.6%),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11.3%)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2021년부터 3년 연속 상위 3개의 순위는 동일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국민이 편성한 예산이 가장 늘어난 문제는 삶의 질 저하(4위)로, 전년 대비 7,150억원 증가해, 순위가 2단계 상승했습니다. 반면, 에너지 및 자원 불균형(5위)은 지난해보다 예산 편성이 7,710억원 줄었습니다. 지난 3년(2020-2022)평균보다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예산은 1조 968억원, 자연재해는 9,582억원 높아져 기후위기 대응에 주목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국민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100조원의 예산을 배분한 결과값(평균)

2022	전년 대비 변화	2023
1 소득(경제) 및 주거 불안 18조7610억원	▲500억원	1 소득(경제) 및 주거 불안 18조8110억원
2 고용 및 노동 불안정 13조9940억원	▲6030억원	2 고용 및 노동 불안정 14조5970억원
3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11조1540만원	▲1590억원	3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11조3130억원
4 에너지 및 자원 불균형 9조2040만원	▼7710억원	4 삶의 질 저하 9조4540억원
5 안전 위협 8조6900만원	▲7150억원	5 에너지 및 자원 불균형 8조4330억원
6 삶의 질 저하 8조7390만원	▼4990억원	6 교육 불평등 8조2750억원
7 교육 불평등 8조6600만원	▼3850억원	7 안전 위협 8조1910억원
8 자연재해 7조4940억원	▲4620억원	8 자연재해 7조9560억원
9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 6조7270만원	▲3070억원	9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 7조340억원
10 사회통합 저해 6조5770만원	▼6410억원	10 사회통합 저해 5조9360억원

가장 영향력이 큰 액션과 국민의 참여도

국민들이 꼽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영향력이 큰 액션 Top3는 투표(32.4%), 책임있는 소비활동(15.2%), 언론 및 SNS로 문제 공론화(14%)로 나타났습니다. 1~3순위 액션의 비중이 지난해보다 소폭 하락한 반면, 시민단체/공익단체 가입 및 활동(▲2.2%p), 지역사회 문제 해결 활동/프로그램 참여(▲12%p)의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국민들은 ‘언론 및 SNS로 문제 공론화’, ‘지역사회 문제 해결 활동/프로그램 참여’, ‘시민단체/공익단체 가입 및 활동’의 영향력을 높게 평가했지만, 이러한 액션에 대해 지난 3년간 참여 경험이 없거나 향후 1년 내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평가한 영향력에 비해 참여 경험 및 의사가 높은 액션은 ‘불매운동’, ‘정부 민원 제기’, ‘자원봉사 활동 및 헌혈’, ‘현금/물품 기부’였습니다.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액션이자, 참여 경험과 의지가 모두 높은 활동은 ‘투표’로 나타났습니다.

순위	액션 영향력 평가	지난 3년간 참여했던 액션	향후 1년 내 참여할 액션
1	투표 (선거 참여) 32.4%	투표 (선거 참여) 76.9%	투표 (선거 참여) 76.7%
2	책임있는 소비활동 15.2%	불매운동 47.4%	불매운동 56.3%
3	언론/SNS로 문제 공론화 14.0%	책임있는 소비활동 44.7%	책임있는 소비활동 55.7%
4	지역사회 문제 해결 활동/프로그램 참여 8.0%	정부 민원 제기 27.0%	정부 민원 제기 33.6%
5	불매운동 7.6%	현금/물품 기부 26.2%	자원봉사 활동 및 헌혈 33.0%
6	시민단체/공익단체 가입 및 활동 6.5%	자원봉사 활동 및 헌혈 23.6%	현금/물품 기부 30.1%
7	정부 민원 제기 5.6%	지역사회 문제 해결 활동/프로그램 참여 13.5%	지역사회 문제 해결 활동/프로그램 참여 28.5%
8	자원봉사 활동 및 헌혈 2.7%	언론/SNS로 문제 공론화 12.4%	윤리적으로 좋은 기업에 투자 21.4%
9	윤리적으로 좋은 기업에 투자 2.6%	윤리적으로 좋은 기업에 투자 10.4%	언론/SNS로 문제 공론화 10.9%
10	정당 가입 및 활동 2.1%	정당 가입 및 활동 9.0%	시민단체/공익단체 가입 및 활동 18%
11	현금/물품 기부 2.1%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직업/직장 선택 7.5%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직업/직장 선택 8.9%
12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직업/직장 선택 1.2%	시민단체/공익단체 가입 및 활동 7.2%	정당 가입 및 활동 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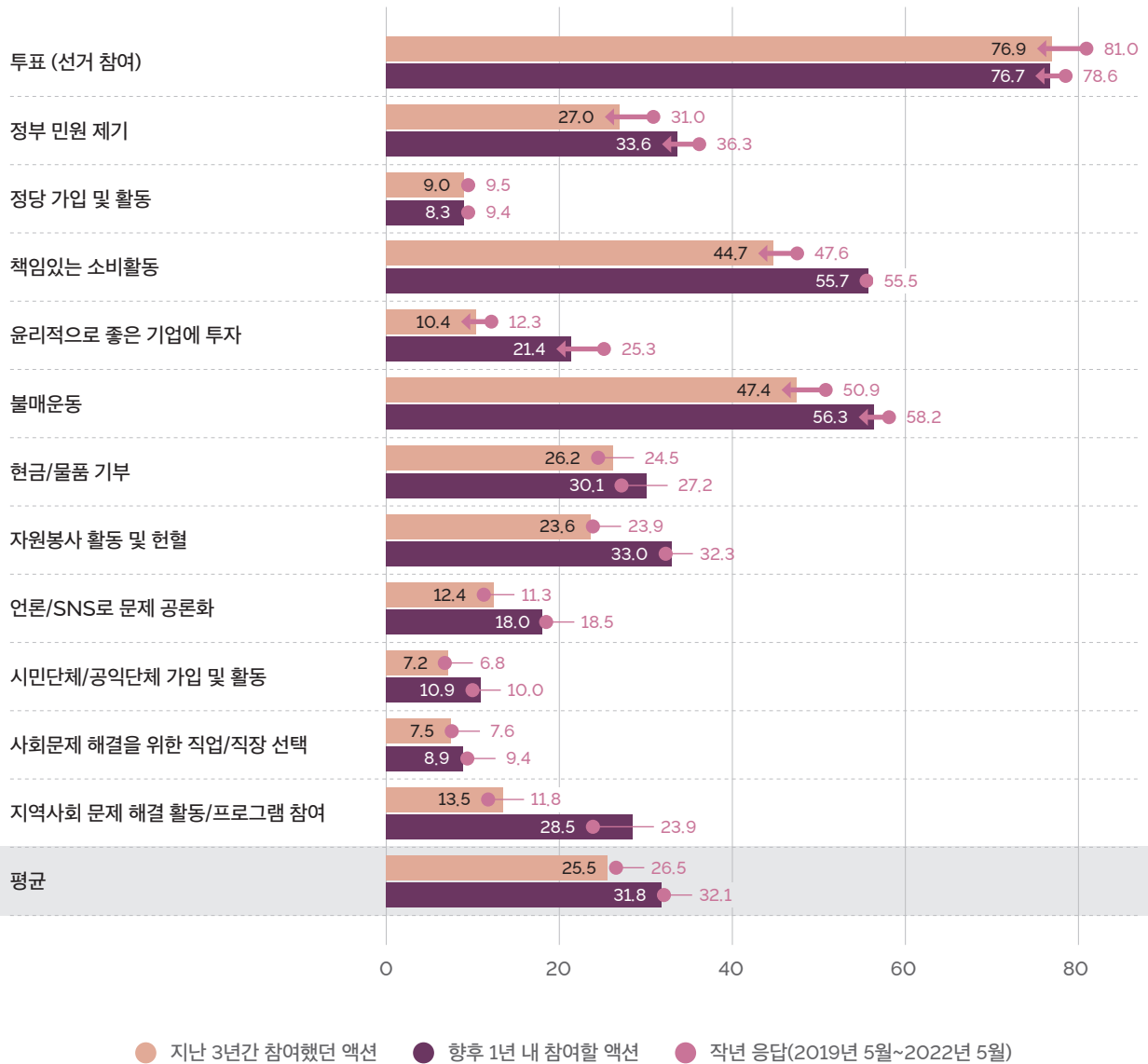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의 액션

지난 3년간(2020년 5월 ~ 2023년 5월) 국민들이 많이 참여한 액션은 투표(76.9%, ▼4.1%p), 불매운동(47.4%, ▼3.5%p), 책임있는 소비활동(44.7%, ▼2.9%p)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위 3개 액션의 순위는 지난해와 동일하지만, 비중은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또한, 정부 민원 제기(2020년 대비 ▼18.3%p), 책임있는 소비활동(2020년 대비 ▼9.3%p), 불매운동(2020년 대비 ▼16.2%p), 자원봉사 및 헌혈(2020년 대비 ▼4.2%p)은 4년 연속 감소 추세입니다. 그 외 액션들도 전반적으로 참여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금/물품 기부(26.2%)와 지역사회 문제 해결 활동/프로그램 참여(13.5%)는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한 모습입니다.

국민들은 향후 1년 내 투표, 불매운동, 책임있는 소비 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해보다 지역사회 문제 해결 활동/프로그램 참여(28.5%) 의사가 가장 높아졌습니다(▲4.6%p). 투표(2020년 대비 ▼6.2%p), 정부 민원 제기(2020년 대비 ▼18.9%p), 불매운동(2020년 대비 ▼11.9%p), 언론 및 SNS로 공론화(2020년 대비 ▼4.1%p)는 매년 참여 의사가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2023 국민의 문제 해결 액션 유형 (중복 응답)

단위:선택 비중(%)





#투표하는 이유

키워드 분석 Top20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액션 중 '투표'가 가장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정부'가 문제 해결을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투표 참여로 '국민'의 대표를 뽑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들은 나 대신 사회문제 해결 '방향'을 찾고, '정책'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어 투표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투표가 다수의 '의견'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쉽고 적극적인 일이며, 결과가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영향력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책임있는 소비를 하는 이유

키워드 분석 Top20

'책임있는 소비'가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개인'의 '행동'으로 '기업'을 변화시키면 '정부' 역시 이러한 문제를 '의식'하고 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물건'을 '구매'하며 적극적인 지지를 이어가고, 비윤리적인 기업을 '불매'하는 등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조금 더 비싸더라도 다른 사람과 사회, 환경에 도움이 되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를 공론화 하는 이유

키워드 분석 Top20

언론 및 SNS를 통해 문제를 공론화하는 액션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느끼는 국민들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파급' 효과로 '여론'을 형성하기 쉽기 때문이라고도 평가했습니다. 이들은 "모르고 지나치는 문제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 공감을 얻어야 한다", "언론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면서 사회문제 해결에 다양한 시민들의 힘이 모아질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회문제에 관심 있는 국민의 액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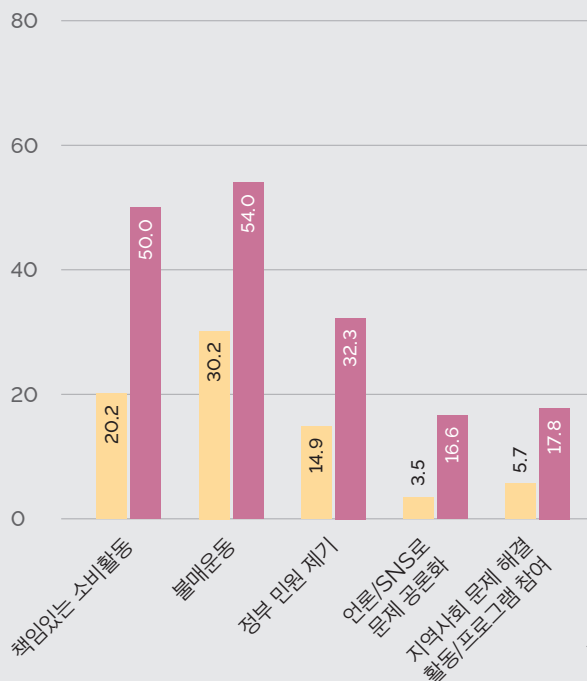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평소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도(매우 관심 없다 0점~매우 관심 있다 10점)'를 묻은 결과, 10점 만점에 평균 6.89점으로 지난해(6.88점)와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사회문제 관심도에 따라 실제 문제 해결 활동에 참여하는 수준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회문제에 관심이 있다(6~10점)'고 답한 사람들은 '사회문제에 관심이 없거나 적다(0~4점)'고 응답한 이들보다, 최근 3년간 문제 해결 액션에 참여 경험이 9.3%p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향후 1년 내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겠다는 의지도 12.9%p 높았습니다.

특히 사회문제에 관심도에 따라 가장 큰 차이를 보인 액션은 '책임있는 소비활동'입니다. 최근 3년간 사회문제에 관심있는 국민(50.0%)은 그렇지 않은 국민(20.2%) 보다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윤리적 소비를 무려 29.8%p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1년 이내 참여할 액션 역시 '책임있는 소비 활동'이 29.0%p 차이로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양한 사회·환경 문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 예측되는 대목입니다.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최근 3년간 불매운동(▲23.8%p)과 정부 민원 제기(▲17.4%p)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응답했습니다. 향후 1년 내에 불매운동(▲21.9%p)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21.1%p)하려는 의지 또한 사회문제 관심도가 낮은 국민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은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이 더욱 필요해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3년 내 활동 경험 차이 Top 5



향후 1년 내 참여 의지 차이 Top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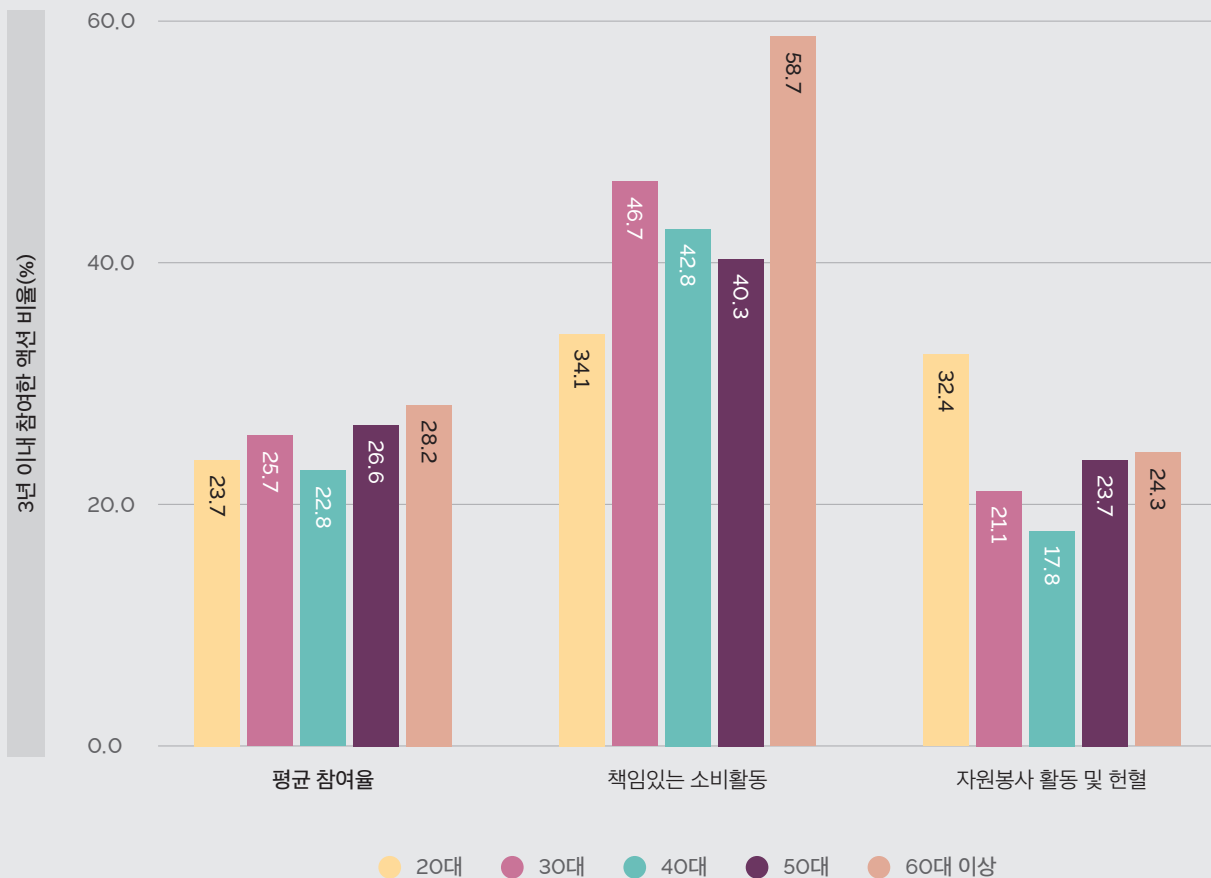
● 관심도 낮은 사람 ● 관심도 높은 사람

단위: 선택 비율(%)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액션에는 50~60대의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60대 이상(58.7%) 국민들은 다른 연령대(41.1%)에 비해 '책임있는 소비활동'에 더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자원봉사 활동 및 헌혈'에는 20대(32.4%)가 다른 연령대(20.6%)에 비해 11.8%p 더 많이 참여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연령별로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참여가 활발한 액션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연령대별 액션 참여 경험

단위: 선택 비율(%)



Channel & Information 사회문제 채널 접근성과 인식도

국민들은 어떤 채널을 통해 사회문제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있을까요. 1순위 응답 집계 결과, '언론사 방송·신문 보도(53.5%)', '유튜브 영상(17.7%)', '블로그, 온라인 카페(6.1%)' 순으로 지난 4년간 순위 변동은 없었습니다. 이 중 '언론사 방송·신문 보도'와 '블로그, 온라인 카페'를 통해 접하고 있다는 응답은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2.2%p, 1.8%p 떨어졌으며, '비영리단체, 공익법인 등 시민사회단체 운영채널(19.5%)'을 1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2.3%p 늘었습니다. 한편, Top3 채널(언론, 유튜브, 블로그)이 3순위 안에 꼽히는 비율은 3년 연속 하락세로, 사회문제를 접근하는 채널이 다양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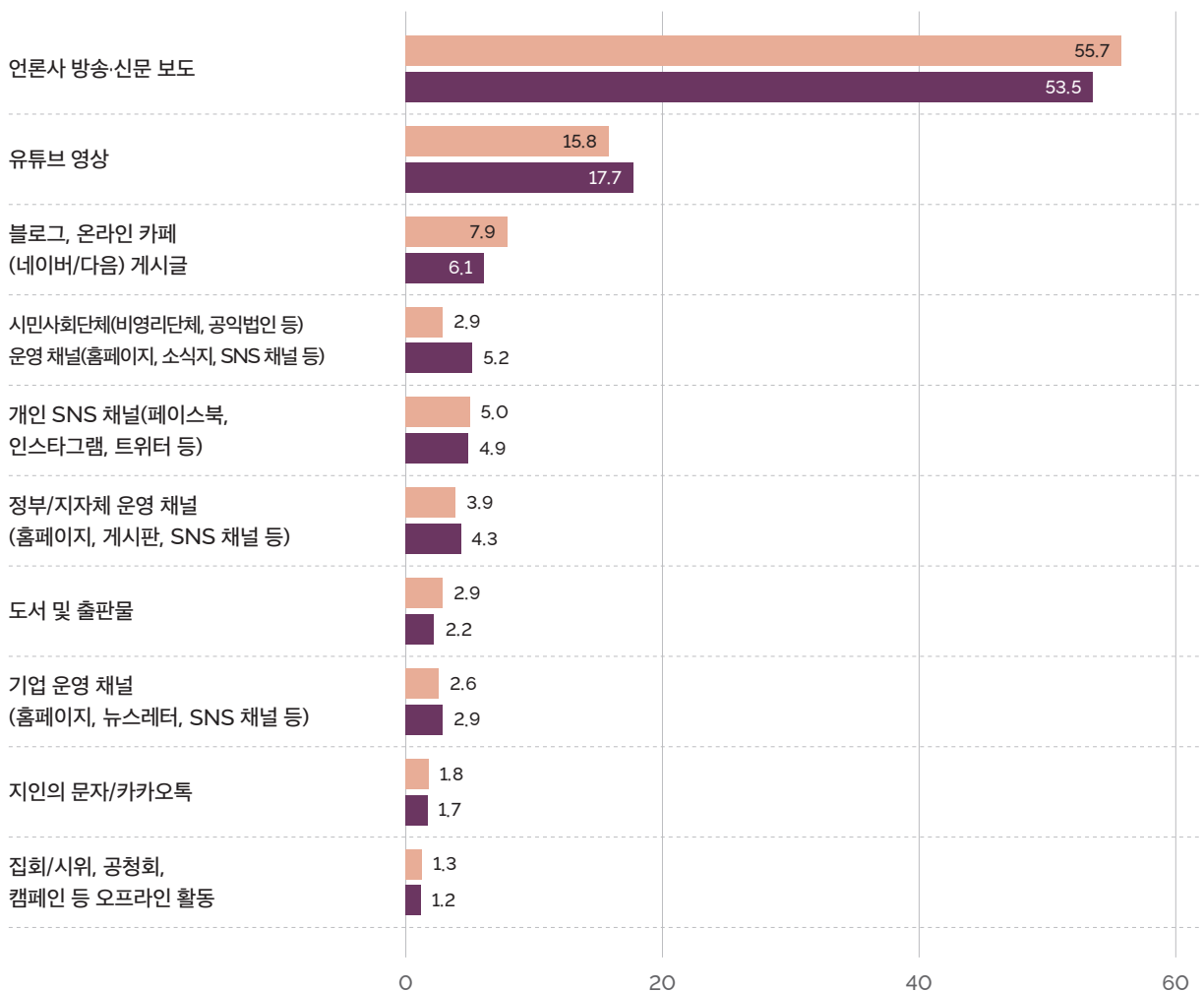
20대가 다른 집단 대비 사회문제를 많이 접하는 채널은 '유튜브 영상(25.3%)', '개인 SNS 채널(9.4%)', '지인의 문자/카카오톡(4.7%)'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40대는 개인 SNS 채널(2.4%)보다 시민사회단체 운영채널(9.1%)을 통한 접근이 많았습니다.

다양한 채널간 연계를 통해 사회문제의 영향력이 확산되는 트렌드를 반영해, 3순위까지의 답변을 추가 분석한 결과 세대별 격차가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대는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기업 운영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반면, '도서 및 출판물'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대의 경우 언론사 방송·신문 보도를 선택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고, 60대의 경우 유튜브 영상을 통해 사회문제를 접하는 비중이 방송 및 신문 보도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사회문제를 접하는 채널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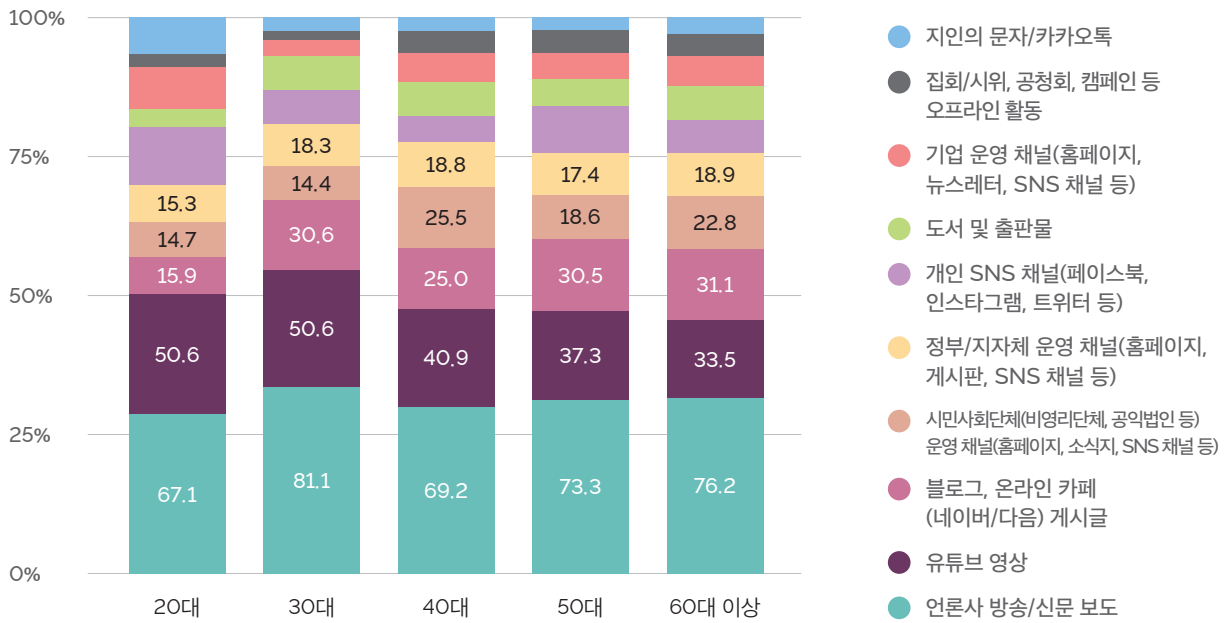
단위: 1순위 선택 비율(%)

● 2022 ● 2023



세대별 사회문제 채널 접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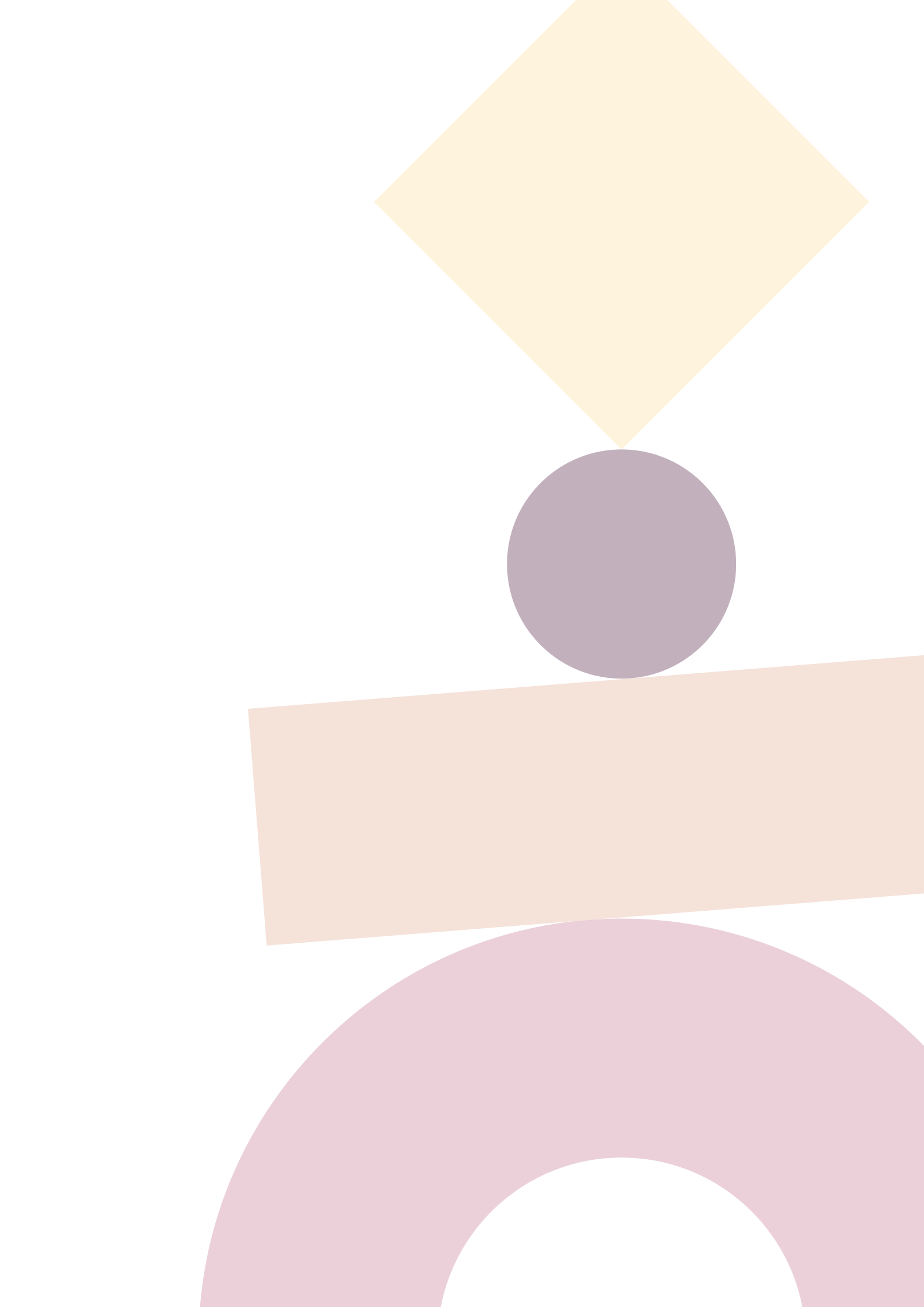
단위: 1~3순위 선택 비율(%)



사회문제를 접하는 채널에 따라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도가 달라지는 모습입니다. ‘언론사 방송·신문 보도’, ‘시민사회단체 운영 채널’에서 사회문제 정보를 주로 접하는 국민들은 **소득(경제) 및 주거불안** 문제를 삶에 어려움을 주는 이슈로 꼽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통한 접근도가 높은 국민들은 **고용 및 노동 불안정**을, ‘블로그 및 온라인 카페’를 통해 정보를 얻는 국민들은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를 어려운 이슈로 응답했습니다. 4개의 채널 모두 **교육 불평등**을 어려움을 느끼는 이슈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한편, ‘개인 SNS 채널’을 통해 정보를 얻는 국민들은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에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가 가장 높았고, 에너지 및 자원 불균형에 가장 어려움을 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널별 응답자들이 삶에 가깝게 느끼는 이슈

순위	언론사 방송·신문 보도	유튜브 영상	블로그, 온라인 카페 게시물	시민사회단체 운영 채널	개인 SNS 채널
1	소득(경제) 및 주거 불안	고용 및 노동 불안정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소득(경제) 및 주거 불안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
2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소득(경제) 및 주거 불안	소득(경제) 및 주거 불안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소득(경제) 및 주거 불안
3	고용 및 노동 불안정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	사회통합 저해	에너지 및 자원 불균형	고용 및 노동 불안정



CHAPTER 3

Sustainability Issues Analysis

국민과 함께하는 기업

Sustainability Issues Analysis 국민과 함께하는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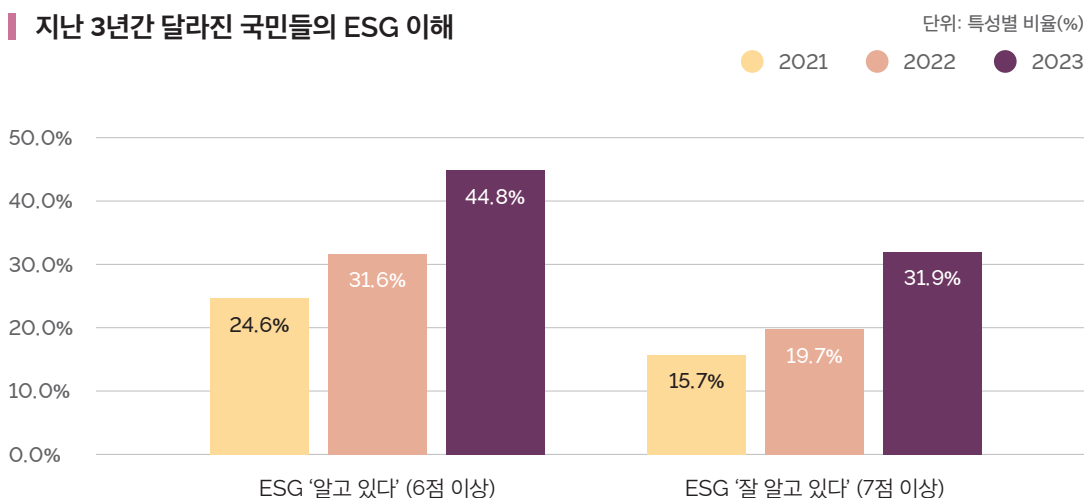
기업의 의사결정에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기업이 우리 사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만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책임있는 역할과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모두가 행복하고 좋은 사회가 되기 위해 기업은 어떤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할까요. '2023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연구는 국내 대기업에 대한 국민 1,000명의 인식과 생각을 묻고 분석했습니다.

Public Awareness of Sustainability

국민이 바라보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지속가능경영의 주요 키워드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이해하는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ESG의 인식 수준을 0~10점(전혀 모른다~매우 잘 안다)으로 답하게 한 질문에, 44.8%의 국민들이 '알고 있다(6점 이상)'고 응답했습니다. 중립(5점) 의견을 제외하면, '모르고 있다(4점 이하)'고 응답한 국민(40.8%)보다 높았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알고 있다'고 응답한 국민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특히, 7점 이상의 점수를 평가한 국민들이 약 32%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ESG를 인지하는 것을 넘어, 이해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 지난 3년간 달라진 국민들의 ESG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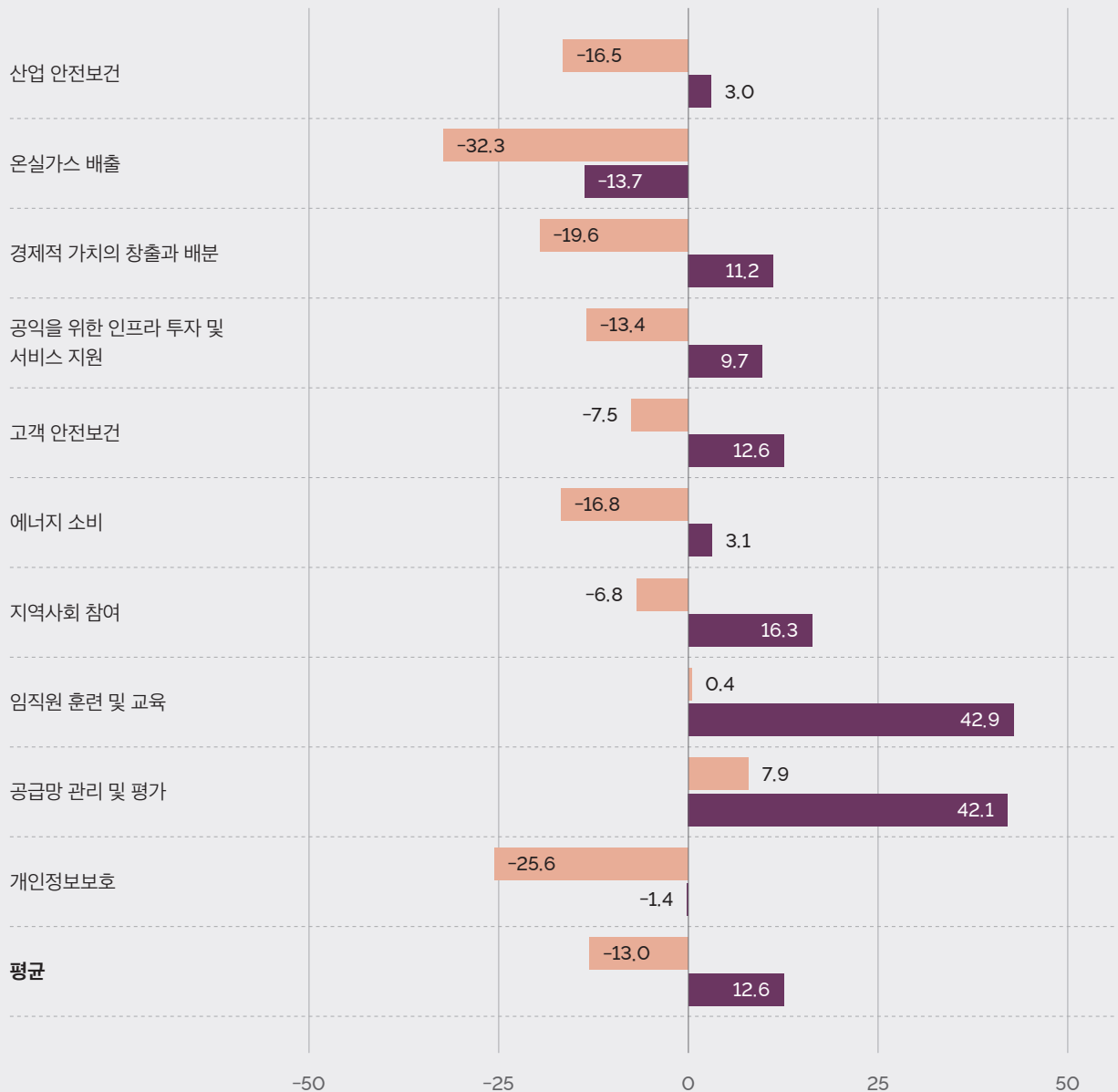
대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긍정적으로 변화됐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13.0%p 더 높았는데, 올해에는 긍정적 평가가 12.6%p 더 많았습니다¹.

¹ 설문을 위한 평가 항목은 GRI·SASB·MSCI·DJSI 등 주요 글로벌 지표를 기반으로 취합하여 '지속가능경영 10대 카테고리'로 구성하였습니다.

ESG 세부 항목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전년도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긍정적인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임직원 훈련 및 교육(42.9%)'과 '공급망 관리 및 평가(42.1%)' 항목에 대해 비교적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반면, 지난해 부정적 평가 비율이 높았던 '온실가스 배출(-13.7%)'과 '개인정보보호(-1.4%)'는 올해도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기후 위기 속에서 기업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고객 정보 보안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기업 ESG에 대한 국민의 평가

● 2022년 (긍정-부정 비율, %) ● 2023년 (긍정-부정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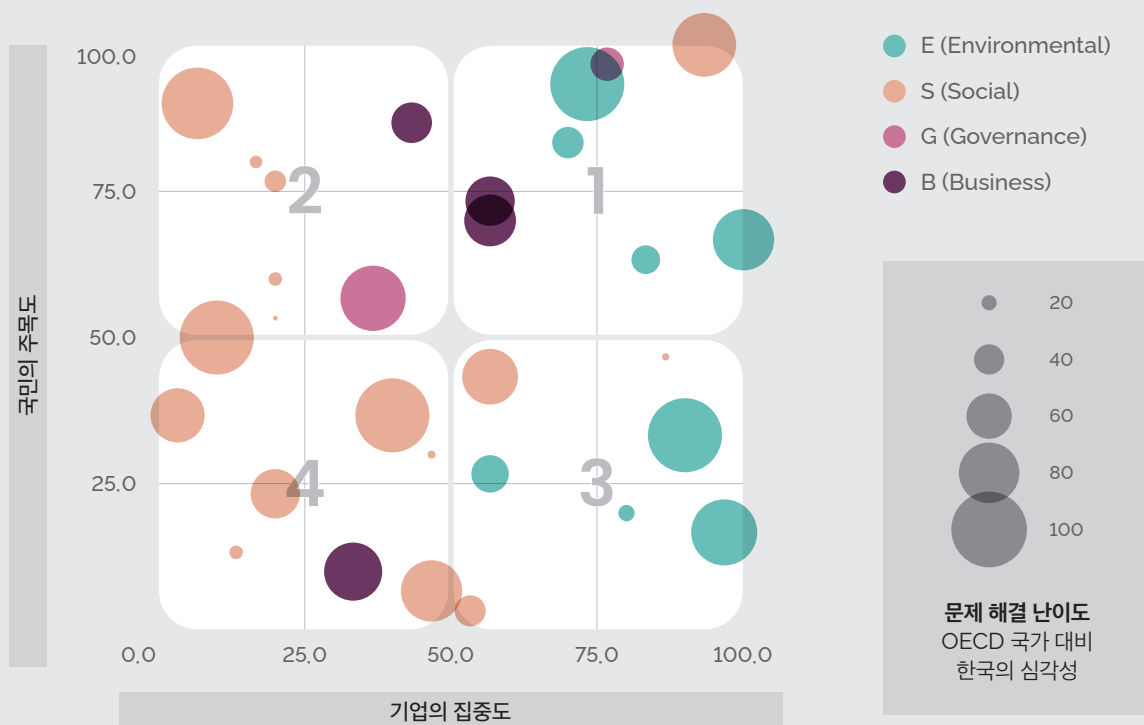
Sustainability Gap 기업의 지속가능한 전략과 국민의 시선

최근 기업의 '이중 중대성(Double Materiality²)'에 대한 국제적인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관련 주제가 재무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Financial Materiality)을 고려하는 것을 넘어서, 기업의 활동이 사회·환경에 미치는 영향력(Impact Materiality)까지 고려하고 그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기업이 주목할 중대 이슈 선정은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산업군별 특성과 기업이 보유한 기술 및 서비스에 따라 집중하는 이슈와 이해관계자 목소리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국내 주요 대기업은 국민이 주목하는 이슈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을까요.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공시 표준을 토대로, 국내 주요 기업 데이터와 '한국이 주목하는 사회 이슈 100'을 매칭하여 '지속가능경영 중대 이슈 Top 30'을 도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이 기업에게 집중하기 바라는 이슈와 기업이 실제 주목하고 있는 이슈를 비교했습니다.

국민의 주목도(Y축)와 기업의 집중도(X축)를 기반으로 구조화한 '지속가능 이슈 미스매치 매트릭스(Sustainability Issue Gap Matrix)³'에 나타난 4가지 영역별 전략 방향과 시사점을 도출했습니다. 특히 이중 중대성을 고려하기 위해 작년에 주목했던 E, S, G에 이어 B(Business)를 추가한 4가지 테마로 이슈를 분류하고 살펴봤습니다.

Sustainability Issue Gap Matrix



² 2019년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서 처음 제안한 개념으로, 기업이 중대하게 여기고 관리해야 할 의제를 두가지 영향①기업 가치와 발전, 시장에서의 지위에 미치는 영향, ② 기업의 활동이 사회, 환경적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평가할 필요성을 내포한다.

³ Y축 '국민의 주목도'는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속가능경영 중대 이슈 Top 30' 중에서 '국내 대기업이 가장 주목하고 집중해야 하는 이슈'를 꼽아달라는 설문조사 답변을 통해 도출된 값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이다. X축 '기업의 집중도'는 국내 주요 산업별 30대 기업의 최근 2개년 지속가능성, ESG 보고서의 중대성 평가를 바탕으로 '지속가능경영 중대 이슈 Top 30'에 대한 집중도를 도출하고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이다.

① 국민과 기업이 모두 집중하는 영역 자연재해와 안전 대응 전략 필요

국민과 기업이 모두 주목하고 있는 영역은 기업의 영향력이 크거나, 기업 가치와 연관이 깊은 이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과 기업이 가장 주목·집중하고 있는 이슈는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부족’ 이슈입니다. 작년과 올해 심각한 산업재해 사고들이 대중에게 공론화되며 제도의 개선으로 이어진 것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작년에 비해 새롭게 해당 영역에 진입한 이슈들은 환경 관련 항목이 많았습니다. 특히 태풍, 폭우 등 기후변화로 인해 더 강력해진 자연재해가 국민의 삶에 피해를 입히며 경각심이 커졌습니다. 대규모 재해는 기업의 자산과 비즈니스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업의 집중도 역시 높게 나타났습니다.

분류	ESG 이슈	국민의 주목도	기업의 집중도	국민-기업 GAP	문제 해결 난이도
S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부족(사업장 안전 관리, 근로자 부상 문제 등)	100.0	93.3	7	80
G	부정부패 및 뇌물수수	96.7	76.7	20	42
E	대체 에너지 개발 기술 부족(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 부족)	93.3	73.3	20	93
E	(태풍, 지진, 쓰나미, 산사태 등)자연재해 증가	83.3	70.0	13	39.5
B	고용률 하락	73.3	56.7	17	62
B	청년 일자리 부족	70.0	56.7	13	65
E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증가(이로 인한 지구 온난화 등)	66.7	100.0	-33	77
E	화학물질·유해폐기물 배출 및 환경 호르몬 노출	63.3	83.3	-20	36

② 국민이 기대하지만 기업은 집중하지 않는 영역 사람 중심 경영으로 불균형 해소

기업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반면, 국민이 주목하는 영역에는 주로 사회 영역의 이슈들이 포함되었습니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기업의 역할을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기업의 역할에 대해 국민의 기대감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면, 기업의 집중도는 최하위권으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사회 안전망은 정책만으로 구축되기 어려운 난이도 높은 이슈인만큼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개입이 필요합니다. 결혼·출산, 양육에 대한 문제도 작년에 비해 기업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혼인율·출산율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양육에 부적절한 근로환경이 거론되고 있지만, 기업 차원의 관심과 개선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분류	ESG 이슈	국민의 주목도	기업의 집중도	국민-기업 GAP	문제 해결 난이도
S	취약계층 사회 안전망 부족(취약계층 복지 부족)	90.0	6.7	83	90
S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 부족	80.0	16.7	63	16
S	4차 산업혁명 인재 육성 교육 부족	76.7	20.0	57	27
B	경기침체 지속 및 금융산업 경쟁력 부족	86.7	43.3	43	51
S	취약계층 및 지역 교육 격차 심화	60.0	20.0	40	17
S	저출생 문제	50.0	10.0	40	93
E	(농어업)재해 지원 및 대응부족	53.3	20.0	33	6
G	대기업 불공정 거래(갑질 기업)	56.7	36.7	20	82

③ 국민보다 기업이 더 집중하고 있는 영역 사회·환경 리스크 대응 및 관리 필요

국민의 주목도는 낮으나 기업이 집중하고 있는 영역으로 기업 가치, 법적 의무와 연관성이 높은 이슈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에너지, 토지, 자연환경 및 생태계 등 기후변화와 연관성이 높은 이슈들에 대한 기업의 집중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당 이슈들은 국민의 관심이 높아질 경우, 기업 평판과 직결되는 리스크 이슈인 만큼 보다 면밀하고 투명한 관리가 중요해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양성과 개인정보 보호 이슈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하는 문제로, 국내 기업들의 전략 고도화가 필요할 전망입니다. 국민의 주목도도 작년에 이어 높게 나타나 기업의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분류	ESG 이슈	국민의 주목도	기업의 집중도	국민-기업 GAP	문제 해결 난이도
E	에너지 비효율 및 절약 부족	16.7	96.7	-80	83
E	대형산불 증가 및 토지 황폐화	20.0	80.0	-60	20.5
E	기후변화 정책 및 대응 부족(위험관리 체계 부족)	33.3	90.0	-57	93
S	성범죄(성폭력 사건 등) 증가	3.3	53.3	-50	39
S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증가 (사이버범죄 및 온라인 성범죄 증가 등)	46.7	86.7	-40	9
E	지속가능한 자원 관리 부족	26.7	56.7	-30	47
S	성별격차 및 성차별	43.3	56.7	-13	70

④ 국민과 기업 모두 주목도가 낮은 영역 협력을 통한 중장기 과제 해소

국민의 주목도와 기업의 집중도가 모두 낮은 영역으로, 국민의 인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거나 기업과의 연관성이 낮게 인지된 이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정서불안 및 자살 증가와 같이 기업 내 정신 건강과 관련된 문제는 데이터가 없거나, OECD 국가 대비 인식과 관심이 부족한 이슈로 꼽힙니다. 기업 차원의 조직문화 개선과 더불어, 정책과 연계한 선제적 대응이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분류	ESG 이슈	국민의 주목도	기업의 집중도	국민-기업 GAP	문제 해결 난이도
S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 차별	6.7	46.7	-40	77
B	가계부채 증가	10.0	33.3	-23	73
S	의료비 부담 증가(저소득층 의료 지원 부족)	13.3	13.3	0	17
S	진로 및 직업교육 부족	23.3	20.0	3	62
S	직장 내 괴롭힘 및 감정노동 문제	30.0	46.7	-17	-
S	정서불안 및 자살 증가	36.7	40.0	-3	93
S	지역발전 불균형	36.7	3.3	33	68

Sustainable Investing Strategy 국민이 선택한 ESG 투자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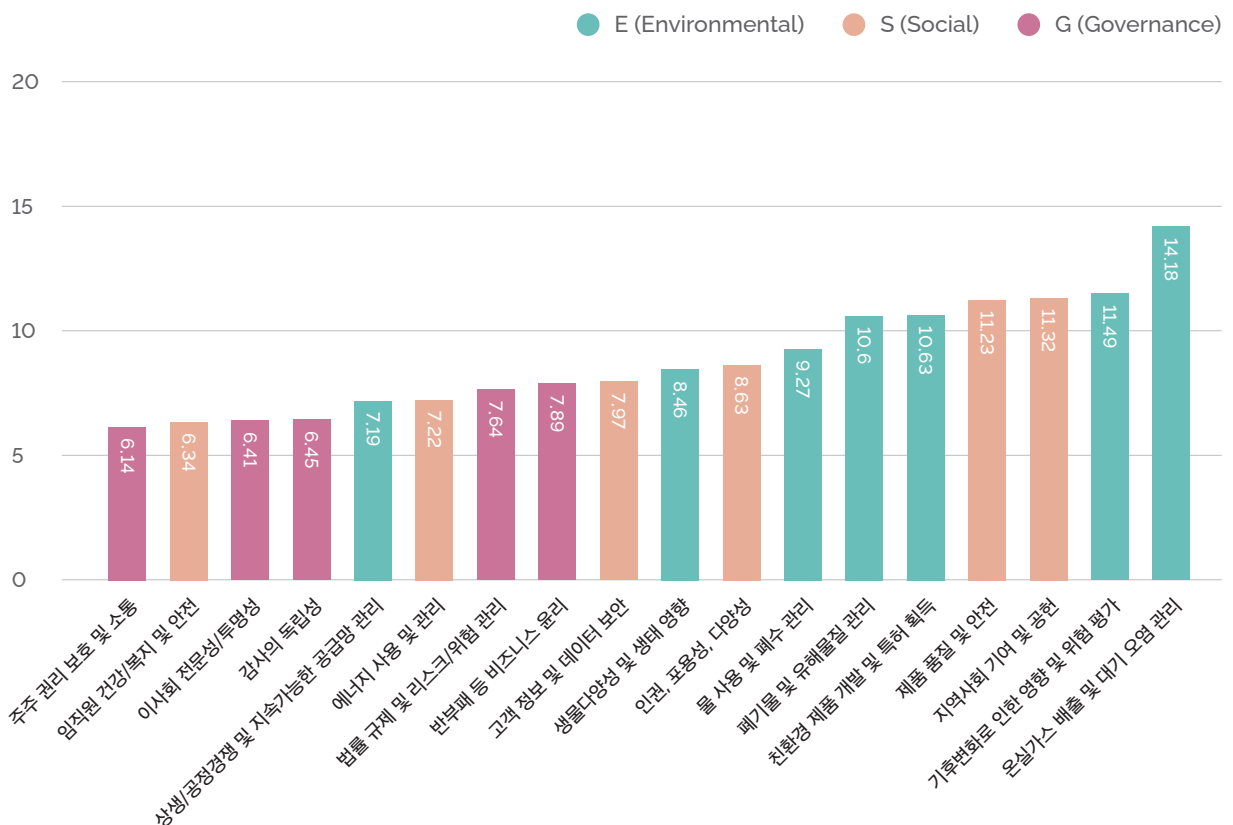
전 세계 자본 시장은 기업의 ESG(환경·사회·거버넌스)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투자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물론 개인 투자자들도 ESG를 기준으로 투자를 늘려가고 있습니다⁴. 국민들은 ESG 투자 결정시 어떤 항목을 중요하게 고려할까요.

국민 1,000명이 투자시 고려하는 ESG 이슈

국민 1,000명에게 100만원의 자금을 투자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기업의 어떠한 ESG 요소를 가장 많이 고려하여 투자할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설문 결과, 국민들은 기업 투자시 ‘온실가스 배출 및 대기오염 관리’ 이슈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자산의 14.2%(약 14만원)를 투자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다음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 및 위험 평가(11.5%)’, ‘지역사회 기여 및 공헌(11.5%)’, ‘제품 품질 및 안전(11.2%)’, ‘친환경 제품 개발 및 특허 획득(10.6%)’가 뒤를 이었습니다. 작년 10위를 기록한 ‘지역사회 기여 및 공헌’의 경우 올해 3위로 상승하였습니다. 사회의 일원으로서 기업이 해야하는 역할과 책임에 대한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작년에 이어 지배구조 분야의 이슈들은 하위권을 기록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건강한 지배구조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내재화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민들은 지배구조의 변화와 기업 가치의 연관성을 투자시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⁴ ETF분석 기관인 ETFGI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ESG관련 투자 종목(ETF/ETP)의 자산 규모의 연평균 증가량은 약 32.5%에 달한다.

CHAPTER 4

AI Impact

인공지능이 가져온 변화

AI Impact 인공지능이 가져온 변화

챗GPT(Chat GPT) 열풍과 함께, 인공지능(AI)이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 속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예측, 분류와 같은 기존의 기능을 넘어 글·이미지 생성 등의 창의력이 필요한 영역으로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변화 속에서 기술 격차, 고립, 소외 등 연계될 수 있는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넘어서,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민 1,000명에게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과 태도, 그리고 이러한 기술이 우리 사회에 가져올 변화에 대해 물었습니다.

AI Literacy Gap 인공지능 문해력 격차

최근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AI 리터러시(AI literacy, 인공지능 문해력)를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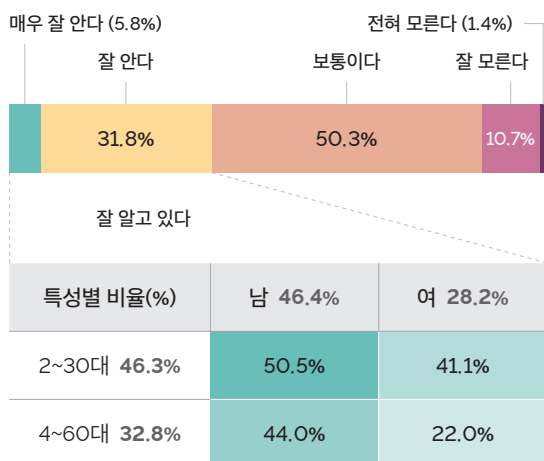
AI 기술이 야기할 수 있는 격차를 줄이기 위해 AI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역량을 키우고, 결과물에 대한 비판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AI를 얼마나 이해하고 활용하고 있을까요?

성별·연령·지역·학력별 AI 이해도 및 경험 격차

AI 기술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7.6%로, ‘모르고 있다’ 응답한 비율(12.1%)의 3배 이상 높았습니다. 그러나 성별과 연령대에 따라 결과는 극명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28.2%)보다 남성(46.4%)이, 40~60대(32.8%)보다 20~30대(46.3%)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텍스트, 이미지, 음악 등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생성형 AI’에 대한 사용 경험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22.5%)보다 남성(39.2%)이, 40~60대(24.0%)보다 20~30대(44.3%)가 2배가량 더 많이 사용해 본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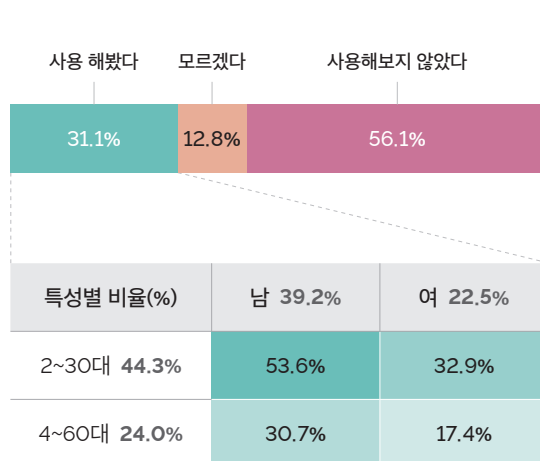
성별, 연령별 AI 기술 이해도

단위: 선택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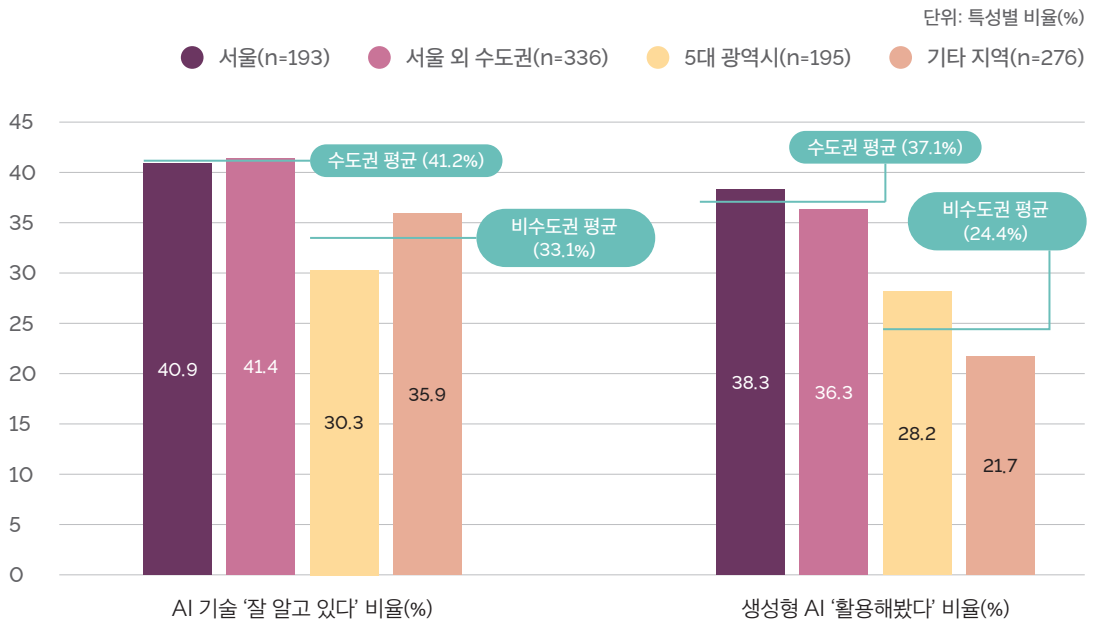


성별, 연령별 생성형 AI 활용 경험

단위: 선택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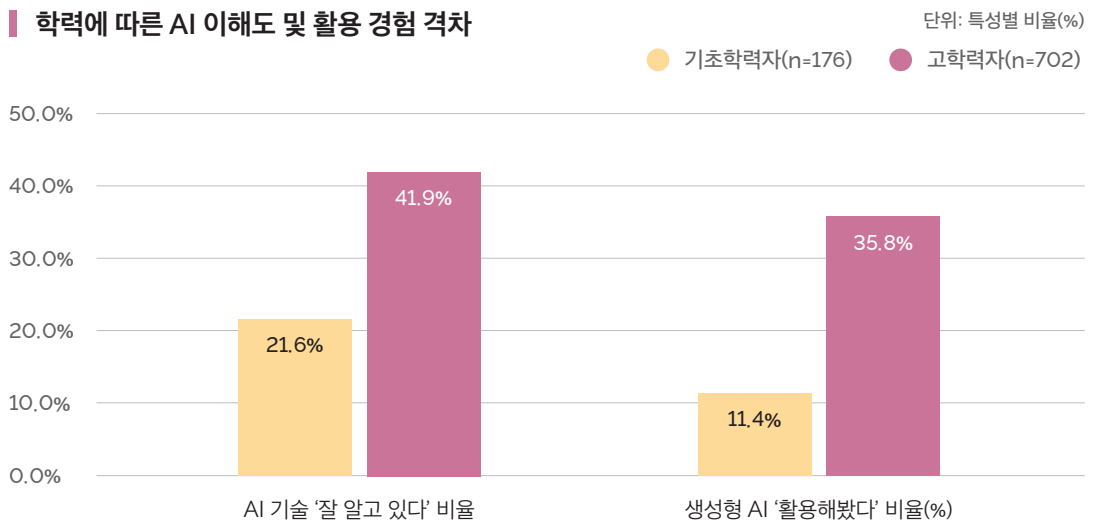


이러한 차이는 지역별로도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응답자들이 AI 기술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41.2%)은, 비수도권 응답자들의 응답 비율(33.1%)에 비해 높게 나타났습니다. 격차는 생성형 AI 활용 경험에서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생성형 AI를 사용해본 경험자는 비수도권(24.4%)에 비해 수도권(37.1%)이 13%p 가량 더 많았습니다.



학력에 따른 격차는 더 큰 상황입니다. 학력은 다른 인구적 특성에 비해 인지도, 활용 경험과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¹. AI 기술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기초학력자(대학 졸업 미만, 21.6%)보다 고학력자(대학 졸업 이상, 41.9%)가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활용 경험은 3배 이상 격차(11.4% vs 35.8%)가 벌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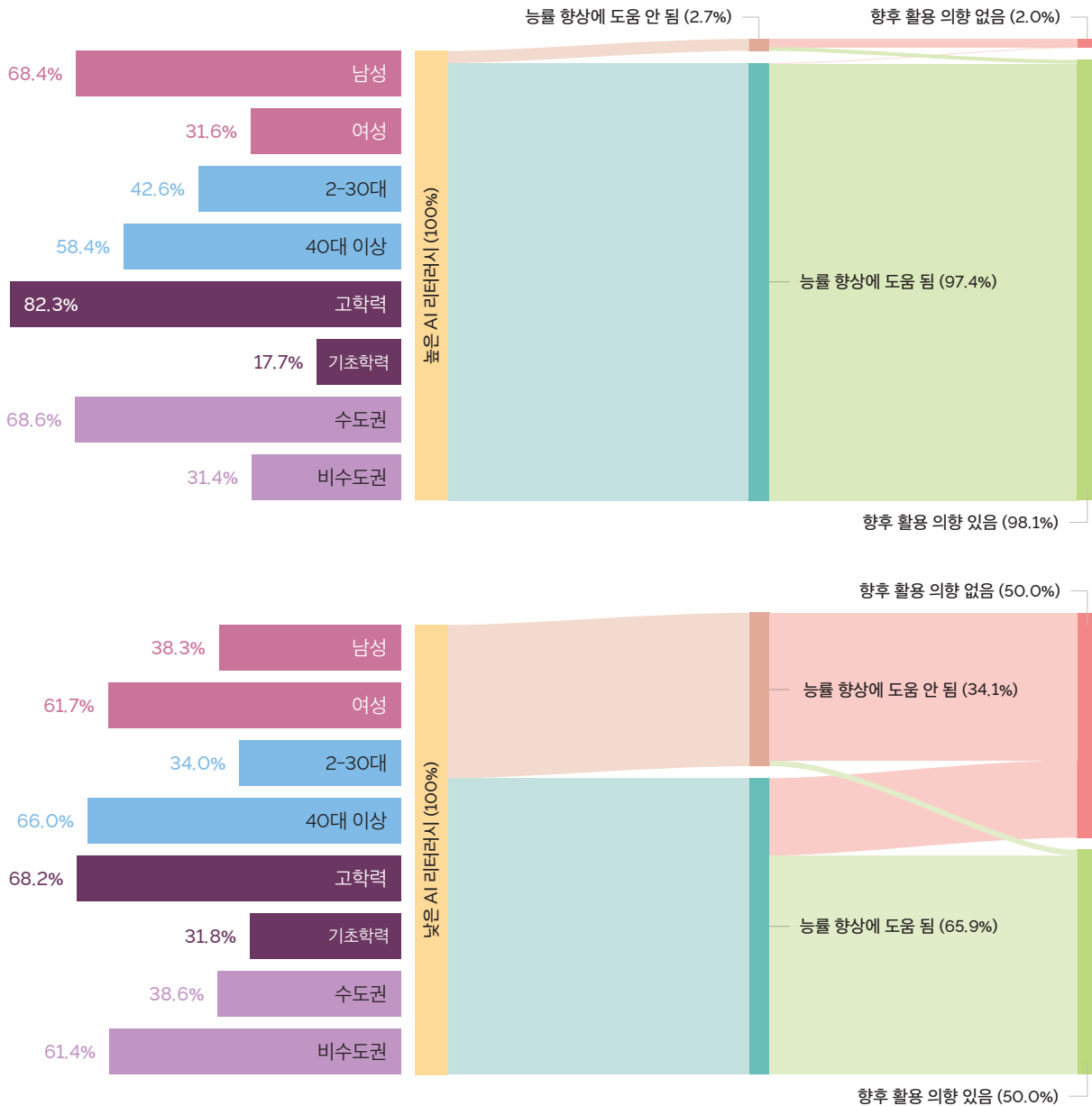
학력에 따른 AI 이해도 및 활용 경험 격차



¹ 인지도, 활용 경험에 대한 '학력'의 피어슨 상관계수는 각각 0.21, 0.24로 나타났다.

AI 리터러시에 따라 달라지는 기술 수용 격차

단위: 특성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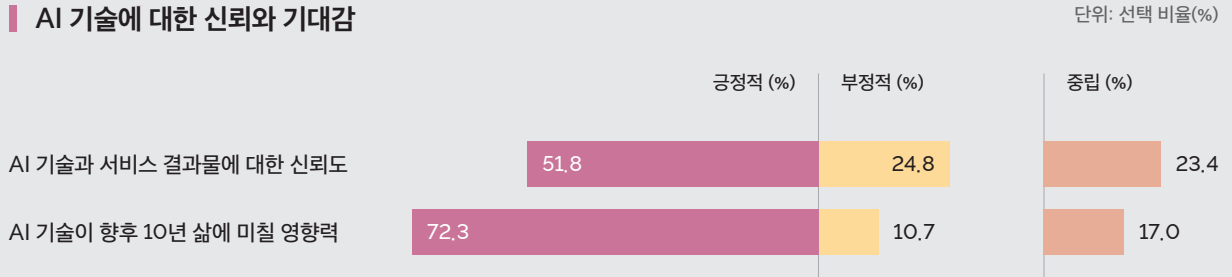
AI 리터러시의 격차는 앞으로 더 벌어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높은 AI 리터러시 수준(AI를 잘 알고, 활용 경험이 있는 사람. 중립 의견 제외)을 가진 사람들의 97.4%는 인공지능을 통해 업무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98.1%가 향후에도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면, AI 리터러시 수준이 낮은 사람(AI를 잘 모르고, 활용 경험이 없는 사람. 중립 의견 제외)들 중 65.9%가 업무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으며, 향후에도 사용할 것이라는 응답이 50%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현재 AI 기술에 대한 이해도와 경험에 따라 향후 활용 가능성이 확연히 달라질 것을 보여줍니다. 성별, 연령, 학력, 지역에 따라 나타나는 인공지능 기술 격차를 해소하여 경제·사회적 양극화로 이어지는 것을 최소화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여성과 고연령대 등 AI 취약층의 인식과 활용도를 개선하는 교육이 필요하며, 이러한 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기초교육 과정의 개선이 논의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역에 따른 격차가 커지지 않도록 AI 리터러시가 부족한 지역을 발굴하여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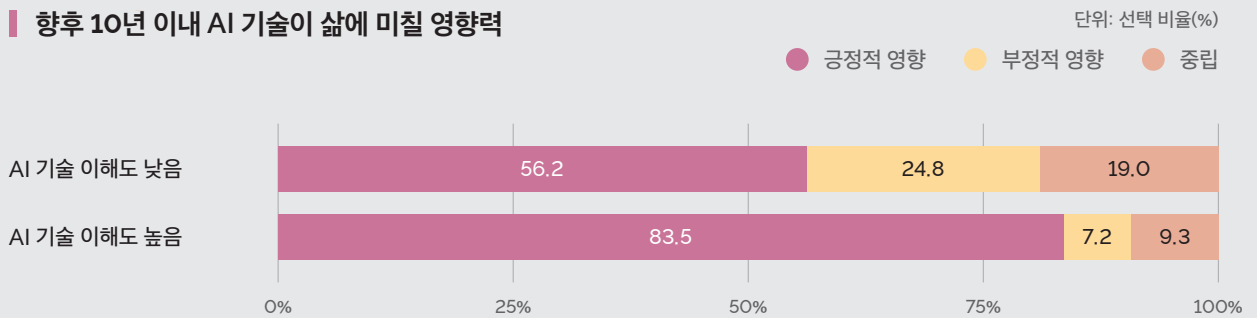
AI 기술에 대한 신뢰와 불안 공존

국민의 절반 이상(51.8%)이 인공지능이 만들어 내는 결과물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10년 후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72.3%로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실재하지 않는 이야기를 지어내는 ‘환각(Hallucination)’ 등으로 인해 결과물을 완전히 신뢰하기 어렵지만, 이러한 오류가 해소되어 장기적으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란 기대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AI 기술에 대한 신뢰와 기대감



향후 10년 이내 AI 기술이 삶에 미칠 영향력



AI가 10년 이내 삶에 미칠 영향력을 평가하는 질문에서는, AI 기술 이해도에 따라 응답이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AI 기술 이해도가 높은(‘잘 알고 있다’고 응답) 사람들의 10명 중 8명 이상(83.5%)은 향후 AI 기술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평가하였습니다. AI 기술 이해도가 낮은(‘잘 모른다’고 응답) 사람들은,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보다 영향력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각각 24.8%, 7.2%).

AI 기술에 대한 정보와 이해가 부족할수록 나타나는 우려감은 사회적 피로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AI 기술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이해도를 높이고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과 더불어, 불확실한 공포감을 조장하는 거짓 정보나 담론을 경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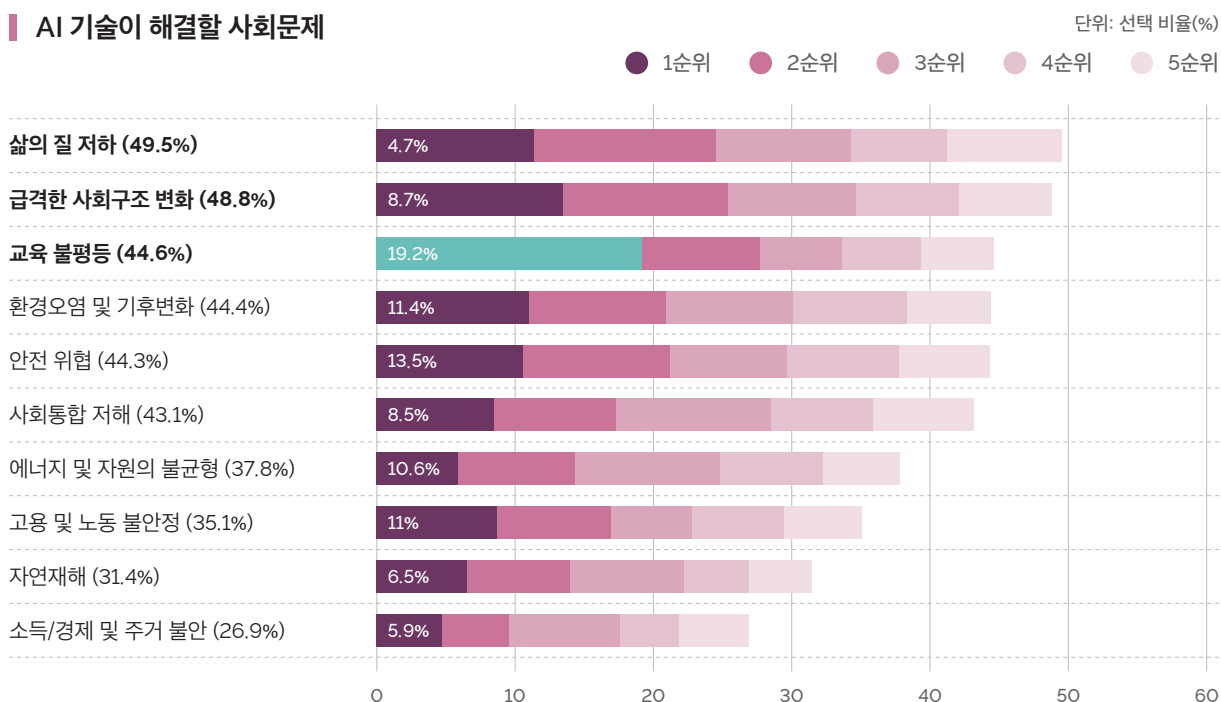
AI & Social Issues 인공지능과 사회문제에 대한 국민의 인식

최근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가 물고을 미래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가 반복적인 업무를 대체하고 창조적인 일을 돕는다는 평가와 함께, 제어하기 어려운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장차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어떤 사회문제를 심화할 수 있을까요. 국민들의 관점과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AI로 인해 해결될 문제, 심화될 문제

국민들은 AI가 어떤 사회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기대할까요. 설문 결과, '삶의 질 저하(49.5%)',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48.8%)', '교육 불평등(44.6%)'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응답이 절반 가까운 공감을 받았습니다. 특히 '교육 불평등'을 1순위로

AI 기술이 해결할 사회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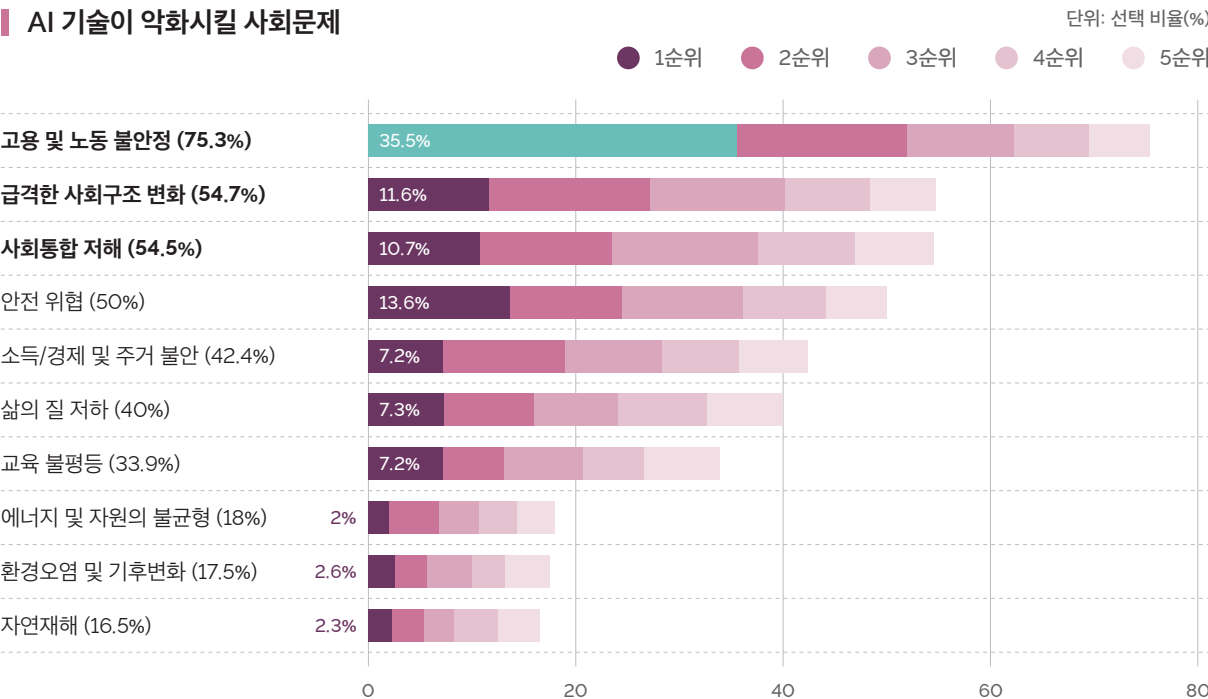


소득/경제 및 주거 불안	AI 도입을 통한 사업장 생산성 증대, 신기술 동력 경기 성장, 불공정거래 및 금융 사각지대 식별 등
고용 및 노동 불안정	AI 기반 일자리 매칭 활성화, 4차산업 일자리 창출, 고강도·감정 노동 업무 AI 대체 등
교육 불평등	공교육 AI 도입을 통한 교육격차 완화, 맞춤형 진로 정보 제공, 취약계층 지식 접근성 증대 등
삶의 질 저하	복지 사각지대 감지 자동화, AI 로봇을 통한 독거노인 및 1인가구 돌봄, 업무량 감소를 통한 일·생활 불균형 해소 등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	AI 로봇 활용 영유아 보육 지원, 노동력(생산가능인구) 부족 해소, 도시 데이터 고려한 맞춤형 도시재생 등
사회통합 저해	AI 로봇 활용 장애인 소통·활동 지원, 정보 접근성 증진 등
안전 위협	미사일·핵무기 등 발사 감지 및 대응, 생활·사업장 안전 위협 탐지, 사이버 범죄 예방 및 차단 등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기후변화 감지 및 예측, 플라스틱 수거 및 순환 자동화, 오염·독성물질 안전 진단 및 관리 등
자연재해	폭우·태풍·산불·지진 등 재난 예측 및 대응, 건축물·도로 붕괴 예측 등
에너지 및 자원의 불균형	자원 순환 및 활용 최적화, 에너지 수요 분석 및 공급 최적화, 에너지 효율 최적화 등

좁은 비율이 19.2%로, 다른 이슈들 (평균 10%)과 비교해 높게 나타나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처럼 AI가 ‘사회’ 영역의 문제들을 개선할 것이란 기대감과 다르게, ‘경제’ 영역의 ‘소득·경제 및 주거불안(26.9%)’, ‘고용 및 노동 불안정(35.1%)’ 문제는 모두 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들은 AI 기술로 인한 일자리 위협을 가장 걱정하는 모습입니다. AI 기술로 인해 ‘고용 및 노동 불안정’ 문제가 가장 악화될 것이라는 답변이 무려 75.3%로 나타났으며 국민 3명 중 1명 이상이 1순위(35.5%) 문제로 꼽았습니다.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 (54.7%)’ 문제가 2위로 나타났으며, 간소한 차이로 ‘사회통합 저해(54.5%)’문제가 3위를 기록했습니다.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는 AI 기술이 해결할 문제에서도 2순위를 기록하였습니다. 국민들은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문제를 AI 기술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보는 동시에, 인프라·활용력의 격차가 사회적 불균형과 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라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AI 기술이 악화시킬 사회문제



소득/경제 및 주거 불안	AI 활용 격차로 인한 소득 불평등 심화, 정책 지원금 쏠림 현상 등
고용 및 노동 불안정	AI의 일자리 대체, IT 직군 인력 쏠림 현상, 대기업·중소기업 간 인재 양극화 등
교육 불평등	소득·지역별 AI 교육 격차, 교육 인프라 쏠림 현상 등
삶의 질 저하	AI 활용 로봇·스마트폰·게임 등 디지털 중독 심화, AI 로봇 과의존으로 인한 신체·정신질환 악화 등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	AI 관련 인프라 격차로 인한 지방 소멸 가속화 등
사회통합 저해	거짓 정보 확산 및 디지털 활용 격차로 인한 이념·세대 갈등 심화, 편향된 AI로 인한 사회적 약자 차별 심화 등
안전 위협	AI 탑재 무기 생산 증가,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심화, 고도화된 사이버 범죄 증가 등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AI 학습·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 심화, AI 활용 합성 생물 개발로 인한 다양성 감소 등
자연재해	AI의 자연재해 예측 오류 및 오작동으로 인한 대응 실패 등
에너지 및 자원의 불균형	AI 학습·운영을 위한 에너지 소비량 증가 등

AI에 대한 불안감, ‘일자리 대체’, ‘활용 격차’ 키워드로

국민들이 AI로 인해 느끼는 불안감은 무엇 때문일까요. ‘2023 한국인이 바라보는 사회문제’에서는 ‘AI로 인해 가장 심화될 사회문제’를 선택한 이유를 주관식 답변으로 들어봤습니다.

해당 응답을 분석하여 도출한 키워드를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통해 분류한 결과, 언급량에 따라 3개의 주제가 상위권에 나타났습니다.² ‘일자리(266회)’, ‘사람(185회)’, ‘정보(136회)’, ‘인간(132회)’, ‘대체’(121회) 키워드가 속한 첫번째 영역(Area A)은 이미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일자리 대체와 가짜 정보 이슈에 대한 우려감을 설명합니다.

“AI로 생기는 일자리 수보다 AI로 사라지는 일자리 수가 더 많을 것 같다. AI가 스스로 유지·보수하는 순간이 오는 순간 AI 개발 관련 일자리도 감소할 것이다(고등학교 교사, 36세 남성).”

“현재도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의도한다면 충분히 편향된 방향의 정보만을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심리상담, 50세 여성).”

“AI가 모든 것을 처리한다면 인간의 능력이 개발될 기회가 사라지고 AI가 인간의 자리를 대신하게 될까봐 두렵다(단순노동직, 64세 여성).”

두번째 영역(Area B)은, 사회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원인에 대한 생각이 담겨있습니다. 국민들은 ‘개인(42회)’의 ‘사용(55회)’, ‘활용(45회)’의 ‘격차(46회)’가 ‘고용(60회)’을 지속적으로 ‘감소(67회)’시킬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AI 활용 능력에 따른 개인 격차가 더 벌어질 것. 또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고용 격차는 더욱 심해질 것이 우려된다(SW 영업직, 34세 남성).”

“지식수준의 다양화, 수도권 중심의 인프라 등 격차 심화로 인한 사회적 구조 변화가 예상된다(간호사, 46세 여성).”

일자리 대체, 거짓 정보 확산 이외에 언급된 다른 사회문제들이 세번째 영역(Area C)에서 나타났습니다. 국민들은 AI 기술이 ‘발전(39회)’할수록 심각한 ‘악용(25회)’, ‘유출(25회)’, ‘범죄(15회)’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며, 결국 ‘평등(21회)’을 깨뜨리고 ‘갈등(16회)’과 ‘침해(15회)’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AI탐제 무기에 대한 대응이 어렵고, 개인정보의 유기적인 연결이 해킹 피해와 범죄율 가속화로 이어질 것이다(SW 개발자, 36세 남성).”

“지금도 AI의 기술 유출 등의 문제가 있는데 도덕적인 범위의 규제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위험성이 있고, 규제 되어도 해킹 등 보안이 완벽하지 않으면 악용될 수 있을 것 같다(전업주부, 59세 여성).”

² 국민 1,000명의 주관식 응답에서 나타난 ‘명사’ 키워드의 빈도를 분석하였으며, 비지도 기계 학습에 속하는 ‘k-평균 알고리즘(K-means clustering algorithm)’을 사용하여 군집화한 결과이다. 이때 언급량은 로그(log)함수를 적용하여 사용했으며, 그래프에도 동일한 값을 반영하였다.



불안감은 대체로 AI 기술 이해도가 낮은 사람들에게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위권에 속한 각 키워드의 비중을 비교했을 때, AI 기술 이해도가 낮은 사람들이 일자리 불안과 관련된 키워드(일자리, 대체, 고용 등)를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민들의 불안감이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합한 대비책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국민이 느끼는 AI 위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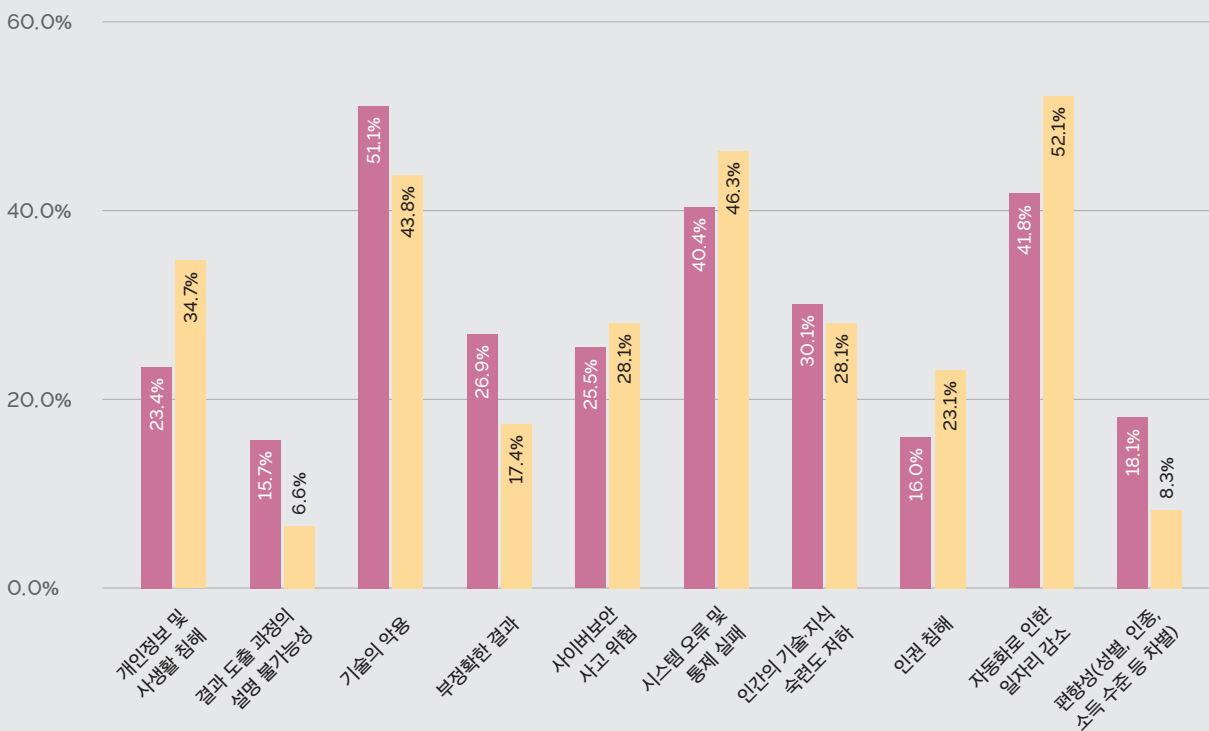
국민들은 인공지능이 가져올 가장 큰 위협으로 '기술의 악용(45.4%)'을 꼽았습니다.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44%)'와 '시스템 오류 및 통제 실패(43.4%)'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잠재적인 위협으로 평가한 상위 3개 항목의 편차는 1%p에 불과했습니다. AI 기술 이해도에 따라 국민이 느끼는 불안감도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습니다.

AI 이해도가 높은 응답자들은 '편향성(성별, 인종, 소득 수준 등 차별, 18.1%)', '부정확한 결과(26.9%)', '결과 도출 과정의 설명 불가능성(15.7%)'과 같은 윤리·기술적 문제에 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해도가 낮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34.7%)',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52.1%)', '인권 침해(23.1%)'와 같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초점을 두는 모습입니다.

AI 기술 이해도에 따른 위협 인식

단위: 선택 비율(%)

● 이해도 높음 ● 이해도 낮음



가장 위협을 느끼는 직업군은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AI로 인한 일자리 대체 위협을 가장 크게 체감하고 있을까요. 현재와 미래의 삶에서 AI로 인한 일자리 위협을 심각하게 여기는 수준(중대성³)을 직업군별로 살펴봤습니다.

AI로 인한 일자리 위협을 가장 중대하게 느끼는 직업군은 '전업주부(26.3%)'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AI 이해도가 다른 직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이러한 인식이 불안감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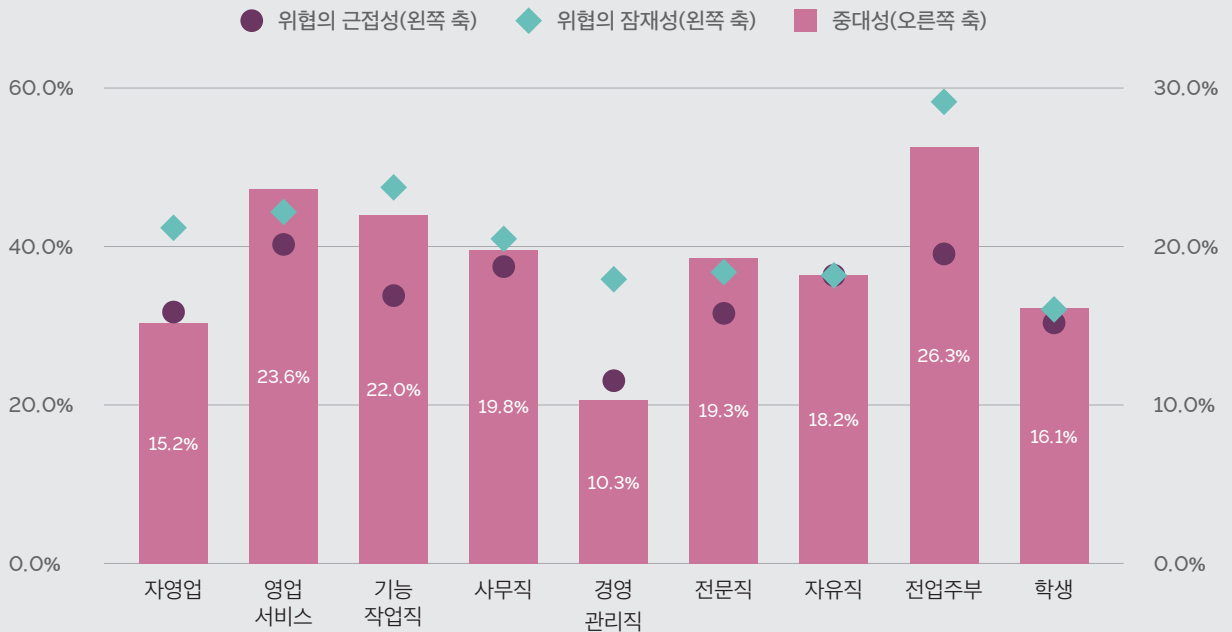
또한 상점 점원, 세일즈맨 등으로 일하는 '영업·서비스직(23.6%)', 토목 현장 작업·청소 등을 하는 '기능·작업직(22%)'이 느끼는 중대성이 2, 3위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영업·서비스 직군에 종사하는 국민들은 현재의 삶에서 AI로 인해 '고용 및 노동 불안정' 문제가 가장 심화될 것이란 인식(위협의 근접성⁴)이 가장 높게 나타나(40.3%), 당장 AI 기술로 인해 자신들의 일자리가 대체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경영·관리직의 경우 AI로 인한 일자리 위협의 중대성을 가장 낮게 평가(10.3%)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AI로 인해 발생하는 '고용 및 노동 불안정' 문제(위협의 근접성)의 심각성을 다른 직업군에 비해 가장 낮게 여기는 것(23.1%)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미래의 일자리가 대체될 수 있다는 위협(위협의 잠재성⁵)을 가장 덜 느끼는 직업군은 '학생(32.1%)'으로 나타나, AI 기술에 대한 이해도 및 활용도에 따라 이들의 진로와 미래의 일자리 유형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직업군별 AI의 일자리 위협 인식

단위: 선택 비율(%)



³ 중대성: AI 기술로 가장 악화될 문제로 '고용 및 노동 불안정'을, 장차 다가올 미래에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 문제를 가장 큰 잠재적 위협으로 꼽은 국민 비율(%)

⁴ 위협의 근접성: AI 기술로 악화될 문제 1순위로 '고용 및 노동 불안정'을 선택한 국민 비율(%)

⁵ 위협의 잠재성: AI 기술이 삶에 미칠 잠재적 위협 1순위로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부족'을 선택한 국민 비율(%)

CHAPTER 5

Beyond 2023

우리가 만드는 미래

Conclusion

최근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기후위기 등 환경 이슈로 인한 미래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부, 기업, 국회,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023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는 미디어 분석, 국민 1,000명 대상 인식조사, OECD 국가 대비 한국의 심각성 등 연구 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 나아갈 방향과 종합 시사점을 도출합니다.

1 Urgent 문제 해결 난이도가 높고 현재보다 미래 임팩트가 커지는 사회문제



우선순위(Urgent) 문제는 문제 해결이 어렵고(난이도 50점 이상), 국민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커지는 사회문제들로 구성됩니다. 난이도가 높고 영향력이 미래에 더 커지기 때문에 해당 사회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위기와 기회 모두 큰 영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자원 및 역량을 집중해 문제 해결과 미래 상황에 적극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간 협력을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우선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문제 해결 난이도가 높고 현재보다 미래 임팩트가 커지는 사회문제	현재 임팩트	미래 임팩트	문제 해결 난이도
노인 우울증 및 소외 증가	47	83	93
먹거리 불안 및 식량 생산체계 부족	33	68	77
노인 빈곤 심화 및 불안정한 노후생활	77	91	93
해수면 상승	7	21	88
재난 사고 대비 및 대응 부족	67	80	54
대체 에너지 개발 기술 부족(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 부족)	86	97	93
기후변화 정책 및 대응 부족	60	69	93
유실·유기동물 안전 부족	3	6	88
태풍 증가	20	23	69
폭설과 폭우 증가	45	48	65
공교육 붕괴 및 사교육 심화	82	84	86
고등교육의 질 저하	22	24	71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부족(사업장 안전 관리, 근로자 부상 문제 등)	74	76	80
대기업 불공정 거래(갑질 기업)	2	3	82
저출생 문제	88	89	93

*현재와 미래 임팩트의 격차와 문제 해결 난이도를 합산한 값으로 Top 15 이슈를 도출했다.

현재와 미래, 문제 해결 전략 방안

국민이 인식하는 사회문제와 한국의 문제 해결 수준 데이터를 바탕으로 도출한 '사회 문제 분석 프레임워크(Impact Issues Priority Matrix)'를 기반으로 ① Urgent : 우선순위 문제, ② Important : 주요 관심 문제, ③ Managing : 지속 관리 문제, ④ Delegate : 위임과 실험 문제 등 4가지 문제 해결 전략 방안을 분석했습니다.

사회적 고립, 최우선 이슈로

국민들은 현재보다 10년 후 미래에 고립과 기후위기로 인한 문제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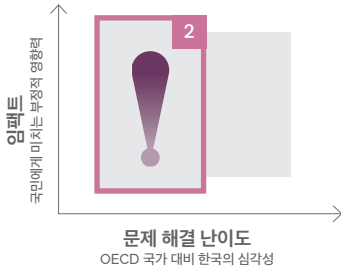
‘노인 우울증 및 소외 증가’ 문제는 현재보다 미래에 임팩트가 커지는 수준을 기준으로 지난해 5위에서 올해 1순위(↔36점)로 떠올랐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 해소를 위해 모든 주체가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이슈로 분석됩니다. 국내에서 홀로 사는 65세 이상 고령층은 197만3000명(2023년 8월 통계청 조사 기준)으로, 65세 이상 내국인의 21.8%에 달합니다. 또한 한국의 50세 이상의 ‘사회적 지지도(어려운 시기에 의지할 수 있는 지인 존재 여부)’는 OECD 38개국 중 최하위(2022년 기준)를 기록해,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후위기와 미래세대 위한 대책 시급

해수면 상승을 비롯한 기후변화와 환경 이슈가 상위권에 포진하였습니다. 국민의 우려와 더불어 OECD 국가 대비 한국의 심각성이 큰 모습입니다. 특히 2020~2022년에는 현재보다 미래에 영향력이 커지는 이슈 Top 15에 포함되지 않았던 ‘유실·유기동물 안전 부족’, ‘태풍’ 문제가 올해 처음으로 순위에 올랐습니다. 더불어 ‘기후변화 정책 및 대응 부족’ 문제가 2년 만에 10위권 내에 등장해, 보다 장기적인 관점의 정부 정책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지난 3년간 수면 아래 있었던 ‘공교육 붕괴 및 사교육 심화’ 및 ‘고등교육의 질 저하’ 문제가 올해 처음으로 Top 15 순위권에 포함되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가계 사교육비 지출은 OECD 국가 중 3위로 매우 높고, 최근 교권 침해 문제까지 겹쳐 미래세대의 양질의 교육 환경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2 Important 현재보다 미래 임팩트가 커지고, 문제 해결 난이도가 낮은 사회문제



주요 관심(Important) 문제는 국민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지고 문제 해결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난이도 50점 미만) 사회문제들로 구성됩니다. 임팩트가 미래에 더 높아지지만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우선순위(Urgent) 문제에 집중되어야 할 자원과 역량의 쓸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곧 다가올 미래 문제에 대한 효율적·효과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위기보다는 기회가 큰 영역으로 전략적인 문제 해결이 중요합니다.

*현재와 미래 임팩트의 격차와 문제 해결 난이도를 합산한 값으로 Top 15 이슈를 도출했다.

현재보다 미래 임팩트가 커지고, 문제 해결 난이도가 낮은 사회문제	현재 임팩트	미래 임팩트	문제 해결 난이도
4차 산업혁명 인재 육성 교육 부족	16	53	27
물 부족(식수공급 불균형 등)	37	74	25
국가 연구 인력 및 자본 부족	15	46	7
(가뭄·홍수 등으로 인한)토지 황폐화	43	73	7
의료비 부담 증가(저소득층 의료 지원 부족)	53	78	17
감염병 확산 및 대응 체계 부족	46	69	31
지구 온난화	80	98	28
가뭄·홍수 증가	69	87	35
지속가능한 자원 관리 부족	64	81	47
세대/연령간 갈등 및 격차 심화	78	94	46
전력수급 불안정	38	54	45
디지털 및 정보 격차 심화	25	40	4
취약계층 및 지역 교육 격차 심화	52	66	17
독신자 및 1인가구 증가	44	57	21
생물다양성 감소 및 생태계 파괴	5	18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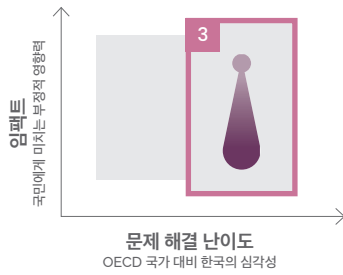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전략 필요

챗GPT가 가져올 변화에 전 세계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인공지능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AI 리터러시(인공지능 문해력) 역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은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역량 있는 인재가 부족한 현실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요 관심(Important) 문제 중 ‘4차 산업혁명 인재 육성 교육 부족’이 현재보다 미래 임팩트가 큰(↔37점) 1순위 이슈로 떠올랐지만, 지난 2년간은 15위권 밖에 있었습니다. 또한 2020년 이후 단 한 번도 상위권 이슈로 떠오르지 않았던 ‘국가 연구 인력 및 자본 부족’ 문제가 3위(↔31점)로 부상하며,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정책과 다양한 주체간 효율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연 자원과 에너지 대책 필요

‘물 부족’, ‘토지 황폐화’, ‘전력 수급 불안정’ 등 자연 자원과 에너지 수급 이슈가 올해 새롭게 주요 관심 문제로 등장했습니다. 특히 국민들은 현재보다 10년 후 미래에 물 부족과 토지 황폐화 문제가 더욱 심각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미래 부정적 영향은 지난해 보다 각각 9점, 18점 높아져 중장기적인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이어진 한파와 폭염으로 인해 전기 요금 및 가스비가 폭등하면서, ‘전력 수급 불안정’ 이슈가 올해 처음으로 주요 관심 문제에 포함된 모습입니다. 국민의 에너지 기본권을 지킬 수 있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3 Managing 문제 해결 난이도가 높고, 미래보다 현재 임팩트가 큰 사회문제



지속 관리(Managing) 문제는 국민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미래보다 현재 더 높고, 문제 해결 난이도가 높아 꾸준한 지원과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회문제들로 구성됩니다. 난이도가 높은 만큼 문제 해결에 성공하는 경우, 더 나은 사회 변화를 확산할 수 있는 기회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문제 해결 난이도가 높고, 미래보다 현재 임팩트가 큰 사회문제	현재 임팩트	미래 임팩트	문제 해결 난이도
청년 일자리 부족	92	54	65
비정규직 증가(비정규직 차별)	71	37	91
소상공인/자영업자 소득 불안정 및 생존 문제	54	27	74
가계부채 증가	94	72	73
성별격차 및 성차별	49	31	70
지역발전 불균형	60	44	68
구인 및 인력난	73	58	85
진로 교육 및 직업교육 부족	42	28	62
취약계층 사회 안전망 부족(취약계층 복지 부족)	51	39	90
일·생활 불균형(일·가정 양립 불가능, 긴 근로시간)	98	86	81

*현재와 미래 임팩트의 격차와 문제 해결 난이도를 합산한 값으로 Top 10 이슈를 도출했다.

일자리 및 가계 살림 안정돼야

당장 해결이 시급하고, 문제 해결 난이도가 높은 영역으로 일자리 안정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OECD 38개국 중 한국의 32~39세 경제 활동 참여율(78.2%)은 36위로 최하위권입니다(2022년 기준). 비정규직 비율(27.3%)도 34개국 중 33위로 OECD 평균(12.4%)의 2배가 넘습니다. 국민들이 현재 청년 일자리와 비정규직 증가 문제를 심각하게 체감하고 있지만, 해결이 어려운 만큼 세밀한 모니터링 및 대응을 통해 지속적인 솔루션을 찾아가야 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구인 및 인력난'과 '진로 교육 및 직업 교육 부족' 문제가 지속 관리(Managing) 문제에 포함된 만큼, 일자리의 미스매치 문제 해결과 함께 진로 교육의 장기적인 방향성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고금리 현상이 지속되면서, 가계 대출과 소상공인 연체율 상승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정책을 통해 대처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현재 느끼는 불안감은 여전히 높은 모습입니다. 가계 살림과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한 해결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향후 유사 상황에서 한 발 앞서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지난해에 이어 '성별 격차 및 성차별'과 '지역발전 불균형' 문제가 해당 영역에 포함된 만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차별과 갈등 문제가 심화되지 않도록 중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④ Delegate 문제 해결 난이도가 낮고, 미래보다 현재 임팩트가 큰 사회문제



위임과 실험(Delegate) 문제는 국민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이 미래보다 현재에 더 크며, 문제 해결 난이도가 낮은 사회문제들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정부가 모든 액션을 주도하기 보다는 국회 및 정당, 기업, 시민사회와 함께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문제 해결 난이도가 낮은 이슈에 대해서는 시민사회와 개개인이 다양한 실험과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보다 혁신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권장됩니다.

문제 해결 난이도가 낮고, 미래보다 현재 임팩트가 큰 사회문제	현재 임팩트	미래 임팩트	문제 해결 난이도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부담	75	30	13
대기업/중소기업 임금격차 및 중소기업 인력난	95	62	14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 부족	91	62	16
성범죄(성폭력 사건 등) 증가	66	42	39
학교폭력	40	20	2
대형산불 증가	62	47	34
도시 인구 집중 및 지방소멸	65	54	40
부정부패 및 뇌물수수	56	45	42
집값 불안정(전셋값 폭등 등) 및 주거 부담 증가	97	87	3
어려운 창업(창업 혁신 부족)	35	25	26

*현재와 미래 임팩트의 격차와 문제 해결 난이도를 합산한 값으로 Top 10 이슈를 도출했다.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사회 되길

위임과 실험(Delegate) 문제는 정부 정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고, 다양한 주체간 협력과 변화가 필요한 이슈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부담’, ‘집값 불안정 및 주거 부담 증가’는 OECD 국가별 지표 측정의 차이로 한국의 심각성이 다소 낮게 나타나지만, 현재 국민이 체감하는 어려움이 현저히 큰 문제로 꼽힙니다. 지역 및 정당간 이해관계를 넘어,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및 정책의 합의점을 찾을 때 보다 효율적인 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기업 및 중소기업 임금격차’와 ‘중소기업 인력난 문제’,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 부족’, ‘부정부패 및 뇌물수수’ 등 기업 차원의 노력과 함께 다양한 주체간 모니터링과 협력이 필요한 문제들도 눈에 띕니다. 시민사회의 문제 제기와 솔루션 제시, 국회 및 정당의 입법 마련을 통해 더 나은 해결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범죄 증가’, ‘학교폭력’, ‘대형 산불 증가’ 등 국민들이 현재 불안감을 느끼는 문제들이 해당 영역에 포함되어 안전한 사회로의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관련 정책 및 규제가 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의 현장 모니터링과 개개인의 인식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한편, ‘도시 인구 집중 및 지방소멸’ 이슈가 올해 위임과 실험 문제에 포함되었습니다. 지역의 매력을 높이고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솔루션이 필요한 만큼, 사회적기업·소셜벤처 및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실험과 참여로 변화를 확장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를 세우는 개인, 개인을 돌보는 사회

사회에 대한 신뢰를 잃은 국민들은 개인의 행복도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회를 '살기 좋다'고 평가하는 비율은 작년 60.0%에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48.1%)으로 하락했으며, 행복감은 6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작년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67.4% → 63.7%).

행복을 바라는 국민들은 엔데믹 이후 일상으로의 복귀, 가계 경제 회복 등 각자의 삶에 문제에 더욱 초점을 맞춘 모습입니다. 20~30대 남성은 소득과 주거를 가장 중대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은 사회의 안전과 통합을 남성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0대 남성은 고용 불안, 여성은 환경 문제를 가장 우려하고 있으며 60대 이상은 불안정한 노후 문제에 대한 대책이 속히 마련되기를 바라는 모습입니다.

이렇듯 사회의 문제는 점차 개인의 문제로 개별화되고 있습니다. 사회문제 해결에 들이겠다는 시간(8시간 42분 → 7시간 52분)과 자원(18만 7,700원 → 8만 9,100원)은 크게 줄었습니다. 또한, 사회문제의 책임과 해결에 대해 개개인보다 정부나 시민 단체와 같이 사회적인 의제를 다루는 기관들의 영향력을 더 중요하게 평가하였습니다.

반면 개인의 행복감은 사회에 대한 신뢰와 안정을 통해 얻어지며, 그 연관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즉, 살기 좋다고 여길 수 있는 사회 속에서 개인의 삶의 질과 행복감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개별화된 문제 속에서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동시에, 무너진 신뢰와 협력 체계를 회복하는 노력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통합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문제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가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ESG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고용, 일과 생활의 불균형, 저출생, 기후위기 등 국민의 삶에 가장 어려움을 미치는 문제들은 이제 기업의 비즈니스와 떼어 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중 중대성을 강조하는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고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혁신의 기회를 포착해야 합니다.

기업을 비롯한 사회문제의 해결 주체들이 서로 협력하고 진정성 있는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의 기대가 높아진 시민사회단체, 국제기구 등 전문성을 갖춘 기관들과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아가야 합니다. 특히 AI의 일자리 대체 문제가 대두하며 향후 국민들의 행복감에 가장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미 크게 벌어진 AI 리더러시 격차를 해소하고 고용을 비롯한 관련 문제들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회문제에 대한 개인의 무관심은 또 다른 종류의 문제인 동시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요한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견고하게 구축하는 것이 개인이 행복해지는 과정임을 서로가 인식하고, 내가 아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참을 꺼리지 않는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2023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발행일	2023년 9월 13일
기획 및 연구	CSES·triplelight
디자인	작업실 틈새

2023 일반 국민 설문조사 로데이터와 설문지는
SVhub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Website

www.cses.re.kr

www.triplelight.co

주소 Address

04513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39 서울상공회의소 8층 사회적가치연구원(CSES)

04315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90길11 용산더프라임 208호 트리플라잇

전자우편 E-mail

research@cses.re.kr

impact@triplelight.co

연구 리포트에 수록된 데이터 및 콘텐츠 저작권은 CSES·triplelight에게 있습니다.
Copyright ©2023 CSES · triplelight. All rights reserved.

픽토그램은 www.flaticon.com의 자료를 사용해 디자인되었습니다.

